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4

제43권 제1호 통권 48호

제43권

제1호

통권 48호

2024

大韓齒科醫史學會발행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1889-?)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EXTREMELY
THIN RIDGE
OK!

LOCAL BONE
DEFECT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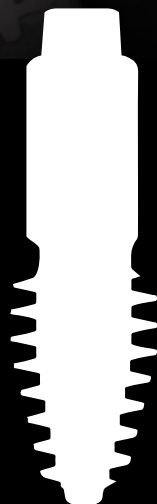
SEVERE
PERIODONTITIS
OK!

이모든게

극한의 난케이스도

3달만에?

ARi[®]로 쉽게 해결!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4

제43권 제1호 통권 48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그림 설명>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1889-?)

Sketched by 김충식 작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학회의 기원은 1958년 10월 1일 발족된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입니다. 2년 후인 1960년에는 제1호 학회지가 발행되었고, 1962년 대한치과의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대한치과의사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66년의 역사를 갖는 학술단체입니다.

2024년 학술대회는 대주제를 ‘치과의사, My way를 가다’로 정하고 치과의사 직함을 가지고 치과계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3분의 연자(최규옥, 이노범, 장성욱)와 구강악안면외과의 영역을 고군분투로 지키시는 구강외과 원장님(권민수),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치의학 역사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원장님(권훈)을 모셨습니다.

학회지는 양정강 선생님의 60여년의 치과의사 인생, 권민수 원장님의 턱교정 수술법의 역사, 성주 이씨 선대분인 목재 이문건(1494-1567)의 목재일기를 치과 기록적으로 고찰한 이원섭 원장님의 원고, 미국 대통령들의 치과 치료를 통해 본 치의학 발전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2024년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대한치과의사학회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3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권 훈

목 차

나의 치과의사 인생	1
양정강(Yang, Joung Kang)	
턱교정수술법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35
권민수(Kwon, Min-Su)	
묵재일기(默齋日記)의 치과기록 고찰	47
이원섭(Lee, Won-seop)	
미국 대통령들의 치과 치료를 통해 본 치의학 발전사	65
권훈(Kweon, Hoon)	

나의 치과의사 인생

양 정 강

Yang, Joung Kang

어쩌다 치과대학 입학?

나의 419와 516

졸업 후 진로

구겐하임 치과병원 진료시절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석사 과정

시카고대학 WALTER G. ZOLLER

MEMORIAL DENTAL CLINIC 근무

연세대학교 전임강사 임용

박사학위 과정과 기생충학 교실

소아치과 학회 참여

치과의사협회 임원 하기

양정강 치과 개원

양정강 장학금

세동회

로타리인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선이클 18년 이야기

보건대학원 고위자 과정

신당동 모임 이야기

치과보험학회 창립하기

건치신문 논설위원 위촉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모임 참여

의료윤리 연구회 참여

자랑스러운 상(賞)받기

사랑사랑 치과병원장 취임

나의 치과의사 인생

사람사랑치과 원장
양 정 강

어찌다 치과대학 입학?

대학 입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A4 한 장 분량으로 24회 정도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지난날을 돌아볼 겸, 정리도 할 겸,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이를 시작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58년 고3 담임선생님과 진학 면담을 했다. 원하는 의대도 지원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치대에는 더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담임선생의 의견에 어머니가 즉석에서 “좋아요” 답변을 하기 전까지 나는 치과의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국민(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모두가 써낸 장래 희망에 ‘의사’라고 한 이후 다른 진로는 생각한 일이 전혀 없었던 지금의 나는 양의사 아니고 치의사로 평생을 보내고 있다.

당시 나를 치대로 안내해주셨던 3학년 7반 김세영 선생님을 지난해에도 찾아뵈었다. 졸업반 담임 선생님 여덟 분 중 유일하게 건재하시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뵙고 돌아오면서도 그 옛날, 의대보다 치대 입학의 ‘커트라인’이 잠시나마 높을 것을 아셨던 걸까? 생각했다.

대학 입학을 하고 나서야 나는 치대가 의대 6년제와 달리 4년제 마지막 학년임을 알았다. 이듬해 6년제 입학은 치의예과로, 동시에 자연계 2년 수료 이상 자격으로 20명이 공백을 채웠다. 입학 후 첫해엔 소공동 본교와 지금 대학로라 부르는 자리에 있던 문리대 교양학부를 오가며 영어, 철학 등 여러 강의를 듣기도 했다.

기초과목의 해부학(성기준), 생리학(남기용), 약리학(오진섭), 생화학(이진순, 성낙응), 미생물학(박진영), 예방의학(권이혁) 강의는 의대 교수가 했다. 이때 소공동 교사 주변 환경이 학업 분위기에 덜 어울리기도 하면서 교수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했으나 성기준 교수의 한마디는 평생 기억으로 남았다. 바로 옆 한국은행 건물을 가리키면서 “돈에 욕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다니기보다 ‘은행 금고털이’ 공부를 하라.”고 했다. 이는 훗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인터뷰 내용 “돈에 연연해서 의사가 되려면 오히려 장사를 하라”로 이어졌다.

기억에 뚜렷이 남는 실습은 역시 인체해부학이었다. 기초학 과목에서는 재시험들을 많이 보는데 지방 집으로 떠나며 대리시험을 부탁받아 답안지를 내려는데 다른 친구가 같은 이름으로 내는 것을 보고 황급히 거둬드린 아찔한 기억이 새롭다. 소위 복학생이 여럿이었는데 10년 이상 차이 나는 이가 형이라 부르며 노트를 빌려 가던 생각도 난다.

3학년이 되고는 419를, 4학년이 되고는 516을 겪었다. 현대사에 심대한 기록을 남기는 시절을 대학에서 보냈다.

지척에 있는 명동이나 멀지 않은 덕수궁을 찾는 낭만도, 차분한 학업과는 거리가 있는 대학생들이었다. DISK란 음악감상 모임을 이대생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당구를 열심히 치는 친구, 춤바람이 난 친구도 있었다.

어느 날부터 반 친구들을 둘러보니 ‘UNCLE FELLOW’란 이름으로 복학생과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모였다. 등산팀 ‘ALPINE’, 공부팀 ‘研友會’, ‘COSMOS’, ‘SCA’, ‘IVY’, ‘IDEA’, 라는 이름을 한 모임들이 생겨났다. 아무런 모임에도 소속이 없는 친구 일곱 명을 모아 ‘UNIT’(치과 치료의자)라 하고 글 모음집을 만들었는데, 세월 따라 건재한 친구는 미국 일리노이 치대 소진문 명예교수 한 명뿐이다.

입학 후 첫 학급대표인 ‘총대’를 뽑는데, 첫 총대는 수석 합격자가 맡는다. 그런데 수석 합격한 친구가 사양해 차석이 맡았다. 내 입학성적은 등외다. 2학기 선거에서 나는 부총대가 되고, 이어 2, 3학년 때 총대를 했다. 100명 정원인 곳에 한 학교에서 15명이나 8명씩 여럿이 합격하기도 한 친구들 사이에서 단 둘이 지원해 둘이 합격한 처지에 대표를 맡았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자존감에 좀 보탬이 된 것 같다.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15명이 합격한 학교 후보가 당선되고, 8명이 합격한 학교 후보가 근소하게 차석을 차지했다. 나는 큰 차이로 꼴찌를 했는데도 즐거웠다.

등록금 중 일부인 수업료 상위 20% 면제는 줄곧 받았고,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한 인천 신호용 군과 성적 차이가 큰 차석이지만 학장상까지 받았으니 감사한 치과대학 4년이었다.

나의 419와 516

1960년 4월 19일, 소공동 교사에서 3학년 수업 중 어디선가 알려진 소식에 모두들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로 시청 쪽으로 향했으나 이미 광화문 네거리까지 밀린 데모대를 만나 다들 흩어져 귀가를 서둘렀다.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한 발포로 총격전이 벌어진 후 뒤늦게 나선 것이었다.

학생들의 힘으로 나라의 틀이 변하면서 학생운동의 하나로 ‘국민계몽대’ 표찰(標札)을 달고 충남 당진 등을 돌며 감히 농민들 앞에서 생활개선 운동 차원의 연설을 한 일은 지금 생각하면 참 쑥스럽다.

예나 지금이나 이과보다 법대나 상과대학을 다닌 절친이 더 많다. 서울대에서 ‘통일 운동’ 모임 준비에 12 단과대학의 구색을 위해 법대 친구가 찾아왔다. 11월 1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발기인 모임엔 정치과, 법대 주동자들 모습을 본 이후 어울릴 자리가 아닌란 생각에 처음이자 마지막 참여였다. 이후 ‘민통(민족통일연맹)’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슬로건에 민족주의가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해 세상이 매우 시끄러웠다. 516 군사 정변 이후 관련자들은 15년에 달하는 실형을 받기도 했다.

1961년 4학년, 임상 실습으로 환자 진료에 분주하던 중, 516 다음다음 날인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장충동 집 대문 앞에서 바로 성동경찰서로 끌려갔다. 516 혁명공약의 “첫째, 반공(反共)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에 따른 소위 ‘용공분자(容共分子)’는 검속(檢束) 대상이었다. 발기모임에 단 한 차례 참석했으나 치대에서 유일한 참여로 ‘민통’ 조직표 상위에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정보계 경사는 뺨부터 때리고, 가담 이유를 물어, 순간 ‘이 북에 계신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서라고’ 했다. 어린애 같은 계산된 답이 통했는지 취조(取調)는 그게 다였다.

유치장 한 방에 일본 유학을 한 젊은 교수와 혁신계 정치인(윤길중)도 ‘용공’ 관련으로 잡범들과 함께했다. 훗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고 훌륭한 서예가인 윤길중 어른이 써준 양정강치과 개원 축하 족자(簇子), ‘일원무애(一圓無碍)’는 지금 내 서재(書齋) 벽에 걸려있다. ‘콩밥’이라 불리는 주먹밥을 먹는데, 며칠 후부터는 속에 ‘스팸’이 들어있었다.

유치장 근처 밥집에 ‘특식’을 부탁한 어머니님 솜씨다. 그때나 이제나 세상살이를 편하게 보내서인가? 사상적으로 뚜렷한 이념을 품은 바도 없는 처지로 유치장 생활이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래도 사업차 일본 출장 도중, 급히 귀국한 부친에게 심히 죄송했다.

학교 출석번호 43번과 같은 43일 만에 재판도 없이 풀려났다. 당시 대학마다 중앙정보부(안기부, 국정원) 직원이 있었음에도 교수회의에서 출석미달을 눈감아 주어 결석을 많이 한 친구들도 함께 유급을 면했다.

1962년 12월 구강외과 인턴 및 석사과정 중, 뉴욕 구겐하임 치과병원 취업 초청장을 받고 미국엘 가게 됐다고 방방 댄 기억이 새롭다. 한데 용공 경력이 걸림돌이라 사전에 힘 있는 이의 도움을 마련한 후 여권 발급 창구를 찾았으나 위에서의 전달 이전인지 불가(不可)라고 했다.

재확인 후 찾아간 창구 직원은 전과 기록으로 퇴짜 후 바로 허가는 처음이라는 표정이었는데, 당시 ‘중정’ 김○○ 부장 배려로 1963년 8월 미국행이 가능했다. 1979년 동경도 치과의사회 방문차 신청한 여권이 이미 미국에 5년 머문 이후 임에도 발급 거절로 여행을 포기했다. 다음 해 ‘남산’에 위치한 ‘중정’에서 면담한 후로는 외국 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 2005년엔 갱신한 여권을 공항 출발장에서 아슬하게 전달받으며 남들보다 발급과정이 한 단계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전에 유치장에 여러 날 갇힌 전력(前歷)이 여전히 작용했다. 전과(前科)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빨간줄’이 참 길기다.

졸업 후 진로

대학 3학년 때 받은 징병 검사에서 생각에 없던 병종(丙種) 불합격을 받았다. 7살 때 친구네 집 2층 창가에서 날리던 연을 잡으려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결과로 훗날 ‘외상성 시신경 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한쪽 시력이 그저 뿌영게 보일 정도여서 ‘수도 육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다음 날 검사 결과지를 열어본 군의관이 불합격이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불법 징집 기피나 단축이 흔했는지 경찰서장, 최종 심판장 모두 겉으로 보면 멀쩡하니 ‘정말 안 보이나?’라며 한마디씩 했다. 징병관 앞에서 ‘병종 불합격’을 복창하고는 다들 가는 군에 못가는 것이 한편 부끄러우면서도 졸업 후 바로 미국엘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여 일찍이 뉴욕 구겐하임 치과병원과 뉴욕대학에서 치주학을 수학한 김낙희선생 댁으로 주소 하나 알기 위해 케이크를 사 들고 찾아갔다. 구겐하임 치과병원은 매년 세계 30여 나라에서 70여 명을 ‘Fellow’ 이름으로 초청, 8월부터 10개월 근무하는 뉴욕 시내 초등학생들을 무료 진료하는 자선 병원으로 당시 미국 가는 대표적 통로였다.

지원한 병원에서는 4학년 말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 인턴과 동시에 대학원 진학을 했다. ‘구강외과’로 입학한 동기 6명 중 둘이 방사선과 지망인데 교수가 가장 빠를 것이란 기대로 ‘방사선과’를 선택하여 첫해는 구강외과, 2년 차부터는 방사선과에서 일했다. 인턴과정이 끝나갈 무렵 아예 잊고 있던 구겐하임 치과병원 초청장을 받고는 서둘러 석사 논문 준비를 시작했다. 이춘근 주임교수로부터 받은 논문 제목은 남일우 동기생에게 가고 안형규 방사선학 담당 교수로부터 논문 제목을 받아 3학기 만에 필요 학점을 취득, 4학기엔 등록금만 내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3년 8월 구겐하임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소아치과 교과서와 타이프라이터를 장만했는데 용도는 각종 지원서 작성이 첫째였다. 당시로는 힘들게 간 미국이라 10개월 근무 이후 수련이나 학업을 위한 여러 진로를 모색했다. 우선 병원 소속 치과 인턴과정과 대학원 교정과 여러 곳을 지원했는데 교정과는 모두 퇴짜로 경쟁이 심했고, 인턴은 딱 한군데 인터뷰까지는 했으나 안됐다.

여러모로 시도한 결과 3가지 진로가 가능했는데 우선 워싱턴 DC ‘하워드대학’ 보철과 수련 과정은 제하고,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 생리학과 노스웨스턴 소아치과 석사과정 중 하나를 정하기로 했다. 기초과목 중에서는 막연하나마 생리학이 마음에 들어 주임교수와 인터뷰 자리에서 수업료 면제와 연구실 유급 조교를 허락받았다. 미국대학 출신으로 기초학 지망은 그때나 이제나 드물어 외국 졸업생에게도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당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도하 일간지에 실렸기에 소위 ‘금의환향(錦衣還鄉)’을 하나? 아니면 노스웨스턴 보철과 교수를 역임한 정보라 대선배의 추천서를 받아 입학한 등록금이 쿼터에 420\$인 소아치과를 택하나?’

졸업 후 교수지망으로 방사선과를 택할 때 의사는 임상이 우선이라던 아버님 의견과 구강외과 이춘근 주임교수로부터 논문 제목을 받으면서 방사선 전공보다 구강외과를 간접적으로 권한 것이 작용했나? 고심 끝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소아치과를 교정과 내용이 다소 포함한다며 선택했다. 미국대학 출신 2명과 인도 출신 포함 6명이 입학했는데 불란서에서 교수를 하던 ‘산토로’와 나 둘만 석사과정을 마쳤다. 논문 마련은 ‘재료학교실’에서 했는데 ‘스키너’ 교수 후임인 주임교수가 여름학기에 시작한 논문 학점을 마지막에 3학기 모두 A를 주며 재료학 전공 석박사과정 입학권을 권했다. 석사 논문 발표차 참석한 마이애미 IADR 대회에서 만난 미시간대 한성수 교수와 진로를 의논하기도 했으나 수학, 물리에 자신이 없어 시카고대학 부속 Zoller Memorial 치과에서 소아치과를 맡아 2년간 순환 인턴을 지도하며 근무했다.

미국 생활 5년 만에 연세대 소아치과 담당 교수를 하며 진로의 종점이 소아치과가 되었다. 참 희한(稀罕)하게 엮어진 진로 결정 과정이다.

구겐하임 치과병원 진료시절

뉴욕으로 가는 외국 초행길은 1963년 8월, 서울 시내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김포공항행 버스가 출발하는 ‘반도호텔’에서 반 친구와 김동순 학장의 전송을 받으며 시작했다. 여권에는 환전 상한금액인 ‘US \$100’ 도장이 찍혀있었고 공항에서는 가족의 배웅은 물론 어머니 출석 교회 담임목사 축도까지 받았으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마부일, 홍사일 두 선배와 ‘팬암’기로 동경 1박, 샌프란시스코, 덴버를 거쳐 뉴욕에 도착, 공중전화로 어렵게 확인한 시내 YMCA 호텔에서 첫 밤을 지냈다. 박한영 이정식 선배가 얻어준 병원 근처 아파트 방 하나에 화물선으로 한국을 떠난 김종성 선배와 함께 침대 넷에 식탁 하나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구겐하임 치과병원(The Murry and Leonie Guggenheim Dental Clinic)은 1931년부터 뉴욕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교 버스로 정기적으로 불러 무료진료를 시작한 자선기관이다. 1967년에 폐쇄한 이후로는 1954년에 시작한 뉴욕 치과대학 산하 ‘치의학 연구소’를 지원했다. 마이어 구겐하임(Meyer Guggenheim, 1828~1905)은 스위스에서 태어나 1847년 미국으로 이주, 큰 부자가 되어 ‘광산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자녀 10명 중 머리 구겐하임(1858~1939)은 가업을 계승해 자선단체와 치과병원을 만들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은 솔로몬 R. 구겐하임(1861~1949)이 설립했다.

30여 나라에서 모인 70여 명은 매일 첫 시간 다양한 강의를 들었다. 처음 여러 날엔 치아모형에서 아말감 충전 실습을 하기도 했다. 4, 5, 6층에서는 종일 우식 치료만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 ‘슈퍼바이저’가 “지오이”를 외치면 임시충전으로 끝내기도 했다. 3층에는 미국 체류 경험자만을 배치했다. 정기검진으로 모두에게 ‘바이트 워’ 2장을 촬영하며, 발치, 치수 치료, 치간 유지장치 등을 시술하여 ‘특진 층’이라 불렀다. 6층 근무를 시작한 후 한 달여 지난 어느 날 부원장이 불러 긴장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 3층 근무자와 교체가 됐다. 어찌 보면 승진인데 수십 명 중에서

뽀뽀 이유는 진료경험이 거의 없어 그저 열심히 모습을 매우 성실함으로 본 것 같았다. 3층 근무는 종일 ‘바이트 워’ 촬영을 하기도 하며 다양한 진료를 해 빈 그릇에 많이 담듯이 좋은 경험이었다.

월급 238\$ 중 100\$로 집세와 자취 식대를 감당했으며, 쌀 상자에 적힌 안내문대로 물 두 배에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는 밥 짓기도 했다. 하루는 시내 이발료가 싸다고 찾았다가 이발 의자를 거울 반대로 돌려놓고 하는 바람에 하도 흥해 보여 바로 다니던 곳을 다시 찾기도 했다. 퇴근하고 세 선배와 종이에 그린 화투장으로 ‘셋다’를 하면 무조건 서는 선배의 돈은 막내인 내 몫이었다. 주말에 몇 불짜리로 사게된 물건을 종이 화투 만든 선배에게 보여주며 치기(稚氣)를 즐겼다.

뉴욕에 도착한 8월 15일, 마중하기로 한 이와 어긋난 사연은 광복절 축하 한인회 댄스파티 행사였다. 병원 이웃 여성 전용 건물에서 열리는 댄스파티에 초청한다는 내용이 게시판에 붙기도 해서 춤이 능숙한 선배에게 교습을 받으려고 자그마한 전축과 춤곡 도우넛 판 몇 개를 마련했다. 춤 선생 선배는 댄스파티에서 만난 백인 초등학교 교사와 얼마 후 결혼해 미시간 앤아버에 자리를 잡았다. 몇 해가 지난 후 시카고에서 앤아버로 선배를 찾아가서 하루 묵기도 했다.

주말엔 자유의 여신상 포함 보트 관광, ‘라디오 시티 뮤직홀’ 가기와 학생 표로 오페라를 꼭대기 층에서 몇 차례 찾았는데 감상보다 관광 차원이었다. 오페라 팸플릿은 자랑삼아 최상목 선배에게 보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명절에 미국가정에서 초대하는 행사에 참여한 기억도 새롭다. 이때 함께한 선배와 풀밭에서 나눈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어찌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먼 곳에서 서툰 영어도 해야 한다며 한탄하기에 난 선택을 받아 미국까지 와 봉급 받고 임상 경험도 하니 백인이 부럽지 않다고 하니 바로 위선자라고 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세상만사를 긍정적으로 보며 이제까지 지낸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틈만 나면 임기 후 진로를 위한 지원서를 쓰고 다른 층에 있는 영어가 한 수 위인 인도 동료에게 검토를 받았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석사 과정

대학원 시작 때까지 두 달여 학비를 마련할 요량(料量)으로 직업안내소를 찾아 얻은 일이 웨이터보조(busboy)였다. “경험이 있냐고 물으면 ‘네’라고 답하라”는 선임자의 안내를 따랐다. 1964년 4월에 시작한 뉴욕 세계박람회장 불란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웨이터는 봉사료 일부를 일과 후 보조에게 준다. 손님이 적어서인지 한 달 남짓 후 해고(fire)를 당하고는 수녀가 운영하는 양로원에서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일을 했다. 양로원은 봉사료 없이 주급만 받지만 일이 단순하고 식사 해결은 후식까지 마음껏 가능했다.

뉴욕 1년 살이 후 큰 트렁크 하나를 끌고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16시간이나 걸려서 시카고에 도착했다. 두 시간 마다 바뀌는 노년의 버스운전 기사가 인상적이었다. 트렁크를 보관함에 넣고 난 후 학교기숙사는 비용 부담으로 포기했으니 거처 마련에 나섰다. 학교 근처인 한인교회를 찾았으나 은퇴를 앞둔 목사님 도움은 난망(難望)이라 근처 ‘빈방’ 사인이 붙은 한 호텔에 월 \$100 방에서 시카고 첫날을 시작했다. 가난한 독신 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취사가 가능하고 넓어서 이름만 호텔이다.

대학원은 평균 B 학점이 안되면 flunk라니 쿼터에 \$420인 등록금이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됐는가? 첫 9월 학기 3달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다. 모든 시험은 주관식 문제로 자그마한 공책이 답안지다. 영어가 짧으니 예상문제에 준비한 답을 줄줄이 암기하느라 학교를 오가고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시험 준비만 열심히 했

다. 궁금하기만 하던 첫 학기 성적은 임상 진료과목만 A, 나머지는 B였는데 주임교수 왈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묻는 것이니 답을 길게 쓰라”고 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뻔히 아는 내용도 길게 쓰니 A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제는 Sicher 교수의 전두골, 측두골, 접형골을 파리핀 왁스로 빚는 것이었다. 첫 학기를 통과하고는 상황과악이 됐는지 공부에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두 번째 쿼터 등록을 마치고 나니 수중에 몇 푼뿐이라 짧은 겨울 방학엔 명색이 서울 석사학위 소유인 치과의사가 시내 회원만 드나드는 음식점에서 ‘버스보이’를 했다. 식사는 스테이크도 가능했다. 담배 심부름은 식당 안에 있는 자판기에 준비한 동전 35전을 넣고 50전 아니면 1\$을 받았다. 마침 한인 교회 신임 목사가 3층 교회 건물 관리(Janitor) 일을 하겠냐고 물어와 월 100\$ 방도 생면 부지 룸메이트와 나누어 쓰던 호텔에서 나왔다. 임무는 1층 예배당 청소와 3층 한국인 독신 남녀가 머무는 방 몇 개 침대보 갈기와 공중화장실 청소였다. 주급 \$16에 3층 구석 방 하나로 숙식을 해결했다. 여러모로 힘이 들었는지 한때 60에서 50킬로까지 체중이 줄기도 했다.

환자 진료과목은 대학원생 진료실에서 감독 없는 자율 시행이라 느슨하게 대처하고 수강과목 학점 취득과 역시 논문 마련이 가장 중요했다. 전반부를 마친 여름 쿼터부터 시작인 논문은 주임교수가 권하는 미생물학과 재료학 중 Skinner교수 후임인 Greener교수 지도로 재료학을 선택했다. 논문 주제인 ‘충전물과 치질(齒質) 사이 미세구조 확인’을 공과대학 재료학 교실 Meshii교수 지도로 전자현미경실에서 시작했다. 여러 날 실험을 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어 실험실 출근 대신 학비라도 마련차 치과보험을 시작하는 보험회사에 시간제 심사일을 했다. 하여 행방불명 상황으로 알려져 소아치과 주임교수의 추궁(追窮)을 받았다. 이때 교환교수로 전자현미경실로 출근하던 호주 멜본 대학 치대 보철과 Grant교수의 중재로 논문 주제를 변경하고는 실험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마지막 학기 논문 과목 학점까지 모두 A를 받았고 훗날 <호주 치과 저널>에 실리기도 했다.

2년 차 11월 어느 날 심리학 담당 여교수 Jenks가 갑자기 강의실을 옮겨 가니 내 결혼 소식이 퍼졌나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당시 시카고에 하나뿐인 한인교회는 동포들 만남의 장을 겸했다. 논문 진행도 순조로우면서 한 눈팔다가 한 결혼으로 아이 셋 낳고 59년째 잘 지내고 있다. 정보라 박사께서 주신 축하선물 새하얀 담요가 눈에 선하다. 청소하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은 기차로 ‘밀워키’에서 하루를 보냈다. 1966년 3월 44차 IADR 대회에 석사 논문 발표로 왕복항공권을 교실에서 부담하기에 아내와 진짜 신혼여행은 ‘마이아미’에서 했다. 발표 리허설을 하면서 질문에 답이 어려우면 얼른 교수에게 눈짓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질문 둘을 잘 넘겼다. 운칠기삼(運七技三) 운이 7할, 재주(노력)가 3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내겐 ‘운구기일(運九技一)’이 석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소아치과 6명 입학에 2명만 과정을 마쳤으니까.

시카고대학 WALTER G. ZOLLER MEMORIAL DENTAL CLINIC 근무

‘ZOLLER 기념 치과’는 1936년 Walter G. Zoller가 일반 의학의 발전에 비해 뒤쳐진 치과 영역에 진료시설과 실험 연구실 마련을 위해 시카고대학교에 3백만 불이 넘는 기부로 시작했다. 한국의 오래전 세브란스 치과와 비슷한 양태에 기초 영역이 더해져 구강외과, 치과 방사선과, 치과 보존과, 악안면 보철과, 교정과에 인류학 연구실이 있었고 원장은 미생물학 전공이며 1919년에 시작한 Journal of Dental Research 편집장인 Frank J. Orland(D.D.S., Ph.D.)였다. 매년 1년 과정 인턴 5명을 교육하고 있었다.

의사, 치과의사는 5년, 간호사는 2년 기한인 소위 ‘Exchange Visitor Visa’ 신분으로 소아치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재료학 석박사과정 기회를 마다하고 2년 남은 기간엔 임상 경험을 하려고 위 인턴 과정을 지원했다. 이때 시카

고대학에 마침 ‘Wylers Children’s Hospital’이 개원하며 S.S. White 치료 의자 넷으로 소아치과 진료를 시작하게 됐다. 하여 순환 인턴 경험 대신 유급조교 직위로 소아치과 진료실에서 인턴들을 지도하게 됐다. 미국은 대학교 수 직급이 대개 조교수부터 시작하는데 소아치과 석사라도 미국 치과의사 면허도 없어 시카고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연봉 \$6,500인 조교지만 즐겁게 받아드렸다. 다음 해 \$7,000이 됐다.

1966년 6월 11일 졸업식을 마치고 7월부터 일하게 된 시카고대학 부속 치과병원까지 출근용으로 미국 생활 3년 만에 1년 된 중고차 Opel Kadett(한국 지엠 르망) 소형차를 마련했다. 운전대를 잡아본 일이 없어 친구가 아파트 앞까지 옮겨주고 일주일 공원에서 연습 후 출근 전날 운전 시험을 치렀다. 시험관과 마주 앉아 ‘쌍안 현미경’ 형태의 시력검사에 좌우 각기 다른 내용임을 모른 채 반만 읽어 외눈박이가 드러나 ‘백미러’ 사용 시 주의하라는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

2년간 시험이나 논문 걱정 없이 미국 치대 출신 백인, 중국계, 이란계와 브라질, 인도, 필리핀 출신 순환 인턴과 많지 않은 수의 진료를 하면서 평안한 시간을 보냈다. 전신마취하에 소위 ‘Rampant 우식’ 환아를 과장과 손을 바꾸면서 진료한 몇 사례도 있었고 악안면 외상이나 종양 제거 후에 시행하는 의안, 귀 부분을 포함하는 보철 전문 기공사가 하는 작업을 가까이서 보며 한국에서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인류학 연구실(Dr. Dalberg)과 일본 의과치과대학 교정학교실은 자매 관계로 매년 방문 교수가 차례로 다녀갔는데 한번은 새로운 브라켓과 접착제 개발로 유명한 ‘미우라’ 교수의 특강을 도운 기억도 떠오른다. 인도 출신 인턴은 1996년 인도 뭄바이 APDC(아태 치과 연맹 총회)에서 우연히 해후(邂逅)했다. 몇 차례 돌아온 세미나 발표는 지금은 혀가 도로 굳었으나 당시엔 그래도 영어가 좀 됐다. 훗날 희소가치 덕으로 치협 국제이사 3차례 국제담당 부회장, 아태연맹 부회장과 재무이사, FDI 유치위원장으로 이어졌다.

1967년 9월 시카고대학 병원에 마취과 수련 중인 따님을 만나러 서울에서 온 김규택 대선배와 마침 55차 프랑스 파리 FDI 총회 참석 후 세계 일주 중 시카고에 도착한 김귀선, 문영환 세 분 선배를 아파트로 모셔 저녁을 대접했다. 이때 김규택 박사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 귀국해 교수 취업이 안되면 박사과정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5년 체류 만기 비자를 소지한 의사나 치과의사 대부분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 머무는 분위기와 달리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호하는 아내와 뜻을 같이했다.

아버님보다 위 연배인 김규택 박사께서 귀국 후 바로 보낸 편지엔 교수임용 가능성과 도움 말씀이 있었다. 1967년에 설립한 경희 치대에 부속병원이 다음 해 개원 예정이며 마침 연세대에 치대 설립(1968년)이 알려져 두 곳을 알아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수 차례 편지로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고 드디어 이듬해 지헌택 연세의대 치과 과장께서 1968년 5월 18일 자 항공보합편지에 교수임용이 결정됐으니 언제든지 귀국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규택 당신께서는 훗날 경희치대 초대 학장이란 언급이 전혀 없이 연세치대 취업을 알선한 평생 은인이다.

생후 두어 달 된 딸아이를 처형대에 맡기고 도중에 엔진 과열로 멎기도 하는 차로 나이가가라폭포를 다녀온 젊은 날을 포함해 참으로 많은 도움과 행운이 함께한 ‘ZOLLER 치과병원’ 근무 2년이였다.

연세대학교 전임강사 임용

연세대 교수 임명장을 받고 미국 생활 5년 만에 나선 귀국길은 소위 금의환향은 몰라도, 돌이 겨우 지난 딸아리와 얼마 후 곧 태어날 둘째를 품은 아내와 좀 힘들기는 했어도 희망 가득했던 기억이 새롭다.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동경을 거쳐 김포로 돌아왔다.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한번 타보고 싶던 포드 ‘무스탕’을 빌려 국립

공원을 돌아보다 연료 부족으로 한적한 곳에서 멈추는 바람에 지나가던 트럭의 도움을 받은 일, 공항에서 받은 카지노 광고용 동전(\$5불?)이 생각난다. 언덕 많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필 ‘폭스바겐’을 빌렸고, ZOLLER 병원 중국계 인턴 Dr. Sheck을 만나기도 했다. 호놀룰루에서는 ‘코로나’ 자동차로 섬 일주를 했다. 동경에서는 영어로 택시기사와 소통이 어려웠기에 동경의과치과대 교정과에 머물던 서정훈 선배 도움으로 아버님 선물용인 낚시대와 슬라이드 제작용 카메라와 지지대를 마련했다. 귀국 이삿짐엔 냉장고, 에어컨, 재산 목록 1호 오디오시스템, 아기침대, 골프채 하프 세트, 빔 프로젝터, 록키마운틴 용접기가 들어 있었다.

1968년 10월 1일 자로 출근한 세브란스병원 치과에는 지현택 과장, 구강외과 윤중호, 보철과 김정수, 교정과 김찬숙 교수와 수련의로 전영남, 이배진, 이완철, 김세동, 차혜영, 김남일, 이주민 후배가 있었다. 출근 초 지현택 주임 교수 호칭을 “닥터 지”라고 했다가 김찬숙 선배가 “과장님 이라고 해야지”라며 놀란 일은 미국물 5년에 눈치 없이 건방졌던 한 대목이다. 하긴 미국 대학에서 학장에게 이름을 부르는 학생들을 봤고, 알바 하던 회사에서도 머리 허연 사장에게 이름을 불렀다.

석사학위가 둘이라도 1969년 3월 박사과정에 입학 1972년 2월 치과의사 연세대 정규과정 의학박사 1호가 됐다. 당시엔 소위 ‘연구생 과정’으로 석사학위 없이 박사과정 지원이 가능했는데, 1969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지원한 의사와 치과의사는 합격, 연구생 지원자인 개원 의사 여러 명은 모두 낙방했다. 사연은 시험 며칠 전 약사시험 출제가 사회문제로 비화, 의학독일어 특강 내에서 출제하던 관행이 갑작스레 모두 생소(生疏)한 문제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1969년 3월 치과대 초대학장으로 박용덕 교수가 취임하고 치의예과생이 치과대학으로 진급하며 필자는 의과대학에서 치과대학 소속이 됐다. 1970년 이원용이 소아치과 제1회 인턴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가 주업무였다. 이후 이영송(1972), 신영순, 허노정(1973), 강순영, 손흥규(1974), 성광숙(1976) 수련의 중 석사학위과정을 밟은 이원용과 허노정을 지도했다.

1971년 3월 드디어 2학년 1학기를 맞이 한 1회 입학생 18명에게 소아치과 강의를 시작했다.

1972년 조교수, 1975년 12월 부교수, 1976년 2월 말로 전임 교수를 마칠 때까지의 기억 몇 토막을 돌아본다.

1971년 김귀선 학장 취임 후 학장실 벽엔 과별 수입을 막대기로 표시, 소아치과도 참으로 열심히 진료에 임했다. 그래야 봉급도 챙기고 1971년 착공 1973년에 준공한 치대 단독 건물 건축비 갚기에 일조할 수 있었다. 1973년 소아치과 교수 증원으로 소진문이 조교수로 발령이 났으나 ‘유신 사태’를 빌미로 일리노이대에 머물고 귀국하지 않았다. 즐거운 추억으로 1973년 1회 생 졸업 기념 제주도 수학여행에 손흥규 4학년 총대 외 15명과 기차, 항공기, 여객선 모두를 경험하며 인솔 교수로 아내도 함께했다. 1974년 김귀선 학장 추천으로 치협(김동순 회장) 국제 이사로 선임됐고, 1975년 차문호, 김진태 교수 다음으로 소아치과 학회장이 됐다.

짧은 전임 교수의 아쉬움을 그런대로 달래 주는 사연으로는 매해 스승의 날이면 2회 졸업생 계영청이 보낸 카드를 받았고 여식 결혼 주례까지 한 일이다. 하나 더, 강의 중에 한 기억이 없는 ‘Be a Gentleman’이란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 훗날 학장이 된 3회 졸업생이 있다.

개원의로 나서면서 1976년 3월 1일 자로 소아치과학 교실 외래부교수 발령을 받고 이후 20 여 년동안 소아치과 한 챕터를 강의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경험으로 국민건강법 강의도 여러 해 했다. 평생 하려던 교수의 아쉬움을 달래면서...

박사학위 과정과 기생충학 교실

미국에서 귀국해 교수 취업을 시도한 후 안 되면 박사과정을 밟겠다는 생각대로 전임강사 신분임에도 1969년 1학기 입학 준비로 이공대 화학 담당 이길상 교수의 의학 독일어 특강을 신청했다. 석사과정 없이 시험을 치른 소위 연구생 과정 개원 의사들이 모두가 낙방하는 가운데 운 좋게 합격했다. 독일어 해석 세 문제 중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이야기는 석사 논문을 전자현미경으로 마련했으니 쉬웠고, ‘직류와 교류 차이’는 특강 진도 범위 뒤를 점심 시간에 사전을 펴놓고 공부하던 이주민 후배에게 시험 전날 해석을 물어 답을 잘 썼다. 도무지 모를 ‘문학 내용’은 ‘그리고’ ‘또는’ 등만 해석하고 독일어를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독일어를 썩 잘하는 줄로 안다.

치수 질환에 대한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일차 병리학’ 교실을 찾았다. 논문에 필요한 실험용 동물과 기구 견적서를 받고는 아무래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전임강사 봉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단 생각으로 포기를 했다. 하여 구강 내에 서식하는 *Trichomonas tenax*(구강편모충)와 *Entamoeba gingivalis*(치은아메바) 두 원충이 흑여 잇몸병이나 치아우식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기생충학 교실에서 논문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생충학 교실’은 1958년 미생물학 교실에서 분리 독립한 후 2007년 ‘환경의생물학 교실’로 개칭, 이후 16년 만인 2022년에 현재 명칭인 ‘열대의학 교실’이 됐다.

‘치은아메바’의 미세구조를 확인하려 배양(培養)에 나섰으나 필요한 양의 배양이 쉽지 않아 여러 날 수많은 시도를 했다. 논문 제출 마감 몇 날을 앞두고, 드디어 전자현미경실에서 원하는 구조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제 때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세브란스 외래 진료 건물과 대학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만난 소진탁 주임교수(기생충학 교실)께 바로 알리자 매우 반갑게 다행이라며 축하해주던 기억이 새롭다.

과정 마지막 종합시험으로 병리학, 해부학, 치의학 전공과목을 치렀다. 조금이라도 공부하게 범위를 좁혀 주기를 부탁드린 병리학 교실에선 반응이 없었으나, 해부학 교실 최금덕 교수는 도서관에서 시험공부 중 전화로 에둘러가며 문제를 거의 다 알려줘 만점 답을 쓴 생각이 난다.

기생충학 교실에서 직접적인 논문 지도를 한 일본 의대 출신 조기목 교수와 전자현미경실 등영건 조교, 실험실 장재경 기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당시 연구생 학위과정을 밟는 개원의들은 실험비용 이외에도 지출이 많았던 시절인데 가벼운 점심 몇 차례로 논문을 완성할 수 있던 기생충학 교실 분위기는 오늘날에도 감사한 마음이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사연 때문인가 수련의로 석사과정을 마친 후배로 차혜영, 김능원, 이진수도 이어서 기생충학 교실에서 박사 논문을 마련했다. 치의학박사 제도 시작 이전이라 ‘의학과 치의학 전공’으로 학위 명칭은 ‘의학박사’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1972년 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이라 풀이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라고 할만했다. 새 학기에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했고 연년생 딸 둘인데 4년만에 아들이 태어나서였다. 장남인데 딸 둘에 아이는 그만이냐던 어머니가 참 좋아했고 아내의 기가 좀 살아났다.

기생충학 교실 동문회인 ‘세기회(世寄會)’에 치과의사로는 유일하게 7~9대 부회장, 10~11대 회장을 맡았고,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 외래교수(1988~2006)로 임명되기도 하면서 교실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표시하고 싶었으나 마음뿐이었다. 농담처럼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모두 교실에 바치겠다면서 송년회를 앞둔 연말에 몇 차례 시도했으나 3등이 최고였다.

가장 존경하며 고마운 치과의사로는 김규택 경희치대 초대 학장이며, 의사로는 소진탁 교수다. 은퇴 후 고향 익산에 계실 때 차혜영 선생과 함께 찾아뵙기로 한 날 바로 간밤에 급환으로 자제분이 의료원장인 아주대병원에 입

원, 익산역에서 발길을 돌려 병원으로 찾은 일도 있었다. 2017년 12월 7일 서거 1주기 기념 심포지엄과 ‘소진탁 교수 흉판 기념식’을 했다.

소진탁 교수님 별세로 참석한 장례예식에서 전에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음에 쏙 들게 집전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에 대한 말씀대로 나도 비슷하게 따르면서 한평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시로 다짐해야 하는데 잘 안된다.

소아치과 학회 참여

구겐하임 아동병원, 노스웨스턴 소아치과 석사과정과 시카고대학 줄리 기념병원 소아치과에서의 5년 경험으로 연세대 교수가 되면서 1959년에 발족한 ‘대한소아치과학회’에 참여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참석한 학회 모임은 그 장소가 서울치대 소아치과 의국이었다. 필자 외 모두가 당시 하나뿐인 서울치대에서 수련을 받았다. 1969년 총회에서 초대부터 이어온 차문호교수가 회장, 필자가 부회장이 됐다. 여러 해 선배인 김진태교수를 건너뛴 것은 전공 의(황의강)가 필자를 추천할 때 즉시 사양을 하지 않은 무분별함과 건방진 탓이었다. 이후 총회에서 김진태교수가 학회장, 필자는 계속 부회장을 했다. 1975년에 학회장이 되고 학회 행사를 처음으로 학교 건물 밖인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했다. 대학 동기 둘이 경희대(백동준)와 연세대(이종갑) 교수라 얼른 바톤을 넘겼는데 이후 이들이 2년과 4년간 회장직을 맡았다.

1982년 호주 멜보른에서 열린 세계소아치과학회 총회에 차문호교수 내외, 김진태교수를 비롯해 조사현선배, 이종갑, 백동준, 이금호와 참석했다. 귀국 길에 들린 ‘피지’에서 만난 태풍은 외국 나들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다. 피지 동부 관광을 마친 후 날씨 급변으로 공항행 대신 버스로 엄청난 맞바람을 받는 앞창을 조수가 두 팔로 버티면서 숙소 호텔에 도착, 식당에서 식사 시작하려는 순간 심한 외풍에 천정에서 산데리아가 떨어지며 바로 정전에 강한 비바람이 들어쳤다. 어둠 속에서 “passport & money only”라 소리치는 직원 안내로 옆 건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간 새벽까지 버텼다. 침대 아래 발목 넘어 고인 물을 퍼내고 온통 나뭇잎과 가지로 덮인 수영장을 보며 아침엔 콜라로 양치, 식사는 제한된 양만 받으며 공항 파괴로 3일 만에야 피지를 탈출했다.

1984년 차문호, 김진태 교수와 ‘일본 소아치과학회’에 참석했는데 대회개최를 대학이 차례로 맡아 외부 도움 없이 치르며 학술 발표내용이 다양하며 대학 사이에 거침없이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도쿄 디즈니랜드 공원 ‘우주선 열차’ 옆자리에서 머리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심히 걱정한 차교수님은 멀쩡하고 난 내려서 어지러워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린 기억이 생생하다. 동경의과치과대학 미우라 병원장 초대 저녁엔 일본말 못하는 필자를 위해 동석한 영어가 훌륭한 젊은 여인은 알고 보니 런던대학엘 유학한 ‘알바’였다. 샤미센을 뜯던 게 이사와 기념사진도 챙기는 호사를 누렸다.

2002년 총회에서 ‘보령메디앙스 공로상’을 받았는데 학회장을 지낸 차례대로 차문호, 김진태 두 분 다음이었다. 상패만 받고 상금은 학회 후원금으로 반납하는 관행 대신에 연세대 ‘양정강 장학금’ 기금에 보탬다. 이후 이력서 상 별란의 빈칸 하나를 채울 수 있었다.

학회가 주관한 세계대회로는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은 2013년 제24차 세계소아치과학회 서울대회에서 건배사를 한 일은 비록 준비한 말 한 줄을 놓쳤는데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서양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머는 아무래도 웃길 자신이 없어 생략하고 1969년 IAD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istry for Children) 창립을 앞두고 불란서 치과의사로부터 받은 초청 편지에 불참이라 답신한 이야기와 훗날 호주 멜보른 대회에 20명에 가까운 한

국대표단이 참석한 이야기를 했다. 1991년 조직 명칭을 IAPD(International Association Pediatric Dentistry)로 바꿨다.

한목소리로 의견 수렴을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양의사들임에도 2007년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바꿨는데, 10여 년 전 소아치과 명칭을 ‘소아청소년치과’로 변경을 시도하여 힘겹게 치의학회를 통과 후 마지막 단계인 치협 이사회 안건 심의에서 몇몇 다른 과의 반대로 보류 처분 후 폐기 된 일은 못내 아쉬운 일이다.

학회가 소위 ‘교수협의회’와는 다르게 발전하기를 원한 시절을 지나, 수련을 마치고 개원에 나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학술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후학들이 세계소아치과학회도 성황리에 개최하고, 이웃 일본이나 최근엔 대만과도 가까이 지내며 한국 위상을 높이고 있어 매우 흐뭇하다.

학회에 이렇다 할 보탬도 없이 세월 따라 최고 연장자가 되어 어른 대접을 받는 이즈음은 많이 미안하면서도 기분이 참 좋다.

치과의사협회 임원 하기

1974년 어느 날 학장실 호출(呼出)로 만난 이는 김동순 치협회장 당선자였는데, 김귀선 학장과 ‘국제이사’ 선임 을 의논하려는 방문이었다. 하여 서른셋 나이에 국제이사가 됐다. 1982년 김동순 집행부에서 또 국제이사, 1986년 신민철 집행부에서 세 번째 국제이사를 했다. 1988년 이종수 집행부 부회장으로 당선, 1989년 제14차 아태연맹(Asian Pacific Dental Federation)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때 신임 지현택 아태연맹 회장이 15차 뉴질랜드 총회에 부회장으로 나서라며 바로 선거운동(?)을 시도했으며, 1992년 APDC(Asian Pacific Dental Congress) 오uckland 총회에 부회장을 하겠다고 자비로 참석하여, 후보 5명에 4명 선출 시 선임 부회장들을 제치고 최다득표를 했다. 1994년 부회장 연임, 1996년엔 ‘재무(Treasurer)’가 되면서 FDI(World Dental Federation) 총회 참석에도 항공료 배려를 받았다. 아태연맹에서는 차기 대회 개최국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하여, 이어서 회장이 된다.

1983년 동경 FDI 총회에 한국에서 80여 명이 대거 참석했는데, 국제이사로 맡은 임무가 1986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13차 아태회의의 김인철 준비위원장의 도중하차로 이학수 신임 준비위원장과 함께 대회를 연기 하는 수습 작업이었다. 이때부터 아태연맹에서 재무이사까지로 이어져 2000년에 ‘List of Honour’ 공훈(功勳)회원 패를 받았다. 이윽고, 이영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직치과의사회 이사와 감사, 서울치과의사회 이사, 서대문구 치과의사회 고문, 2008년엔 ‘2013년 FDI 서울총회’ 유치위원장도 했다.

1975년 6월 미국 위스콘신 치과의사협회 임원 부부 일행이 한국 관광 때 치과대학 방문을 위해 워커힐에 머무는 일행을 서울치대로 안내했다. 다음 날 그들의 저녁 초대에 서영규 고문, 김동순 회장을 워커힐로 모신 것까지는 좋았다. 이때 한국에 도착 후 출발까지 책임진 여행사의 존재를 모른 필자는 사장으로부터 당신 고객을 함부로 가로챘다고 싫은 소리를 들었다. 여행사에 알렸으면 버스 대절 비용도 아끼는데 참 순진하고 어수룩한 국제이사였다. 선물로 받은 위스콘신 치협 총무 ‘H. P. Jacobi’가 지은 ‘A Dentist’s Flight Manual To Success’는 이후 학생 강의(맥도날드 소치 교과서, Practice Management)에도 참고했으며 70년대가 미국 치과계에서 경영에 관심을 보이는 초창기로 보였다.

국제담당 임원으로 잘한 것이 있냐고 물으면 1989년 4월 14차 아태치과회의(APDC, Asian Pacific Dental Congress) 서울총회를 정동균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 사무총장으로 자타가 인정한 잘 치른 국제 행사에 나름대

로 열심을 쏟은 일이다. 전임 집행부로부터 1차 안내문 발송 및 회의 대행사 선정에 이어, 개최 10여 개월 앞두고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 진료와 대회준비 양립이 너무 힘들어 소위 ‘페이닥터’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5일간에 걸친 대회에는 5,000여 명의 국내외 치과의사가 참석, 14개국 130여 개 업체에서 240개 부스를 전시, 학술강연에 해외 초청 연자로 19명이 참여했다. 개회식에 국무총리 참석, 개 폐회식에 세계 초유(?)·치과의사회 합창단 공연, 환영연에 김덕수 사물놀이패 출연, 맥주와 손잡이 컵은 기념품으로 하는 등 모든 행사 내용은 ‘결과보고서’ 191쪽으로 마무리했다.

아태연맹 ‘재무’ 전임자인 말레이시아 ‘라트나니산 (A Ratnanesan)’은 훗날 ‘윤흥열’ 회장 바로 앞서 FDI 회장을 했다. 업무 인수 후 우람한 체격에 언변이 좋은 이 친구에게 ‘필리핀’ 연회비 입금 기록이 없어 확인 차 물으니 화부터 내, 서툰 영어로 제대로 다투지도 못했는데, 다음날 귀국하는 아침에 눈을 뜨니 호텔 문지방 밑 봉투에 필리핀 연회비와 사과 편지가 있었다. 그로부터 아태회원국 연회비 인상을 시도하다 그만둔 사안을 온갖 저항(일본, 호주, 홍콩, 뉴질랜드)을 무릅쓰고 회비인상을 성사한 일은 창의적인 업무는 몰라도 주어진 일은 미련하게 추진한 결과였다. 아태연맹에서 부회장은 서열로는 회장, 차기 회장 다음이나 소위 ‘Executive council’이라는 회장, 차기 회장, 사무총장과 재무, 때로는 편집장(Editor)은 대회에 참석 시 항공료까지 지원하며, 다른 임원과 부회장은 숙박과 일당 (100\$)만 배려를 받았다.

그동안 FDI와 APDF 총회에 모두 40차례 참석했다. 외국 나들이에 나서면 평소에 쓸 일이 없던 영어는 혀가 굳어 어설피다가 돌아 올쯤엔 좀 풀려있었다.

협회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참여했으나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다. 오래전 동기생 친구가 구 회장을 맡으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물어, ‘누군가는 해야 하니, 주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정강 치과 개원

평생 교수를 하려더니 어쩌다 7년여 만에 전임 교수를 그만두고 개원의로 나섰나? 1971년 김귀선 연세치대학장이 취임 후 학장 승용차로 몇몇 교수의 출근을 지원했다. 얼마간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지 갑자기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여 아쉬웠는데, 마침 이민 가는 처남의 10년은 족히 된 고물 일제 ‘코로나’를 거금(?) 30만에 양도해 자가용족(自家用族)이 됐다.

차를 몰기 시작한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73년 10월, 소위 석유(유류)파동으로 2~3개월 만에 휘발유 가격이 무려 4배가 폭등했으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하여 아이 셋을 키우면서 교수 봉급으로 계속 차를 굴려야 할지? 운전 몇 달 만에 차를 처분하기도 그렇고. 오기(傲氣)로 시작한 자가운전으로 난감한 처지가 됐다.

당시는 교수들이 퇴근 후 소위 moonlighting(야간의 부업)을 해도 묵인하던 시절이라, 동기생 치과를 찾았으나 모두에게 퇴짜를 맞았는데, 치과의사 불링팀을 함께하던 선배가 흔쾌히 허락했다. 간호조무사 봉급만 감당하고 당신이 6시 퇴근 후엔 마음대로 진료하라 했다. 전임교수로 퇴근 후 2~4시간 진료는 심신으로 많이 부담되는 일이었으나 수입은 교수 봉급보다 많았다.

1975년 어느 날, 정부에서 다음 해 신학기부터는 의치대 음대 미대 등 전임교수들이 퇴근 후 학교 밖에서 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여 야간 진료를 포기하고 교수직을 계속할 것인가 고민했다.

한껏 올라간 생활비 수준을 떠올리니, 고민이 개원 쪽으로 기울면서, 교수는 그 사명이 학생 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라는 데 하나같이 부실하다는 핑계를 찾게됐다.

즉 강의는 한 학기 주 1회일뿐 나머지는 오로지 환자 진료에 학장실에 과별 수입 막대기 표가 있었고, 연구는 당시 기초학 교수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 임상교수 10여 명은 외국 학회 참석이나 연수 기회 없이 연구다운 연구도 없으며, 수련의 지도 차원에서는 진료 경험이 많은 것 외에는 같은 저널을 함께 보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의사는 첫째가 임상 진료라는 말을 들으면서 혹여 개원을 한다면 시내 한복판 시청 앞에 치과 건물에서 할 것이라 말한 일도 떠올랐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북베트남이 무력 통일을 이루던 시절 김귀선 학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김용관 서울치대 교수가 3대 학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하여 새로 부임하는 학장께 사의를 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김효규 의료원장께 진행 중인 학기까지 마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

치과의사로 교수가 첫째 선택이면서도 개원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할 것이라던 생각과 달리 연희동 소아과의원 3층에 자리를 잡고 양정강치과의원을 차렸다. 요즘 치과 의원 이름은 참으로 다양하나, 예전엔 ‘김치과’, ‘이치과’ 처럼 성씨만 앞에 붙이거나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많이 했다.

소위 스펙(spec), 조건이 좋아서인지 시작부터 환자가 몰렸다. 그때만 해도 전문영역에 대한 인식이 덜해, 점차 성인 진료가 늘면서 돌팔이 GP(general practitioner)가 됐다. 셋집 주인인 여의사 원장이 치과보다 몇 달 늦게 개원 후 진료 수입이 엄청나서인지 치과 공간을 살림으로 한다면 바로 옆 모퉁이 빈터가 있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 수중에 2평 값뿐인데 바로 다음 날 61평 땅을 계약했다. 나가라는 내용증명까지 받고는, 아파트를 처분해 개원 3년여 만인 1979년 1월 신축 치과 건물로 이전 했다. 자그마한 3층 건물은 소아과 원장 덕택(?)으로 마련한 셈이다. 2000년 6월 환갑나이에 폐업 신고를 하니 개원 만 25년 되는 날이었다.

교수하다 개원한 선배가 하루 수입이 한 달 봉급일 날도 제법 있다고 할 때, 난 돈보다 교수가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속으로 돼내기도 했었는데, 소아치과교실에서 차려준 환송 모임에서는 눈가에 물기가 서린 기억이 새롭다.

양정강 장학금

1983년 어느 날 연세치대 이충국, 손흥규 두 교수가 찾아왔다. 윤중호 학장이 시도하는 행사로 제1회 입학생이 졸업 10년째 되는 다음 해에 11회 졸업예정자와 ‘연아 상봉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만남의 자리를 시작하는데, 기념으로 ‘장학금’ 후원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예스’라 했는데, 선뜻 답하는 속마음엔 바로 몇 개월 전에 별세한 부친이 떠올랐다. 입 퇴원을 몇 차례 반복하며 신장 투석까지 이어가는 동안 장남으로 하던 뒷바라지를 계속하는 셈 치자는 생각을 하니 주저할 여지(勵志)가 없었다.

그런데 독일 FDI(1980), 브라질 FDI(1981), 동경 FDI(1983)와 호주 세계 소아치과 대회(1983)에 참석하며 열심히 다니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없었다. 하여 신협(서울치과의사)에서 거금(?) 천만 원을 켜다. 이 기금에 기왕(既往)에 김찬숙, 김용관 교수가 기부한 장학금을 더해 ‘양정강장학금’이라 했다.

당시 연세의대 김재전 동창회장은 필자를 연세치대 졸업생으로 잘못 알고, 역사가 오랜 의대 졸업생들은 참고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아내와는 의논 없이 한 일인데 장학금 낸 이야기가 경향신문에 실렸다는 사실을 친구가 알려줬다며 자기가 번 것을 마음대로 한 것이니 잘한 일이라고 아내가 말했다.

의의웅 학장이 1992년에 취임 후 시작한 장학금 전달 오찬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금 이자로 마련하는 금액이 많

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2000년, 소아치과 교실 손흥규 교수가 신라호텔에 마련한 필자 회갑연에서 받은 봉투에 새 돈 2백만 원이 들어 있었다. 우울증으로 심신이 힘든 가운데 가족들도 함께 받은 호의는 참 고맙고 크게 격려가 됐다. 기금 한 번 낸 일로 전달식에 늘 참석하는 일이 마음에 쓰이기도 하던 터라 8백만 원을 더하여 장학 기금에 천만 원을 보탰다. 2002년엔 소아치과학회에서 학회장을 지낸 차문호, 김진태 두 분에 이어 보령메디앙스 공로상으로 5백만 원을 받아, 선례대로 학회에 반납하는 대신 양정강장학금으로 활용했다.

50대 후반 삶이 몹시 힘들 때 따뜻하게 대해준 ‘신우인’ 성경공부 지도 목사님 부탁으로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따님 대학 등록금과 탈북 여성의 대학원 등록금 후원도 즐겁게 동참했다. 순간적으로 장학금을 내고는 아마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풍문도 있었으나, 비록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은 아니라도 주위에서 원할 때 응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세상엔 이런 소소한 수준이 아닌 큰돈을 희사(喜捨)하는 것을 보면 초라한 생각이 들어, 왜 평생 소위 재테크에 무관심했는지를 돌아봤다. 평생 배가 고파 보거나, 용돈이 떨어지거나 하는 가난했던 기억이 없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고 보니 양치과 건물 임대료는 처음 정한 이후 한 번도 올린 일이 없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 대신 예외 없이 모두 동료, 후배, 친지들에게 양도했으니 돈에 욕심이 별로 없나 보다.

어른이 되도록 가난을 모르게 키워준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만주 용정 교민회장을 지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원하는 학업 대신 일찍이 상업에 투신했다. 만주 용정에서 사업 중 815광복 후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청진으로, 1948년 갑작스러운 탈북으로 38선(한탄강) 넘기, 서울에서 2년여 만에 피난길로 부산을 돌아 서울에 정착하며 향년 65년을 누렸다. 우리 3남매는 ‘부자네’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마음은 부자로 한국에서 제일이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칠 수 있었으니 이는 오로지 훌륭한 부모님 덕분이다.

근래엔 유대인 성인식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작 알았으면 하는 후회 아닌 후회도 좀 했다. 즉 13세에 치르는 유대인 성인식(바르 미츠바, Bar Mitzvah)에서 친지들이 목돈을 모아 주는데, 돈이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는 의식과 함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진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부호 중엔, 성인식의 영향인가 유대인이 대거(大擧) 차지하여 미국과 세계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이자가 점차 줄고 화폐 가치도 전과 다르다는 생각에, 언젠가부터 매년 장학금으로 1백만~2백만 원을 보내고 있다. 망구(望九)를 지난 여든셋 나이로 참 고마운 일이다.

세동회

1976년 교수 퇴임 후 외래교수로 원내생 임상 실습지도와 소아치과 강의 한 챕터를 맡아 교실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2007년부터 심평원 심사위원을 했던 경험으로 3학년 학생에게 ‘국민건강 보험법’ 강의도 몇 학기 했다.

소아치과교실이 출발하고 10년이 되는 1984년 8월에 세브란스 [세]에 아이 [동]자인 세동회(世童會)로 동문 모임을 결성했다. 회장을 맡아 40여 명이 교실 발전에 일조하며 동문 사이의 학술 연마와 친목을 도모하기로 했는데, 오랜 시절을 지나며 이즈음엔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골프 모임, 스승의 날 행사, 학술집담회, 가을 야유회, 개원의를 위한 세미나, 학술집담회 및 송년회를 치르고 있다. 세월이 흘러 세동회 단독방엔 1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람직한 치과의사 상을 위한 인성교육을 받고 개원으로 나선 회원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아 청소년환자들을 전문으로 다룬다. 이들 중엔 의료윤리학자로 변신한 김준혁교수, Springer·출판사의 ‘Pediatric

Dentistry' 영문교과서를 공동집필한 박기태교수, 부총장을 역임한 손흥규교수, 조선치대 학장 및 세계 소아치과 학회 조직위원장을 지낸 이상호교수, 사진작가 이인환원장, 치협 '올해의 치과인 상'을 받은 이주석원장, '에이카랩스' 창업자인 주기훈원장, 45년간 치아형태학 실습 지도를 한 황의강 외래교수 외 모교 송제선 주임교수와 여러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회원들을 떠올리면 초대 회장으로 참 흐뭇하다.

모임마다 하는 인사말이나 건배사는 상투적인 훈시와는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 후 70, 80세 이후 나이 들어가면서 변해가는 일과(日課)를 그때마다 소개하고 있다. 혹여 후배들에게 참고할 만한 대목이 있으면 해서다.

어느 해 송년 모임에서 약주의 힘을 빌려 고향 이야기를 한다며 태어나서 이제까지의 아주 긴 이야기를 했다. “만주 용정에서 태어나고, 해방 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탈북, 서울살이 2년 남짓 후 부산 피난 시절 3년 이후엔 서울에서 지냈으니 명절이면 많이들 가는 고향이 따로 없다.” “그래서 세동회가 바로 내 고향입니다.” 라는 마지막 한마디로 평생 기억할 큰 박수를 받았다.

세동회가 고향이라는 말이 어떻게 붙쑥 나왔는지 돌아봤다. 4년제 치과대학 마지막 학년으로, 1년 반 구강외과 석사과정까지 모교 서울 치대와의 인연은 5년 반이다. 지금도 구강외과 소식을 받아보고는 있다. 이후 전공 분야가 소아치과로 바뀌고 연세대에서 교수와 박사과정 3년으로 시작해서 나이 80인 2019년 2월까지 외래교수에, 지금은 연세대 퇴임 교수 모임에도 개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모교 인연이 60년이라 자연히 연세대, 세동회가 고향으로 각인 됐나 보다. 어쩌면 지난해 받은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과인'상은 타향살이를 고향 삼아 그런대로 잘 넘기고 있는 덕분인가 보다.

2008년엔 교실에서 수련을 마친지 10, 20, 30년 되는 동문이 만나는 소위 'Homecoming Day'를 시작했다. 1977년에 수련을 마친 1회 졸업생 손흥규교수는 곧 수료 50주년이 된다. 매년 스승의 날이면 세동회 주관으로 큰 대접을 받는데, 지난해와 올해엔 수료 40년 차인 황인성원장의 초대로 경로석을 차지한 이종갑, 황의강 두 친구와 함께, 오래전에 그만둔 골프를 했다. 나이 70인 후학의 대접은 참 고마우면서도 앞으로는 더욱더 원로다운 처신을 기약하게 된다.

모르긴 해도 이제까지 세동회 총회, 송년회, 신년회 등에 결석 한번 없었다. 필자가 평생 잘 하는 덕목의 첫째가 온갖 모임에 개근하는 일인데 매우 고마운 삶이다.

로타리인

1988년 10월 서울마포 로타리클럽에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7명 중 5명이 고교 친구로 새로운 회원들과 어울리기도 수월했고, [주회] 이름으로 매주 만나다 보니 다른 누구보다도 친한 사이가 됐다. '로타리안'이라고 불리는 회원 구성은 다양한 직종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에서 호칭(互稱)은 이름이나 직함 대신 허물없이 쓰기 위하여 별칭인 호(號)를 쓴다. 가지고 있던 호 奭岩(석암)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사업가, 의사, 약사, 국회의원, 교수, 성악가, 무용가 등 다양한 회원들과 어울리며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

자매 클럽으로 미국, 필리핀, 일본 클럽과 결연했으며 이중 'Rotary Club of Nara West'와는 여러 차례 교차 방문을 하면서 즐거움을 참 많이 나눴다. 일본 클럽의 환대는 절도 있고 지극하여 따라 하기 힘들 정도였다.

로타리안으로 9년 되는 해에 회장이 됐다. 로타리클럽의 속성을 소개하려고 취임사 일부를 옮겨본다.

“로타리 운동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봉사단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친구를 사

귀고 아울러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글렌 W.킨로스 97-98년도 국제로타리 회장이 설정한 표어는 [Show Rotary Cares] 즉 로타리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빈곤한 이웃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회원 여러분께서도 빈곤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많은 기쁨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로타리안의 덕목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역시 출석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로타리 활동의 모든 것은 출석에서 시작된다고 믿으며, 재정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회원 중에 생일이면 헌혈하는 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봉사의 인]이나 [P.H.F]에 참여하는 전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로타리안에게는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에 US\$ 1000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 소위 [P.H.F, Paul Harris Fellow]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이는 1905년 [로타리]를 시작한 폴 해리스(Paul P.Harris, 1868-1947)에서 따온 것이며, [초아의 봉사]라는 뜻을 담아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봉사의 인’ 칭호를 준다. 1991년 맹인 박사 강영우 미국 Munster 클럽 로타리안의 제의로 노태우대통령이 국제로타리클럽 ‘폴 해리스 펠로’ 명예회원이 됐는데, 이때 서울마포로타리클럽이 대통령의 P.H.F.를 스폰서하여 청와대 오찬에 초대를 받은 일이 있었다.

‘로타리안’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할 때 다짐하는 지침으로 소위 ‘The Four-Way Test’가 있다. 1. Is it the truth? 2. Is it fair to all concerned? 3.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4.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회원으로 들고 나는 이들이 수십 명인 가운데, 20년 째가되던 해에 그만하겠다고 했다. 필자보다 더 열심이던 고 3 때 같은 반이던 친구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도 그만두겠다고 해서 덜 민망했다. 열심이던 몇이 빠지고 얼마 후 클럽 이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의 클럽이 탄생했다. 몇 해 전부터는 로타리 인연을 되살려 대여섯이 가끔 만나 별칭인 호를 부르며 옛정을 나누고 있다.

시간적인 투자와 재정적인 지출도 만만치 않았으나, 치과의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줄곧 지니면서 직간접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한 로타리안 20년은 그런대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법 제정과 더불어 1977년 의료보험협의회로 시작하여 1982년 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88년 의료보험연합회를 거쳐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0년 7월1일자로 출범했다. 이때 치협은 복지부로부터 상근심사위원 추천 의뢰를 받았는데, 심평원 정년이 70세에서 65세로 줄어든 때문인지 후보 물색(物色)이 난항(難航)이었다. 협회는 추천 마감을 넘기던 중 이기택회장이 우울증으로 폐이삭터의 도움을 받고 있던 필자를 지목(指目)했다. 전혀 생각에 없던 일이라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이 기회에 양치과를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다. 하여 협회에 바로 하겠다고 해 2000년 8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고, 이때 소지하고 있던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진료 예약카드는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심평원 근무 6년, 정년까지로 이어졌으며, 언제쯤이나 헤어날 수 있을까? 막막하던 우울증 대신 조증(躁症?)이 오늘까지 25년째 ‘인명은 재천(在天)’이라는데 ‘인명은 재처(在妻)’가 더 맞는 말인가 보다.

사안에 따라 정부 의견과 치과의사 사이에서 마주하는 줄타기업무는 남 보기와 다르게 즐길 수 있었는데 천직으

로 알고 열심히던 임상 진료보다 심사위원 일이 적성에 맞았나 보다. 공공기관 분위기에 여러 직종과 어울리는 업무임에도 심신이 얼마나 편했는지 평생 최고 체중을 기록했었다.

심사위원으로 급여비용 및 기준의 모순점에 대한 시정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치협 각급 보수교육, 치과대학 및 다양한 자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치과보험’에 대한 강의를 했고, 치의신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수많은 글도 남겼다.

상근심사위원 30명 중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씩, 셋 이외 모두 양의사였다. 어느 날 심평원장과 남녀 직원 5명과 함께 홍보용 사진을 마련하는데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모델 노릇을 하느라 수십 차례 촬영하는 경험도 해봤다. 심사위원 가운데 왜 내가 뽑혔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연세치대에서 특성화 교육의 하나로 심평원에서 2주일 과정으로 건강보험제도 알아가기에 참여한 학생 6명과 연세대의 학생 여러 명에게 심평원 업무를 소개했는데 그중 한 학생은 반갑게도 현재 연세치대 치주과 주임교수다.

치대학생들에게 건강보험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내가 다시 치과의사를 하면 구강보건학을 전공하겠고, 가능하면 복지부에서 행정을, 능력이 되면 입법 즉 국회의원을 할 것이다.’라고 심평원 업무에서 얻은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심평원 퇴직 후 치의신보에 실린 40회에 걸친 경험담과 1973년 치협 의료보험 연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미국의 보험정책’ 제목의 보고서를 묶어, 난생처음 [숨은 치과경쟁력 보험, 치과보험과 심평원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첫째 용도는 2010년 [치과보험 학회]를 창립하면서 모임 때마다 배포하는 것이었다. 옛말대로 아홉수인 스물아홉엔 딸 둘에 초짜 교수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서른아홉엔 치과 건물 짓기로, 마흔아홉엔 14차 아태 서울총회 사무총장으로, 드디어 80여 년 삶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던 우울증을 씬아홉 언저리에 겪었다. 약물을 전문하는 교수, 면담을 주로 활용하는 개원의, 꿈 분석 및 그림 치료를 하는 세분 정신과의사를 겪으면서 언제랴 중증 무기력에서 벗어날까? 낱알을 알 수 없던 중 전화 하나로 바로 벗어났다. 20년 연상 104세 김형석교수가 “60에서 75세까지가 인생 황금기다”라는 말대로 심사위원 일을 환갑 육십에 시작해 칠십오 나이에 치과보험학회의 협회 인준까지로 이어진 15년은 인생에서 가장 바쁘면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세월이었다. 언뜻 화양연화(花樣年華) 네 글자가 떠오르며, 지나고 보니 우울증을 겪은 이후엔 그전보다 좀 겸손해진 느낌이다.

선이클 18년 이야기

1963년 8월 미국으로 떠나기 얼마 전, 장충동 소재 [경동교회] 출석 교인인 어머님께서 먼 길을 앞둔 아들에게 교회 등록을 권유했다. 5년 후 귀국 이래 이제까지 집사 직분의 교인이다.

2000년 4월 23일(부활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진료를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원한 ‘선한이웃 클리닉’을 약자로 [선이클]이라 했다.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에 내과, 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한방의학과, 치과 진료를 비롯해 다과 접대, 옷 나눔, 이 미용 서비스, 인권 상담활동 등을 했다. 치과 진료실엔 치료 의자 3대를 마련했다. 개원 이래 2017년 12월까지 17년 9개월 동안 58개 나라 7만2천여 명을 진료했다. 의료인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수의 봉사자들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15년 근속봉사상 수여자 16명 중에 양의사 2명과 필자가 들어있다.

2005년 [선이클] 3대 소장에 취임하면서 소식지에 올린 인사말을 옮긴다.

‘지난 60년 경동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뿌린 소금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미약하나마 제가 참여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강형용, 임한중 원로 장로님을 모시고 무의촌 진료를 한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무의촌 진료의 의미가 적어져 국내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이제는 용정, 베트남, 등 해외에서 진료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0년 4월 우리 이웃을 향한 새로운 봉사의 하나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듬어 주기 위해 시작한 진료 봉사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강원용 원로 목사님을 위시한 교우 여러분께서 재정적인 지원과 자신의 귀한 시간을 할애한 열성적인 참여와 격려로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이·미용사분들의 머리 다듬기와 의류 제공 등으로 그 범위 또한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봉사자분들의 수가 절반을 넘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당시 의사의 신분이면서도 식당에서 심부름도 해 본 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고된 노동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고국에선 모두 귀한 아들딸이요 부모이며, 배움 또한 많은 터인데 타국에서 힘들고 굶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형제자매로 여기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0여 년 주일예배를 빠진 일이 거의 없었으나, 교회 일에는 단지 의료봉사뿐이어서 교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중에 [선한이웃클리닉]의 소장직을 맡아 그간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기를 원하며 이런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장을 맡으셨던 김결 집사님, 간사 김선희님, 서명희, 김병태 부소장님, 최종학 총무, 남지현 간사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선한이웃클리닉에 보여주신 교우 여러분의 성원을 앞으로도 계속 더해 주시기를 간구(懇求)합니다.’

열여덟 해 동안 짧거나 길게 봉사에 참여한 치과의사, 치위생사, 여러분들 모두 안녕한지? 궁금하다. 기억이 뚜렷한 박대희, 주대원, 문성규, 이상두, 천옥경, 이윤중 여러분의 진료 모습이 눈에 선하다. 특히 무료진료 시설로는 괜찮았는데 그만두는 것이 몹시 아쉽다던 천사 같은 천옥경님이 생각난다.

2000년 8월부터 심평원 근무로 치과를 그만두었는데 비록 격주 주말이지만 좋은 생각으로 열여덟 해 동안 환자를 대할 수 있었으니, 참 고마운 일이었다. 언젠가 드물게 혼자 4시간 넘게 쉬지 못하고 진료했다. 그날 귀가하는 길이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만은 제법 흐뭇했다.

진료비 받던 때와는 다르기 때문인가?

보건대학원 고위자 과정

2002학년도 봄학기 연세대 보건대학원 고위자 과정 9기[의료와 경영]과 2003년 11기[의료와 법]을 수료했다. 9기에는 40여 명 중 병·의원 원장을 비롯해 교수, 의료 기관 행정 담당자가, 11기에는 의료인과 법조인(변호사, 판검사)이 주로 참여했다. 6개월 과정 모두 장기(長技)인 개근을 했고 이후 돌아가며 봉사하는 동문회장도 지냈다.

의료와 경영 과정에서는 기억에 남을만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나 법 과정에는 평생 처음 듣는 듯, 법의 속성을 인지하는 기회였다. 법에서 글자 하나 ‘아’ ‘어’의 차이나 모든 상황을 담을 수 없는 법의 한계 등, 희미하나마 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았는데~~

이제까지 유독 기억에 남아 있는 강의 하나를 소개한다. 교육부 공무원인 강사가 [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모든 대학에서 시행할 것을 권하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여 온갖 혜택을 주어 시작한 8개 치의학 전문대학원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곳뿐이다.

서울대는 2011년에 치과대학 복귀를 추진했으나 복귀하면 90명에서 45명으로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제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어쩌면 치전원으로 전환한 적이 없는 3학교

(단국, 원광, 강릉원주)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셈이다.

11개 대학 중 한둘이면 몰라도 모두에게 귀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탁상공론으로 시작한 정책의 실패가 최근 심각한 길에 들어선 소위 ‘의정 갈등’과 판박이라는 생각이다. 오륙십대 정책 입안자들과 소위 MZ세대인 학생·전공의들과의 의식 구조가 어찌면 하늘과 땅 차이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어려움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9기에서는 과정의 하나로 ‘해남도’ 여행을 했고 11기엔 연길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왔다. 과정 이후 11기에서는 국내외 여러 차례(17회) 여행 기회 중에 초행인 독도와 베트남 기억이 생생하다. 백두산 천지 보기와 독도 오르기도 모두 단번에 이루는 행운도 따랐다.

40여 명 과정생 중 수료 후 모임에 참여하는 이가 10여 명인데 9기는 주로 골프 모임을 여러 해 이어갔고, 11기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여러 모양으로 꾸준히 만나고 있다.

과정 수료 후 동문 모임이 전혀 없는 기도 있으나 9기는 코로나 전까지는 모였고 11기는[11회] 이름으로 만나고 있다. 동문회 활성화와 20여년 장수엔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경험을 11기 모임에서 보고 있다. 역대 모든 회장 후보는 검사 출신 변호사 그분이 맡아 주는 조건(?)으로 수락해서다. 참으로 꼼꼼하고 성실하며 부창부수로 부인께서도 열심이다.

11회는 매년 네다섯 번 저녁 모임을 하며 특히 연말 송년 모임을 음악회로 꾸미는데 부부동반에 자녀 몇도 함께 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음악인이 아닌 청년 성악가와 반주자지만 30여명 관객이 한 시간 남짓 오붓하게 크나큰 감흥을 받는다. 2005년에 시작한 음악회는 당시 회장 어부인께서 힘들게 마련한 장소에서 꾸렸고, 이후 여러 해를 이어 왔다. 올해 음악회는 12월 7일에 16번째를 맞이할 것이다. 근래엔 (주)지오영 이희구회장이 사옥에 음악회를 위한 피아노도 마련한 장소에서 저녁 성찬까지 즐기고 있다. 하여 이희구회장은 종신으로 추대하고도 남는 일이며, 신용간 변호사도 종신 총무이기에 10여명 회원의 모임에서 음악회로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

경영이나 법이 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알아보는 학습 과정이 물론 알게 모르게 사고의 폭을 넓혔겠으나 어찌면 수료 후 모임을 통한 소위 [관계]가 삶을 풍부하게 한 느낌이 든다. 고위자 과정으로 전공 분야가 다양한 이들과 오래도록 이어 가는 만남은 참 고마운 일이다.

신당동 모임 이야기

서울 신당동 이웃에서 고등학교엘 다닌 친구 다섯이 세월 따라 ‘백수’가 됐는데 어릴 때 인연을 되살려 한번 만나자고 한 모임이 며칠 전에 190차를 치렀다. 2007년 2월 27일 첫 모임에서 매달 첫 화요일에 만나기로 하고 이왕이면 신당동에서 장소를 찾자고 해 약수동 로타리에 개원 중이던 [홍치과] 홍순용 동기가 추천한 [춘천 막국수]에서 17년째 모이고 있다. 저녁 모임이 ‘코로나’ 이후엔 점심으로 변했다. 아주 허름한 음식점이 맛집 소문으로 티브이에 몇 차례 등장했고, 벽면엔 유명인 사진이 가득하다.

그동안 친구 여럿이 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다. 신당동에 살던 친구 몇이 더 합류하기도 하고, 교수 정년 후 석좌 교수까지 끝내고 신당동 인연과 백수 자격을 다 갖추어 참여하고, ‘성동 여중’ 교감을 지냈으니 참석할 수 없나 해서, 집이 약속역 지척인데 등으로 여럿이 들기도 했다. 건강상 술을 끊어야 해서, 뇌졸중으로 수년째 요양병원에 머물러서, 아예 외출이 안되는 양로원에 갇혀서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세월 따라 몇 친구는 멀리 저세상으로 떠났다.

방바닥에 앉아 대화하던 분위기에서 시작해서, 동기생 절반 가까이 세상을 떠났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한때 모임이 국내지역(9), 해외지역(4), 동호인(7), 종교(3) 등 스무 개가 넘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매달 [신당회] 포함 5~6

개만 알려 주고 있다. 언제부터 인가는 의자가 8개로 변한 방에서 대화가 하나로 모일 수 있다며 10명 안으로만 만났다. 특별한 인연으로 초창기부터 참석한 친구는 집에 있는 양주를 여러 해 동안 매번 들고 오더니 이후로는 언제나 ‘화과자’를 후식으로 준비하며, 와인을 비롯해 술 한 병을 언제나 지참하는 친구도 있었다. 따로 회비 없이 밥값은 ‘가나다’ 순으로 하니, ‘복불복’이라 많이 참석하면 ‘인기가 좋다’로 치부(置簿)한다. 미국에 사는 동기가 서울에 올 때 여럿을 초대하기도 했고, 밥값 담당에게 소위 ‘게스트’를 초대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코로나로 몇 차례 모임을 거르다가 이후 친화력이 대단한 친구가 참석하더니 동기 친구 여럿을 마구 불러모아 하나뿐인 방에서 터진 공간으로 옮겨, 이즈음 17명까지 모이기도 했다.

모임을 하자고 운을 댄 사연으로 ‘연락책’으로 시작해서 17년째 장기 집권(?)을 하며 이젠 ‘회장’이나 드물게 ‘방장’이라 부른다. 만남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석한 인원수와 결석자 명단을 노트에 적다 보니, 내세울 것이 없는 중 고교 6년 학창 생활에서 말년에 [신당회] 회장 소리를 듣고 있다.

옛날이야기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웃음소리가 시끄러워 방문을 닫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석 인원이 늘어나 화제도 흩어지고 더욱이 근래 몇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보니 ‘희희낙락’ 대신 무덤덤한 자리가 되곤 한다.

지팡이 짚는 아버지를 모시고 온 효녀 따님이 어디선가 기다렸다가 모임을 마치고 나온 일행을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어 준다. 커피믹스를 마셨는데도 백수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참인가, 2차로 커피집으로 향한다. 2시간 가까이 걸려 참석하는 친구는 하루해를 다 보낸다.

망구(望九)를 지나 80 중반에 이르니 감기 기운이나, 병원에 가느라 여럿이 빠지기도 한다. 이젠 오로지 건강을 잘 챙겨 두고두고 만나면 좋겠다.

추기(追記): 하마터면 18번째 글을 못 쓸뻔했다. 지난 10월 15일 출근길에 전주를 쓰러트리면서 ‘에어백’이 터지는 운전 사고로 폐차를 했다. 그날 점심 모임에 기다릴 친구에게 사고를 전하면서 ‘오래 살 것 같아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한 친구는 소식을 듣고 보낸 문자에 “부활하신 양박사님, 9988 100세까지 문제없겠습니다!!!”라고 했으니 24회로 글 마무리하기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치과보험학회 창립하기

심평원에서 상근심사위원 일을 여섯 해 만에 끝내면서, 치과 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었다.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는 치협이 내는 목소리에 연구회나 학회 이름으로 의견이나 주장을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 10월 10일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60명)과 2010년 1월 23일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실의 후원을 받으며, 심평원의 양의사 상근심사위원 몇이 앞장서서 2002년 5월 25일에 발족한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부터 치과의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하면서 치과계에도 보험에 대한 조직을 꾸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여 2006년 12월 보험에 관심을 지닌 젊은이 [송윤헌], [김영삼]을 만나 치과 보험 관련 연구조직을 만들기로 논의를 시작하고 창립 취지문을 작성했다.

발기인으로 참가한 [김용진]은 이후 창립 논의에 몇 차례 참가하고, 창립대회에 참석한 후 그 소회를 ‘3대 지향점’으로 정리했다. 즉 1. ‘한국 치과 보험, 이대로? 어디로!’, 2. ‘기본적인 치과 운영은 건강보험으로!’, 3. ‘자연치아 보존은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였다. 초대 편집인으로 학회지 제1권 1호부터 제8권 1호까지 여러 해 발간을 맡았고,

훗날 제8대 회장을 역임했다.

초대회장으로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 회장 선임과정이 난항이라 연임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차기회장` 제도를 도입하며 [김진범] 부산대 교수를 선임했다. [김진범]은 제3대 회장으로 초창기의 기틀을 잡았으며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발기인 모임에 광고를 통해 참석한 초면의 [박덕영]은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이다. 그는 임기 중 불쑥 사퇴한 5대 회장 [고석민]의 잔여 임기까지 3년간 6, 7대 회장을 맡아 출중한 행정력을 발휘(發揮)하여 학회의 틀을 단단하게 다듬었다. 2015년 4월 15일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받는 과정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진상배]는 어느 날 서치 신탁에서 하는 보험강의를 듣고 진료 현장에서 터득한 솔직한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 필자가 섭외했다. [보험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총무이사를 역임, 현재 제9대 회장이다.

초대(初代) 임원 구성을 하면서 [정보통신 이사]는 수소문 끝에 경기도 수원 영통으로 찾아 나섰다. 첫 대면인 [심재한]은 홈페이지 개선을 시작으로 현재 ‘고문’이며 개성있는 의견 개진과 함께 경기도 대표 보험전문가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정보통신 이사는 [김영경]을 거쳐 [이수정]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고문]인 [장기완] 명예교수, [우종윤] 전 치협 의장, [황운숙] 교수와 초대 홍보섭외 이사과 부회장을 지낸 [이주석], [최희수] 차기회장을 비롯하여 처음부터 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참여하는 [류재인], [오보경], [홍선아], 초창기부터 참여한 수석 부회장인 [한동현], 인준위원을 시작으로 총무, 편집 이사를 지낸 [김준용], 학술이사 후 편집 이사를 연임하는 [정희인], 6대 임원인 홍보이사 [조미도]와 재무이사 [최진선] 외 여러분들이 그간에 보인 헌신에 크나큰 고마움을 전한다.

지난봄에 시작한 제9기 임원인 [곽정민], [신보미], [고영민], [장효숙], [정기홍], [신보람], [곽선희]를 비롯한 새내기 임원들이 국민 구강 보건 향상과 치과 영역의 권익 도모에 일조하며 보람과 즐거움을 얻기 원한다. 창립을 앞두고 평생 처음 [숨은 치과경쟁력 보험] 제목의 책을 냈다. 치의신보에 연재한 보험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거금(?) 오백만원을 들여 천부를 찍어 보험학회 모임 때 마다 배포했다.

곧 학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평생 처음으로 상하나를 받으려고 써낸 공적(功績) 셋 중에 나이 70에 시작하여 75세에 치협 인준을 받은 [대한치과보철학회 창립]이 들어있다.

건치신문 논설위원 위촉

건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 입회한 사연이 특별하다. 2000년대 초인가, 어느 날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개원 안내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기에 과연 소위·의식화(意識化)를 앞세운 이들이 후배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궁금했다. 교대 근처에서 저녁 대접까지 하는데 참가비가 없었다. 하여 그냥 자리를 뜰 수 없어 입회비를 냈는데, 이제까지 거액(?)의 연회비를 내는 최고령자로 남아있다.

입회 이후 건치 정책연구회에서 주관하는 모임에는 자주 참석하던 중 2012년 뜻밖에 건치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지난해 4월까지 서른번에 걸친 기고(寄稿)를 했다. 평생 처음 기고한 ‘논설’의 제목은 [‘매출’과 ‘장사꾼’]이다. 말과 글이 세월 따라 변하기 마련이나 의료 영역에서 ‘물건 따위를 내다 파는 일’이라는 단어 ‘매출’의 무심한 통용을 지적하고 싶었다. 세상 흐름이 온통 돈에 매몰되다 보니 ‘가격’(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의료시장’, ‘치과 상권’, ‘치과 상호’, ‘홍행(세미나)’ 등으로 자연스럽게 인용하고 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치과계의 변화무쌍한 일들을 대상으로 주제를 잡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편집인으로부터 유

일하게 퇴짜를 받은 글은 유디 치과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었다. 소송을 우려한 편집실의 권고였다. 초반에 해마다 한두 차례 받은 원고 청탁이 말년엔 서너 차례로 늘었다.

인터넷 신문이 되면서 ‘인기기사’ 1위에서 5위까지를 소개하는데, 비판적인 글보다는 개인사를 포함한 내용의 글이 어쩌다 순위에 오르기에 논설에 어울리지 않은 사사로운 글을 쓰기도 하다가, 지난해 10여 년 만에 슬그머니 그 만두였다. 건치신문의 ‘논설위원 위촉’은 글쓰기에 용기를 줬고, 이력서 경력란에 올리기도 했으니 참 감사한 일이었다.

올해 초 우연히 ‘치학신문’기자의 제의로 어떻게 치과대학을 지원했으며, 이후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한 달에 두 차례 A4 용지 1매 반 정도로 1년간 쓰기로 해 24회 중 이글이 20회차가 된다. 글쓰기가 전보다 편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기 덕분이다. 종이사전이 필요 없고 한자를 쉽게 사용하고, 띄어쓰기나 철자법도 알려주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궁금한 자료를 확인한다. 인공지능 AI가 대세인 이즈음 ‘챗지피티’ 시도는 생각만 하고 있다.

1969년 10월 18일 자 ‘서울齒醫報’ 제5號에 송 아무개 여류 작가의 “닥터 김의 추억”이라는 글에 “남의 썩은 이나 치료해주고 그 수수료로 자식과 부인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선 너무 멋졌다”, “죽으면 죽었지 이를 갈진 못하겠어요”, “틀니를 해서 끼우고 불편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다시는 치과에 못 간다” 등 진료 경험담이 있었다. 젊은 나이에 대학교수가 되어 알게 모르게 높아진 자존감이 치과의사가 되고 처음으로 1970.1.25.자 ‘치의보’에 항의 차원의 글을 투고했다. 글 제목이 “‘닥터 김의 추억’을 읽고” 였다. 이후 수필에 해당하는 글쓰기가 이어져, ‘월간 세브란스’, 고교와 대학 동창회보, 로타리 클럽잡지, 심평원 월보, 치과신문 등에, 수많은 글이 가능했다. 치의신보에 심평원 경험담인 ‘보험 이야기’를 40회 연재했으며, 얼마 전엔 국군장병에게 배포하는 월간지 ‘자유’에 구강 건강에 대한 글을 열 차례 쓰기도 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20대에 서툴게 시작한 어쭙쭙은 글이 망구(望九), 80 나이 넘어까지 이어지니 매우 고마운 일이다. 근래, 글쓰기는 치매 예방으로 하고 있다. 인기기사 순위에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모임 참여

2006년 5월 25일 ‘자연齒牙 아끼기 運動모임’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에 참석하며 자문위원으로 시작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직을 지낸 후 ‘고문’을 맡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울타리 역할을 해온 셈이다. 치과의사가 자연치아 보존을 도모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命題)임에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상황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다.

창립 취지문에 지향 목표를 “1. 자연치아의 소중함을 치과의료계와 국민에게 재인식시키고 2.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바람직한 의료윤리와 진료문화 회복 운동을 전개하며, 3.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제고시키고, 4. 자연치아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한다.”로 설정했다.

‘임플란트’시술이 차츰 보편화하는 시기에 치과의사들에게 의료윤리를 강조하는 취지문은 일부 동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취지문 1항에서 ‘국민’보다 ‘치과의료계’를 앞세우거나, 2, 3항에서 ‘의료윤리’, ‘전문직업인의 가치관’을 강조하여, 동료들이 ‘살리기’ 대신 발치를 함부로 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단어 ‘살리기’가 아닌 ‘아끼기’를 국민에게 홍보함은 치과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하긴 진료실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뽑아달라는 이에게 “손가락 끝이 너무 아프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느냐?”며, 뽑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고 감히 ‘자연치아 아끼기’를 실행한 일이 생각난다.

2006년 12월 1일 김춘진 국회의원 주최,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이승중)를 비롯해 토론

자(정원균, 조영식)로 참여했고, 전 치과의를사를 대상으로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 스티커 제작 및 배포를 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회원들은 ‘덴탈브리프’, ‘치의신보’, ‘치과임상’, ‘메디컬투데이’ 등에 수많은 글을 ‘컬럼’, ‘寄稿’로 오랜 기간 자연치아의 중요성을 여러 모양새로 알렸다. 치협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8020운동’을 소개했으며, 언론사 인터뷰, EBS, KBS 아침마당(이승종 교수) 등에 출연 홍보했다.

2007년에도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 스티커를 제작하고, ‘왜 자연치아일까요?’ 제목의 ‘만화’도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했으며, 2016년엔 (주)신흥 후원으로 ‘홍보 포스터’를 1만5천여 치과의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2009년 7월 16일 전현희 국회의원 주최로 공청회(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후원으로 시행하여, 취지문 제4항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부합하는 사업을 했으며 이는 ‘LG 생활건강팀’의 재정 지원으로 가능했다.

2013년 (주)애경의 지원으로 ‘자연치아 홍보물 및 스티커’를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하고, 공보의 대상으로, 또한 거제시 치과의사회 초청으로 ‘자연치아 아끼기’ 포럼을 개최했다.

2017년 11월 14일 정춘숙, 강석진 국회의원 주최로 ‘건강한 삶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 본부 주관으로 한동현교수의 ‘전신 및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자연치아 아끼기’ 제목의 발제로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윤흥열 초대 상임대표에 이어 이충국, 서영수, 이승종, 나성식 역대 상임대표가 여러 형태로 열심히 모임을 이끌었다. 현재 박규태 상임대표와 임원진은 크게 드러나는 활동은 아니나 SIDEX 기간에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 본부’ 부스를 통해 존재를 알리고 있으며 특히 박창진 사무총장은 전국을 누비며 ‘자연 치아 아끼기’ 강연을 하는데 그 대상은 건보공단 임직원, 군 장병, 대전 세종 충청주민, 치위생사 등 다양하다.

지난 20년 가까운 운동모임을 통하여 당초 세운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가늠할 수 없다. 그래도 20만, 3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가 횡행하는 시절에 치과의사 모두는 ‘자연치아 아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심껏 알려야겠다. 치아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노년에 하는 후회 중 하나가 ‘이빨(齒牙)을 아낄걸’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의료윤리 연구회 참여

2015년 4월 8일, 구독 중인 신문에서 보던 김철중 논설위원이 ‘의료윤리 연구회’에서 ‘의학 전문기자가 바라본 의사사회’ 주제로 발표를 한다기에 강연장인 의사협회 회관으로 찾아 나섰다. 참석하고 보니 2010년 9월 6일에 창립총회를 한 마흔여섯 번째 모임이었다. 매달 의료윤리와 관련한 내용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는데 지난 12월 2일 133차 모임엔 ‘임상적 자율권과 윤리’ 제목으로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나이 든 치과의사가 제 발로 나타나서인가 주최하는 이들은 늘 반갑게 맞이해준다. 치과의사 참석으로는 처음이었는데 바로 얼마 후 서울치과의사회 임원(김성남, 노형길, 박영채, 이계원, 조영탁)과 사무국 부국장이 몇 차례 참석하며 치과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모임을 결성하려는 것으로 보였는데 슬그머니 사라졌다. 알고 보니 조영탁 법제이사가 ‘왜 지금 치과의료 윤리인가?’를 내세워,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개원의들의 ‘치과 의료윤리 연구회’ 카페를 의욕적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만 일찍 마감했다. 필자와 노형길(서울 25개 구 치과의사회장 협의회장)은 오늘날까지 틈틈이 참석한다.

모임 장소를 의협회관 재건축으로 서울시의사회 회관, 의협 임시 회관으로 옮기다가 이젠 새 회관에서 만난다. 강사의 발표 제목을 보고 참석 여부가 정해지기도 하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한다.

치과의사로 ‘윤리’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고, 치과계 행사에서 오른손 들고 하는 ‘1.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로 시작해서 ‘1.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로 끝나는 ‘치과의사 윤리’가 있는데, 치협 회원 명부 첫 쪽에 ‘2006년 4월 29일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의장 박종수 외 대의원 일동’ 이름으로 올라있다.

치과 의료윤리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 이들 중, ‘치과의료 윤리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의철학자’로 불리는 부산치대 의료인문학 교실 개설자인 강신익 교수가 우선 떠오르고, 국가 생명윤리위원을 지낸 강릉원주치대 치과인문학교실 강명신 교수, 근래 ‘치과의사. 의료윤리학자’라 불리는 연세치대 ‘치의학 교육학 교실’ 김준혁 초대교수가 있다.

개원의로 ‘Dental Ethics at Chairside’를 번역하고 ‘시텍스’에서 강의도 한 이철규 원장을 비롯하여 의료윤리를 주제로 책을 낸 이들이 여럿 있으며, 학회 단위에서 지침서로 ‘치과 교정과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도 있다. 세상 흐름이 온통 상업화에 휩쓸리다 보니 의료계에도 윤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치협회장들은 ‘치과의료 정책연구원’을 통하거나 여러 형태로 윤리문제를 거론한다.

2011년 12월 30일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주제로 포럼이 있었고, 2019년 8월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 의사윤리포럼’을 출범, 집단 지성 의견 모아 치과계 자정 노력으로, ‘치대 교육 윤리지침’. 대국민 홍보강화. 자율징계권 확보 등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2016년 2월에 FDI(세계치과의사연맹)에서 발행한 ‘Dental Ethics Manual’은 전문 직업 윤리를 강조한 내용으로 학생 교육에 교과서로도 활용하기를 권고하며, 2022년 2월엔 백대일 교수 외 25인이 ‘이젠 더욱 중요해진 치과 의료 윤리’란 저서를 출간했다.

‘치과의료 윤리’에서 가까이는 발치 기준에 대한 논의라든가 과잉진료, 불법 광고가 있는데, 치과 영역에는 소위 ‘텀핑’에 ‘먹튀’가 부끄럼을 사고 있다. 바로 지난 12월 9일에도 윤리위원회 간담회에서 ‘저수가’, ‘불법폐업(먹튀)’, ‘자율징계권’을 논의할 전국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치협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윤리선언, 현장, 지침’ 제목에 ‘치과의사 직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 현장과 지침은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료윤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진료 현장에서 이들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을까? 상업화의 큰 흐름에 떠내려가는 길에서, 대기실 벽에 ‘의료윤리선언’을 걸어놓은 이가 있던데, 결코 환자들에게 보이기 아닌 날마다 쳐다보면서 다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 시절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을 지속할 일이다.

의료인 몇이 모여 ‘의료윤리 연구회’를 이어가는 일이 과연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고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치과의사 몇이 의사들 틈에 끼어 그저 귀를 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거나 한지? 그냥 내 마음이 좀 편안해서 찾아 나서는 모습으로 보일듯하다.

자랑스러운 상(賞)받기

지난 2023년 3월 15일 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인 상]을 받았다. 이력서에 [포상 상벌]란을 채울 일이 더는 없을 나이 80이 넘어서다.

수상 소감이 “공로상 심사지침에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랑할만한 훌륭한 일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남들이 추천해 받은 상이 아니라 스스로 잘한 일이 있다고 소명하며 받은 상이다 보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꽤 쑥스럽습니다. ‘공적(功績) 쓰기’는 있는데 ‘부끄러운 일 쓰기’가 없어 자랑할 일 몇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였다.

강재린 서울치치원 학생 기자와 인터뷰에서는 “뜻깊은 상을 받아 큰 영광입니다. 영예로운 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생을 자랑스러운 동문상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로 약속을 했다.

2023년 1월 31일 자 <건치신문>에 위의 상을 받으려고 이력서 등 서류를 마련하던 중 투고한 <이력서에 포상 상별 채우기> 제목의 글이 생각나 몇 대목을 옮긴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써낸 이력서에 포상기록 네 칸을 ‘보령 메디앙스 공로상’, 연세대학교 총장 표창장(2회), 로타리클럽 3650지구 회장 표창패, 로터리 봉사클럽 위원장 공로상으로 채웠다.

학력과 경력 등의 다른 내용 들이야 술술 써 내려 가다가도 상별이나 포상 칸에 이르러선 무슨 상을 받았던가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어 꽤 곤혹스러웠다.

동년배 대학 동문의 자서전에 첫 번째로 올라온 상이 ‘치과대학 학장상’이라 눈에 번쩍 들어왔다. 아, 필자도 이 상을 받았는데 써먹어 본 일이 없었다. 그이는 학력란에 16개, 경력란에 45개, 저서가 12개나 채워져 있는 등 참으로 부지런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장관 표창장 둘을 더해 받은 상은 단출하다.

학장상을 떠올리다보니 하나 더 생각났다. 개근상이다. 살면서 중고등 6년 결석이 없다. 나이 들어 두 개의 ‘보건대학원 고위자 과정’도 개근했다. 개근 자랑을 틈틈이 할 때면 ‘그런데 학교성적이 그 정도냐?’는 답이 늘 돌아왔다.

한편, 포상하면 떠오르는 선배 어른 한 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빛낸 상을 비롯해 받은 상이 수십 아니 백을 훨씬 넘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고회 기념집(紀念集)에 “‘상별’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치협 공로대상, WHO’S WHO(영국발간)에 수록됨”이라고 몇 줄 적은 게 전부다. 큼직한 상이 있으니 나머지는 생략해도 될 듯싶다.

자고로 행복한 삶은 상 많이 받기도 아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로남불’이요 ‘홍보다 닳는다’고, 나이 80 넘어 상하나 더 받을 생각을 하다가 그만 이력서의 ‘상별과 포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에 평생을 열심히 지낸 이가 ‘상’을 채우기가 힘들었는지 졸업 때 받은 ‘학장상’을 내세운 이도 있고, 하도 많아 굵직한 훈장 몇만 올린 이도 있다. 이런저런 여러 포상 이력들을 보면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속담이 맞을 수도 있겠다.

20여 년 전 모교에서 ‘자랑스러운 상’을 시작한 이래 16회 동기는 한 명도 없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뒤늦게 알고 보니 수십 명의 선후배 수상자 중에 바로 한 해 위인 15회에는 수상자가 7명이나 되어 있기에 이를 마음속 명분으로 삼아 상이란 당연히 남이 주는 것이요 스스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잠시 접기로 했다.

하여 10여 년 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로상을 받으려고 준비한 서류를 활용하기로 했다. 협회 공로상을 스스로 받겠다고 나서지는 않았고, 동기생이 추진하기에 고맙게 받아들였는데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실패했다. 선정위원 아홉이 세 후보를 두고 하는 결정에 매번 기권이 서너 명으로, 세 차례 모두 가(可) 4표를 받아 과반에 1표 모자라 수상자가 없었다. 아쉬웠으나 크게 부끄럽지는 않았다.

나이 들어 크게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도 노욕(?)으로 받은 상을 과연 자랑해도 되나?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상을 받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사랑 치과병원장 취임

2009년 8월 22일 열린 [사람사랑 치과병원] 개원식에서는 전 현직 치협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축하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년 퇴임 후 만 3년 백수 생활 끝에, 강남 한복판에 세 층을 차지한 직원 50여 명인 치과 병원장이 됐다. ‘김영삼’이 치과를 새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치과계에 보험에 대한 조직을 만들기로 함께 논의한 인연으로 연구회나 학회를 만들어 보자며 율타리 역할도 부탁했다.

근무 조건은 출퇴근 의무는 없이 1. 보험 연구 모임 만들기 2. 심평원 경험으로 모든 지점의 보험 관련 업무 챙기기, 3. ‘수련병원’ 인정받기 4. 전반적인 율타리 역할이었다.

이미 전북대 확장을 지낸 신금백 교수가 학술적인 면을 앞세운 지도력으로 ‘네트워크’ 전체를 관장하고 있어, 필자는 강남 ‘본원’에서 대외적인 역할을 맡은 셈이다.

대표원장 인사말은 “꽃도 사랑으로 기르면 잘 자라고, 일도 사랑으로 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사람사랑치과 가족 모두는 환자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한번 진료를 받으면 다시 찾고 싶은 병원, 언제까지나 계속 다니고 싶은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보통의 진료비로 학문적으로 검증된 교과서적인 진료를 수행하고, 전문과목별 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에 정진함으로써 치과 진료의 모범이 되는 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로 했다.

사람사랑치과 병원장 이름으로 치른 일들을 돌아본다. 우선 2009년 10월 10일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회장을 4년간 맡아, 5년여 만인 2015년 4월 15일에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을 받아 첫 번째 목표를 이루었다.

한때 하루 62명까지 진료한 무리함 때문인가, 심한 우울증으로 개원을 접고, 2000년 환갑나이에 시작한 심평원 출근과 같은 시기에 마침 출석교회에서 ‘선한 이웃 클리닉’ 이름으로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 진료를 2018년 사업 종료까지 거의 개근을 하다시피 참여했다.

2009년에 발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우회’에 부회장으로 시작해 현재 고문으로 참여한다. 2012년 서초구 치과의회 총회 의장을 맡기도 했고, 구 학술행사에는 늘 참석한다.

2012년 건치신문 논설위원을 시작으로 30회 글쓰기, 2020년 국군장병들에게 배포하는 월간지 ‘자유’에 <치아건강 이야기>를 열 차례 투고, 1년 전 치학신문에 쓰기 시작한 <한세월 지나기> 연재는 이제 스물 네 번으로 마무리하는 중이다. 그 외 고교 동창회보에는 <구강건강 이야기>를 비롯해 수차례 기고했다.

현재 소아치과학회 고문,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 고문, 치과보험학회 고문, 그리고 지난 2024년 6월에 시작한 인터넷신문 ‘덴탈프레스’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한편 입원실과 회복실에 ‘양악수술’을 시도하고,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수련병원 형태로 교정과에서 3명, 치주과에서 2명, 보존과에서 1명을 배출한 의욕적인 초창기 작업은 이리저리한 사연으로 그만뒀고, 수련병원 인준도 포기하며 병원 규모도 세 개 층에서 둘로 다시 한 층으로, 지난 2017년 10월엔 ‘병원’에서 직원 20여 명인 ‘의원’이 되고는 말석 공동원장이 됐다.

진료 의무가 없는 일터에서 당초 맡은 역할이 줄어들면서 남은 역할이 무엇일까? 하여 경쟁의 한복판인 강남역 언저리에서 살아남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했다. 우선 누구에게라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성 전문의 네 명 원장의 홍보를 열심히 하기로 했고, 새로 환자가 된 이들의 진료 일시가 필자의 근무시간이며,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로 편안함을 더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다음은 집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하는 새내기 치위생사들이 첫 일터

에 적응하는 일에 관심과 지지를 전하고 있으며 ‘코로나’ 전까지는 ‘소맥’ 모임을 틈틈이 하기도 했다.

강남 본점 단톡방을 만들어 소통을 시도했으며, 이외 노인(?) 역할을 여럿 한다. 즉 잡지꽂이 정리하기, 벽시계 시간 바로 하기, 벽에 걸린 액자 바르게 하기, 지나간 달력 떼어내기, 전등 전기 아끼기, 바닥에 떨어진 것 바로 줍기, 상담실 서가에 책 채우기, 직원 생일 따로 챙기기를 한다.

사람사랑치과 근무 16년 차에 소망이 있다면 안정적인 경영상황을 보면서 떠나는 일이다. 아무쪼록 손녀뻘 되는 직원과 자녀 돌보기와 남편 챙기기에 다양한 의원 경영까지 1인 3~4역을 하는 공동원장이 하루하루를 범사에 감사하면서 씩씩하게 잘 헤쳐 나가기를 기원한다.

개인적인 이해를 앞세운 채 함께한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노년에 환자 진료 의무 없이 젊음이 거리 강남역 이웃에서 이제까지 지내고 있는 사람사랑치과는 분명 꿈같은 일터다.

추신: 치과의사로 지낸 이야기로 60여 년을 돌아볼 자리를 마련한 ‘치학신문’에 고마움을 전한다.

〈교신저자〉

- 양정강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35 주류성 빌딩 13층 사람사랑치과
- Tel : 02-3482-7528, E-mail : yang020927@hanmail.net



1958년 서울 치대 1학년 혜화동 문리대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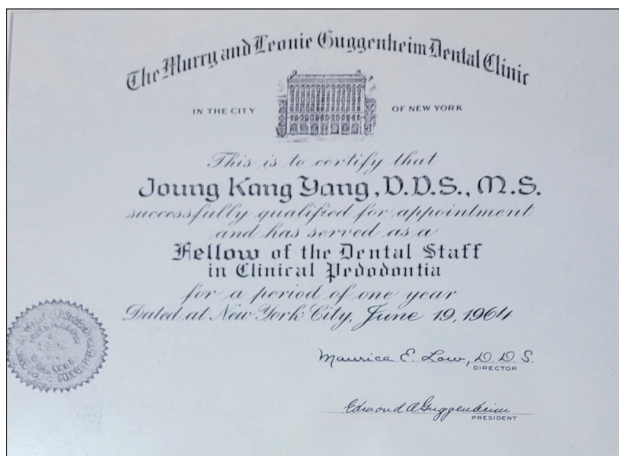
1960년 4.19 후 서울 치대 3학년 시절



1962년 서울 치대 졸업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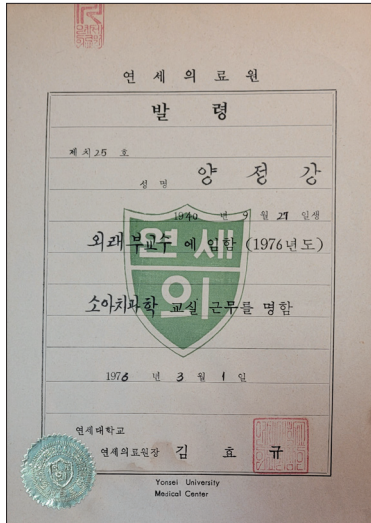
1963년 뉴욕 구겐하임 치과병원 Fellow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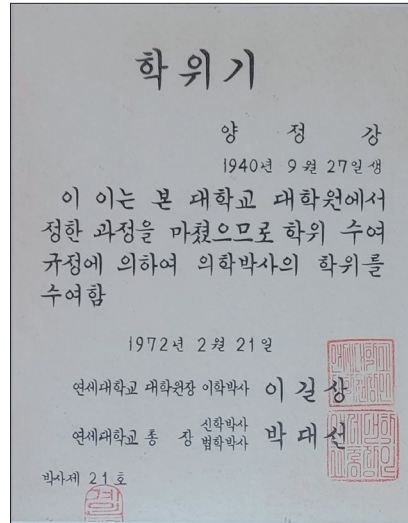
1966년 노스웨스턴 치과대학 석사학위 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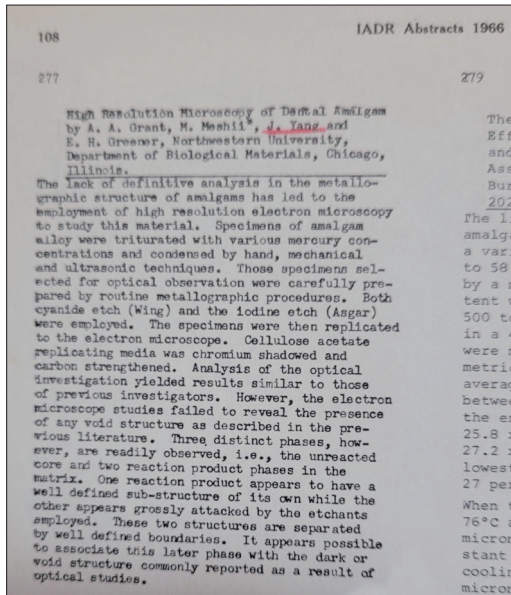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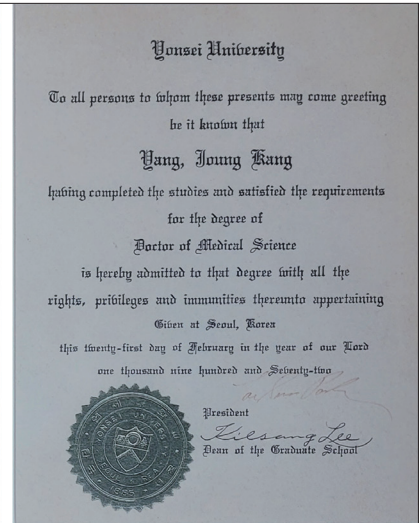
1966년 시카고 대학교 소아치과 주임 시절



1968년 연대 치대 전임강사 임용



1972년 연대 대학원 의학 박사 취득



1969년 IAD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 학회 발표
'High Resolution Microscopy of Dental Amalgam'



1983년 동경 FDI 총회에 치협 국제이사로 참석(김동순 협회장과 함께)



1980년대 초 양정강 치과에서 직원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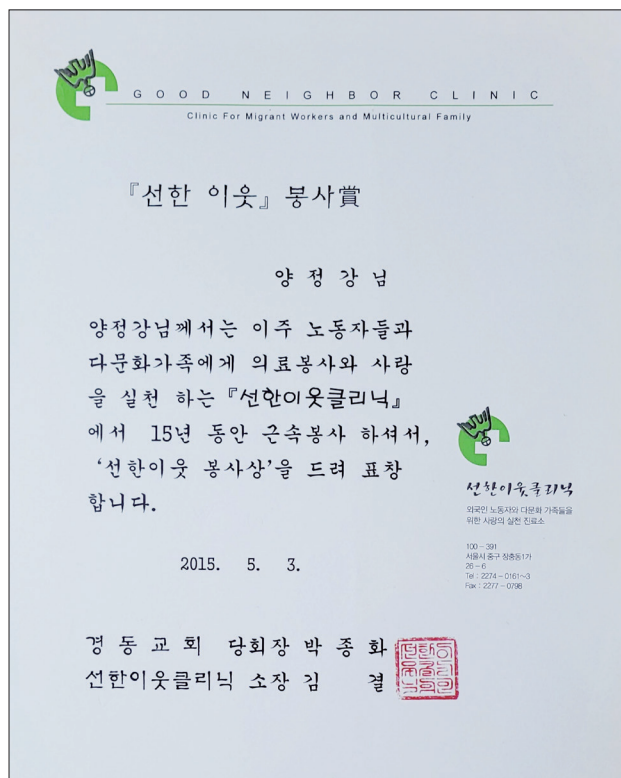
2022년 장학금 전달식에서(1983년부터 연세 치대 장학금 개설)



2000년 세동회(연세 치대 소아치과학교실 모임) 신년 모임에서



1997년 마포 로터리 회장 시절



2015년 선한 이웃 봉사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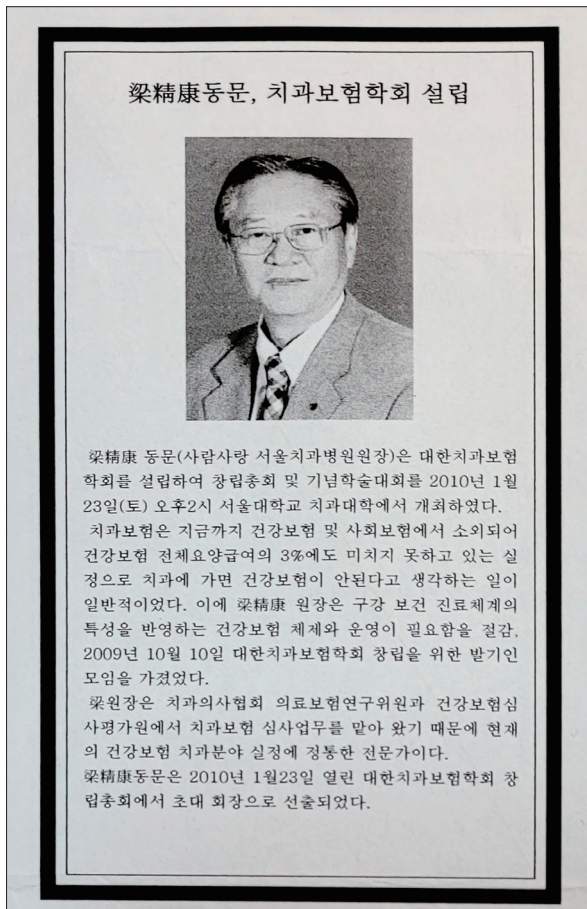
2000년 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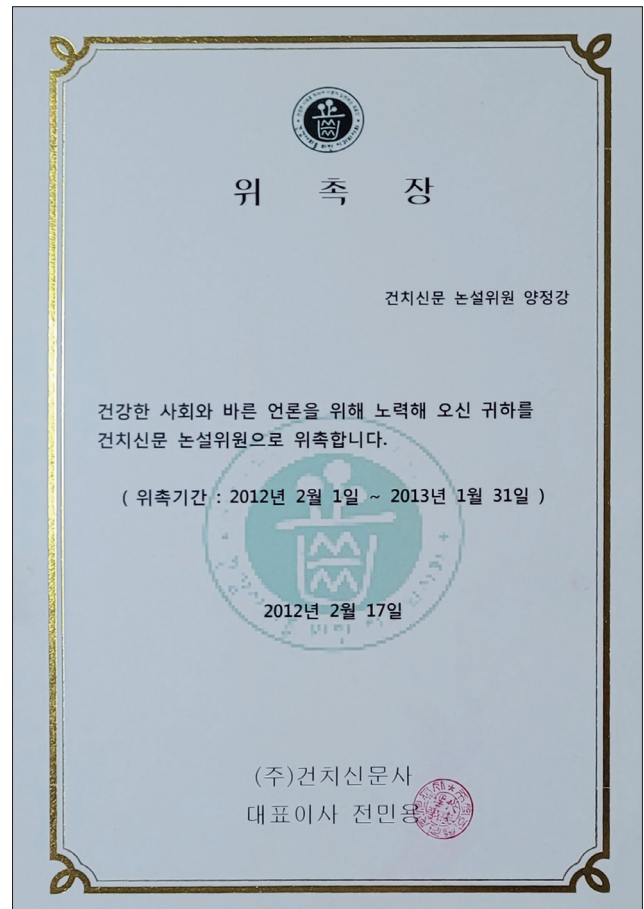
2012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위자 과정 송년 음악회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동기 모임(신당회)에서



2009년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 주도 이후 초대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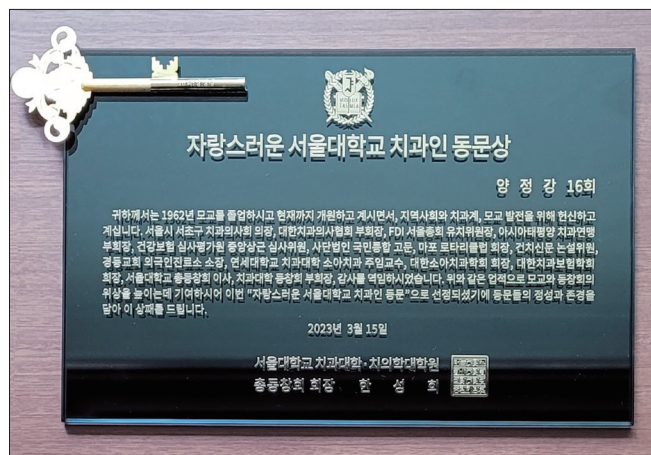
2012년 건치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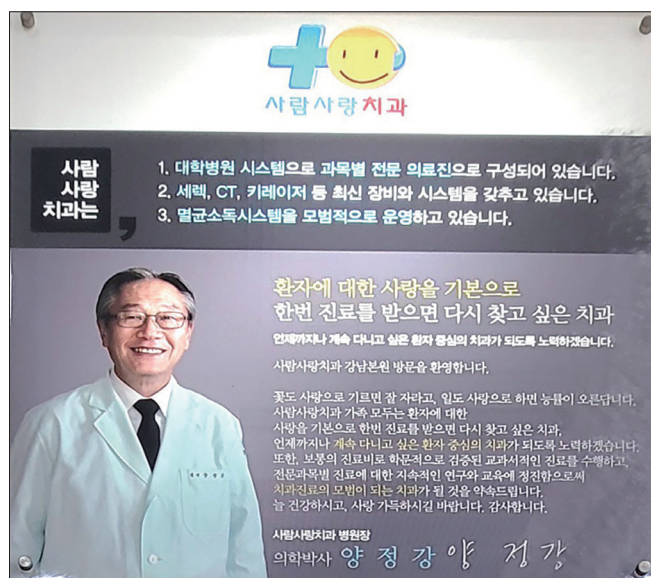
2006년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 모임 발기인 참여



2010년 의료윤리 연구회 창립 총회 참석



2023년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인상 수상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람사랑치과병원 원장으로 재직중



시카고 대학교 소아병원 치과에서 진료중인 모습을 그린 작품

양정강(1940 ~) 약력

1958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62 - 1963	서울치대 인턴과정 수료
1963 - 1964	미국 뉴욕 구겐하임 치과병원 Fellow
1964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석사
1966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대학원 의학석사
1966 - 1968	미국 시카고 대학 부속치과병원 소아 치과 주임
1968 - 1976	연세치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972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의학박사)
1973 - 1976	공직치과의사회 이사. 감사
1974 - 1976	(82-84,86-88) 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 이사
1975 - 1976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고문(현재)
1978 - 1980	서울시치과의사회 보건의사
1988 - 1990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1988 - 1989.5	제14차 아태치과연맹(APDC)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1988 - 2006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1991 - 1999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감사 부회장
1992 - 1998	아 태치과연맹 부회장 재무
1997 - 1998	마포 로타리 클럽 회장
1975 - 2000	양정강 치과의원
2000 -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2002 · 200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위자과정수료
2000	아태치과연맹 Member, List of Honor
2005-2007	경동교회외국민진료소장
1976 - 현재	연세치대 외래교수
1983 - 현재	연세대 치대 양정강 장학금 개설
2008.8 - 현재	2013년 FDI 서울총회 유치 위원회 위원장
2009.8 - 현재	사람사랑 서울치과병원 원장

턱교정수술법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권 민 수

Kwon, Min-Su

- I. 턱교정수술의 태동
- II. 하악 턱교정수술의 시작
- III. 하악지시상분할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의 역사
- IV. 구내 접근을 통한 상행지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의 역사
- V. 상악골 수평골절단술
- VI. 대한민국 턱교정 치료법 발전과 관련 문헌보고

턱교정수술법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올소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권민수

I. 턱교정수술의 태동

인류는 고대로부터 안면 기형과 부정교합의 치료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기원전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턱뼈 골절의 치료법이 언급되어 있고, 히포크라테스의 저서에도 턱관절 탈구와 하악골 골절의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다. 중세 시대에는 주로 외상이나 전쟁 부상으로 인한 턱의 재건이 시도되었으나, 체계적인 수술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8세기 말 치의학이 독립적인 의학 분야로 발전하면서 턱수술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의사이며, 볼티모어 치대(현재의 메릴랜드 치대)에서 1842년에 명예 DDS를 수여받은 Simon P. Hullihen이 1849년에 최초의 턱교정 수술을 시행했다. 화상 후 흉터수축으로 아래턱 잇몸뼈가 전돌된 환자에게 구내로 wedge ostectomy를 시행해 하악전방부를 이동시키고 wire로 고정한 것이다. 당시 수술은 국소 마취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술 도구도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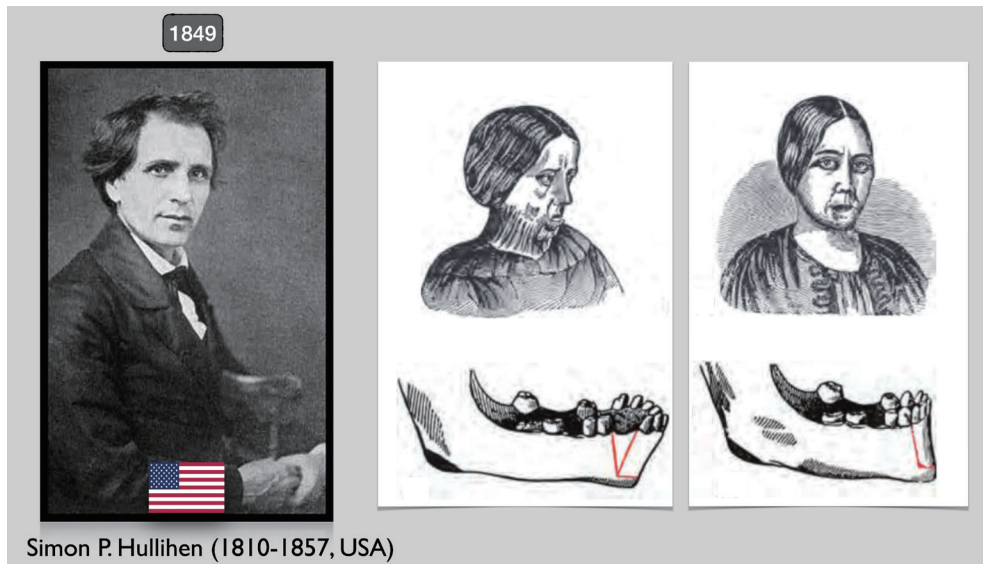


그림 1. Dr. Hullihen과 그가 1849년에 시행한 턱교정수술의 모식도.

Hullihen은 구강외과 수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 때문인지 당시 의사 동료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 동료 의사들이 그를 놀리기 위해 다리가 부러진 닭을 그에게 치료해달라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Hullihen은 닭을 환자로 받아주어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10일간 먹이를 먹여 치료해 돌려보냈다. 장난친 것이라며 닭의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는 친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Hullihen의 수술로 시작된 턱교정수술 치료는 수많은 선학들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턱교정수술 치료에서 하악골 수술은 하악골상행지시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 구내접근을 통한 상행지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 등이 시행되고 있고, 상악골 수술은 수평골절단술(LeFort 1 osteotomy)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II. 하악 턱교정수술의 시작

초창기 턱교정수술은 하악의 전돌을 해결하기 위해 하악골의 길이나 크기를 줄이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Berger는 1897년에 하악전돌증 치료를 위해 최초로 양측 하악과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Berger는 감염 방지를 위해 수술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 최초의 외과의사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하악과두 절제를 최초로 시행한 사람은 영국의 Humphry였는데, 1856년에 Humphry가 시행한 하악과두절제술은 턱관절의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것으로, 턱교정수술은 아니었으나 과성장된 편측 턱관절을 제거하여 안모비대칭과 교합개선 효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과두절제술은 하악골의 이동공간에 한계가 있고, 개교합 혹은 관절강직 등의 합병증을 야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였다(그림 2).

III. 하악지시상분할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의 역사

골격성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 하악골의 크기를 외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노력은 1900년 초, 하악지의 골절단술로 이어졌다. 1905년에 영국의 Lane이 하악지수평골절단술을 시행해 하악을 후퇴시켰고, 1907년에는 미국의 Blair가 같은 수술로 하악을 전진시켰다. Blair는 그의 저서에서 Gigli saw라는 줄톱을 이용해 하악지를 수평으로 자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그림 3).

Gigli saw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부인과 의사인 Leonardo Gigli가 난산 환자의 pubiotomy를 위해 만들었던 수술용 줄톱이었지만, Gigli saw를 이용한 pubiotomy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턱뼈 수술이나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다른 과의 뼈수술에 Gigli saw가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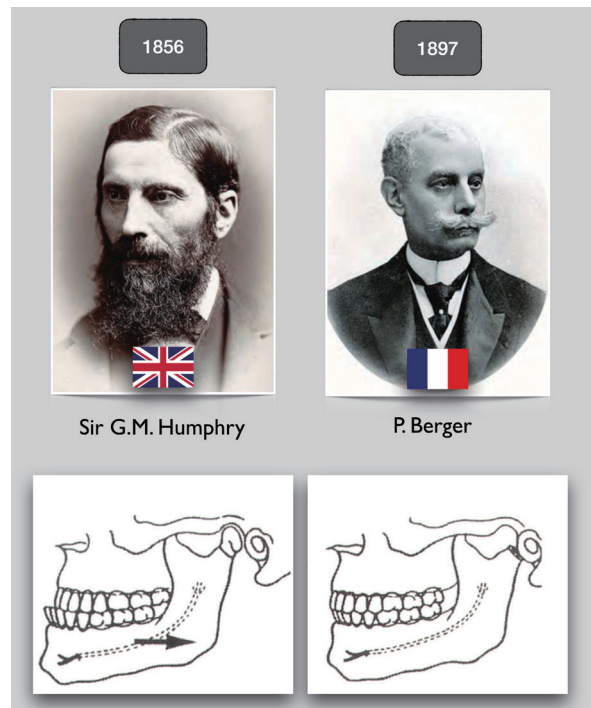


그림 2. 하악과두 절제를 최초로 시행한 영국의 Humphry와 이 수술을 하악전돌증 치료에 적용한 프랑스의 Berger.



그림 3. 하악지수평골절단술로 많은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를 수술했던 미국의 Blair와 Gigli saw를 이용해 하악지를 수평으로 자르는 방법을 소개한 그의 저서.

이 이용되었다.

독일의 Perthes는 하악지 수평골절단술을 시행할 때 Gigli saw를 사용해 골절단을 시상면으로 기울여 시행했는데, 1922년에 Schlossmann이 이 방법을 기술해 Schlossmann-Perthes osteotomy로 발표하였다(그림 4).

이 수술법은 절단면의 골접촉면적이 상당히 넓은 방법이었다. 1935년에 미국의 Kazanjian은 하악지 수평골절단술을 할 때, 하악신경손상을 예방하고 골접촉면적을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하악지를 약간 경사지게 자르는 수평골절단술을 소개하였다.

Wassmund의 제자인 Schuchardt가 1942년에 구강내 접근을 통한 stepped osteotomy를 시행해 발표했는데(그림 5), 이 수술법은 구강내로 시행했다는 점과 하악지의 외측과 내측을 구분하여 골절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Obwegeser의 SSRO 방법과 유사한 절골법이었으나 당시 그리 주목받지는 못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구강을 통한 턱수술법은 항생제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의사들에게 선호되지 않았는데, 구강은 세균이 많고 위생이 좋지 않은 수술 환경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44년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이후에야 구내접근을 통한 수술방법의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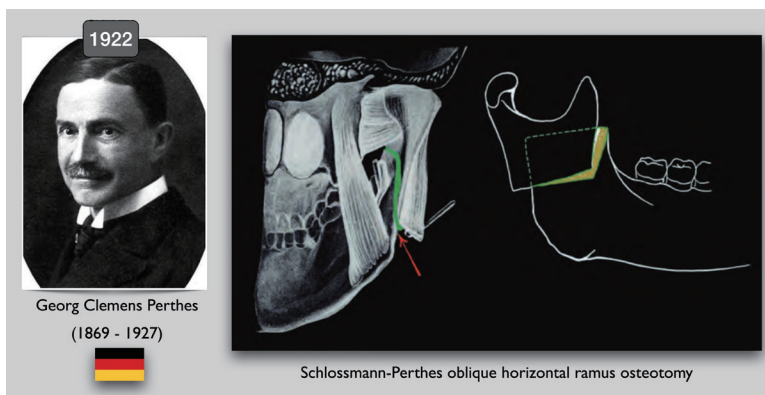


그림 4. Perthes와 시상면으로 기울여 하악지를 절단한 Schlossmann-Perthes osteotomy 모식도.



그림 5. Schuchardt와 1942년에 그가 발표한 구강내 접근을 통한 stepped osteotomy 모식도.

당시 수평골절단술과 더불어 inverted L osteotomy를 통한 하악골수술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구외접근을 통한 inverted L osteotomy는 독일의 Wassmund가 1927년에 최초로 소개하였다(그림 6).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Freud의 구강암을 수술했던 Pichler의 제자인 Trauner도 Wassmund의 inverted L osteotomy를 선호하는 의사로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부정교합 환자들을 이 수술법을 통해 치료하였다.

1950년대 초, Trauner의 제자 중 한 명인 Obwegeser는 하악골 골절 환자를 치료하면서 하악골 상행지가 시상면으로 골절된 환자들의 증례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그의 스승이 시행해왔던 inverted L osteotomy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방법인 SSRO를 고안하였다.

그가 고안했던 수술법은 구강내 접근을 통해 하악지를 시상면으로 절골하는 방법이었었는데, 구강내로 접근하니 환자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골 후 골접촉면적도 기존방법보다 넓어서 술후 치유에도 많은 장점이 있었다(그림 7).

Obwegeser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해부용 사체에서 먼저 시행해 성공한 후에 그의 스승인 Trauner에게 SSRO에 대해 보고하였다. Trauner는 제자가 고안한 수술법을 본인의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1953년 4월 하악전돌증을 가진 24세 여자환자에게 SSRO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환자의 오른쪽 하악지는 Trauner가 구외 접근을 통해 inverted L osteotomy를 시행하였고, 왼쪽은 Obwegeser가 SSRO를 구내접근으로 시행하여 성공하였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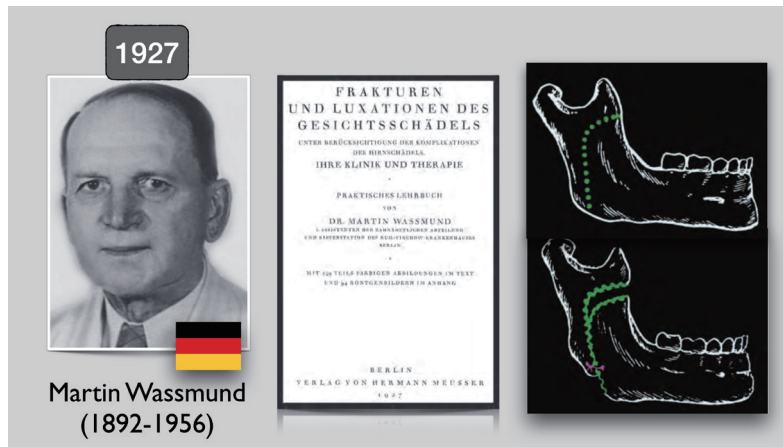


그림 6. Wassmund와 inverted L osteotomy를 소개한 그의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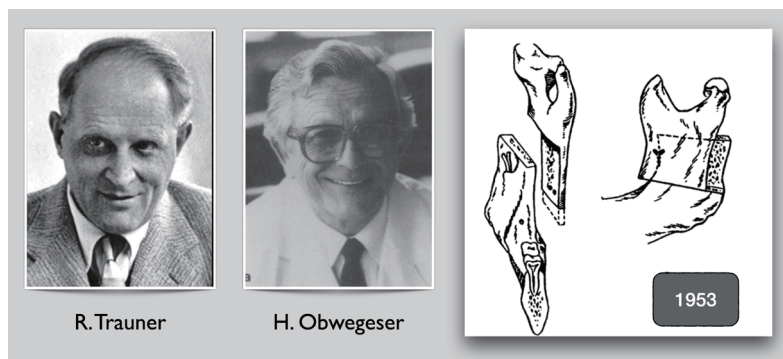


그림 7. Trauner와 그의 제자 Obwegeser. 1953년 오스트리아 Graz에서 수련받는 동안 Obwegeser가 구강내 접근을 통한 sagittal split ramal osteotomy를 고안해 최초로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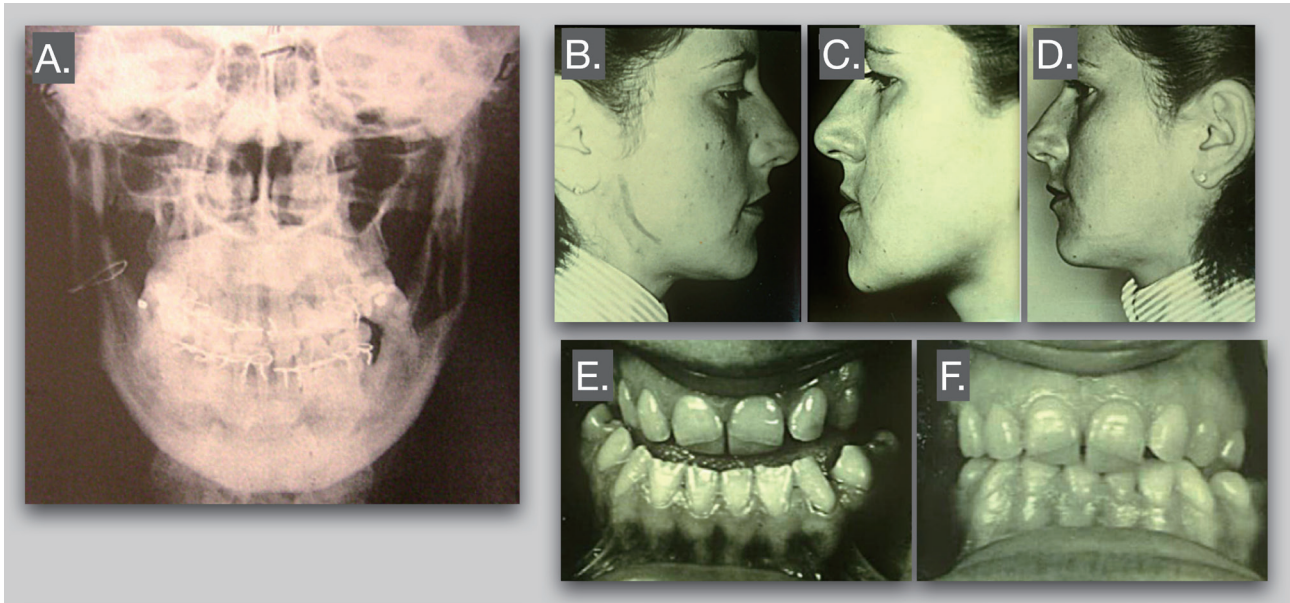


그림 8. 1953년 Trauner와 Obwegeser가 수술했던 환자의 방사선사진과 안모 및 구내사진. 당시 환자의 우측은 Trauner에 의해 구외접근을 통해 inverted L osteotomy를 시행하였고, 좌측은 구내접근을 통해 SSRO를 시행하여 술후 우측모 사진(B)에서 술후반흔이 보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평소 독일의 Wassmund를 존경하고 그의 수술법을 추종했던 Trauner는 Wassmund의 제자이자, 1942년에 구강내 접근을 통한 하악지의 stepped osteotomy를 성공해 논문에 발표했던 Schuchardt가 Trauner의 교실에 방문하여 교육받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1953년에 당시 Schuchardt가 Trauner의 병원을 방문 중이었고 Obwegeser가 1조수로 SSRO를 처음 시도하는 수술에 Schuchardt가 2조수로 참여하였다. Schuchardt는 9년 전에 자신이 발표한 stepped osteotomy와 유사한 SSRO를 Obwegeser가 개발한 것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하였고, 이 일로 Schuchardt와 Obwegeser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고 한다.

Obwegeser는 수련을 마친 후, 스위스의 취리히로 가서 구강외과 교수가 되는데, 그 병원에서 1956년 4월에 14세 소녀에게 SSRO를 시행했다. 그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그리고 양측에 시행된 최초의 SSRO였다. 소녀의 수술은 그런대로 이루어졌지만, 수술 후 환자의 부종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였다. 수술 후 소녀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두려웠던 Obwegeser는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 근처 성당에 가서 ‘저 소녀만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신다면, 다시는 환자들에게 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했다.

다행히 소녀는 건강하게 회복되었는데 여측이심[如廁二心]인지는 몰라도, Obwegeser는 성당에서 하느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그 이후로도 SSRO를 계속 시행하면서 수술법을 발전시켰다.

Obwegeser의 SSRO는 이탈리아 출신 제자인 Dal Pont에 의해 골절단부를 전방으로 확대하여 골접촉면적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절골 방법이 변화하였고, 1968년에 미군 군의관이었던 Hunsuck에 의해 더 발전된 절골술로 수술방법이 정착되어 오늘날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 하악골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방법이 되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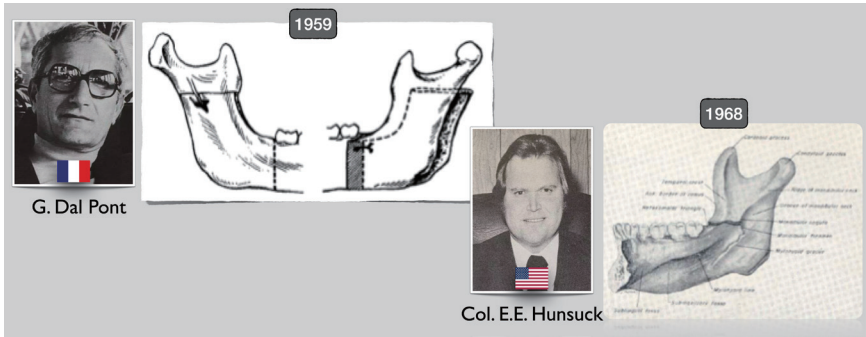


그림 9. Obwegeser의 이탈리아 제자인 Dal Pont이 1959년에 스승의 SSRO의 절골선을 전방으로 연장한 수정된 수술법을 발표하였고, 1968년 미국의 군의관인 Hunsuck 대령이 SSRO의 short lingual cut 방법을 발표함.

IV. 구내 접근을 통한 상행지수직골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IVRO)의 역사

초기의 과두절제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악지 수평골절단술 이외에도, condylotomy가 하악전돌증 치료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Dufourmental은 1921년 condylotomy를 시행해 condyle head를 꺼내지 않고 잘라서 하악체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하악전돌증을 치료하였다(그림 10). 레닌그라드에 있던 의료 연구소의 ‘구강학 (Odontologia)’ 교수였던 러시아의 Limberg는 1923년에 anterior openbite를 치료하기 위해 condylotomy의 절골선을 좀 더 하방으로 내리는 수정된 수술법을 발표하였다. 1928년, 체코의 Kostecka가 Gigli saw를 이용해 최소침습 condylotomy를 소개하였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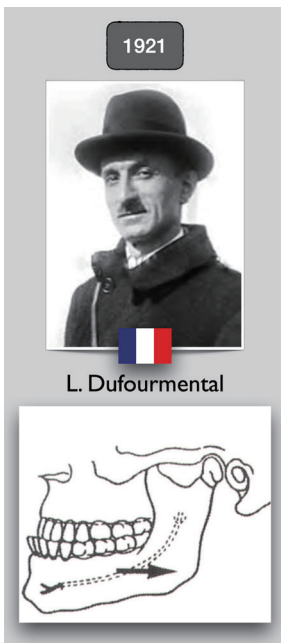


그림 10. 프랑스의 Dufourmental 과 그가 1921년 하악전돌증 수술법으로 발표한 condylotomy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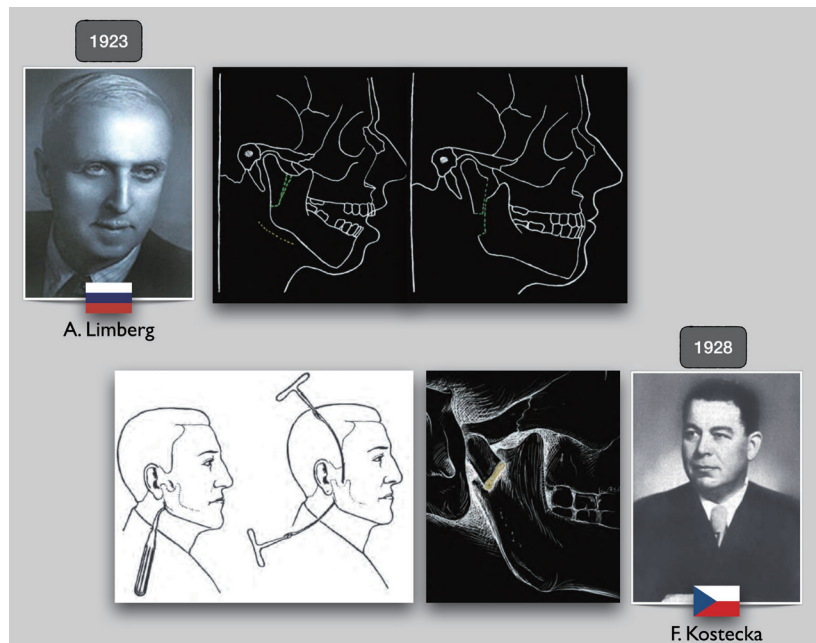


그림 11. 러시아의 Limberg는 1923년에 condylotomy의 절골선을 좀더 다양한 형태로 시도해 소개하였고, 체코의 Kostecka는 1928년에 Gigli saw를 이용한 condylotomy를 소개함.

이러한 condylotomy는 미국 군의관이었던 Caldwell(그림 12)에 의해 1954년에 vertical subsgmoid ostetomy로 발전하였다. 구외로 시행하였던 Caldwell의 vertical ramal osteotomy는, oscillating saw가 개발되면서 1970년에 미국의 Hebert, Kent 그리고 Hinds에 의해 intraoral vertical ramal osteotomy(IVRO)로 처음 시행되어 문헌으로 발표되었다. 처음 IVRO를 문헌 발표한 의사들은 ‘수술 시야가 너무 좋지 않은 방법’이니 켈로이드 체질이나 구외 접근을 꺼려하는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IVRO는 처음 발표된 이후 관련 수술기구와 수술방법의 발전을 통해 현재는 하악전돌증 치료를 위해 SSRO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는 수술방법이 되었다.



그림 12. Condylotomy를 vertical subsgmoid osteotomy로 발전시킨 Caldwell 대령.

V. 상악골 수평골절단술

상악골 수평골절단술, Le Fort I osteotomy는 상악에 시행되는 턱교정수술 방법 중 가장 수행빈도가 높은 수술이다. 프랑스의 의사 Le Fort는 상악골 골절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해부실에서 여러 시신들의 얼굴에 충격을 가해가며 얼굴뼈가 어떤 모양으로 골절되는지 살펴보았는데, Le Fort는 이를 통해 상악골 골절을 3개의 classification으로 정리하여 1901년에 발표하였다(그림 13). 상악골이 수평으로 골절되는 Le Fort 1 fracture는 1866년에 프랑스의 외과 의사 Guerin이 발표한 적이 있어 Le Fort의 분류 이전에는 Guerin fracture라고도 불리웠다.

턱교정수술은 아니었지만, 1868년에 미국의 Cheever가 nasopharyngeal polyp 제거를 위해 Le Fort I osteotomy를 최초로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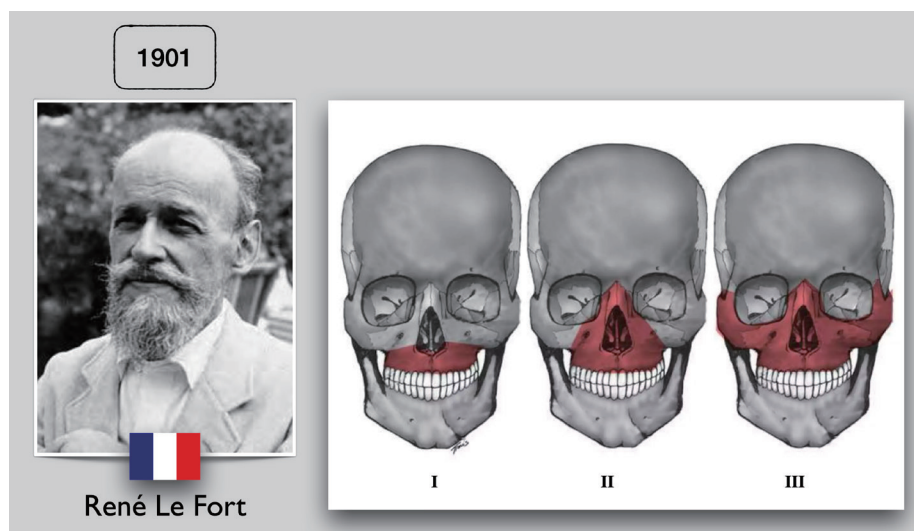


그림 13. 프랑스의 Le Fort는 해부학 연구를 통해, 1901년 상악골 골절의 전형적 형태를 3가지로 분류하여 발표함.

1927년에 Wassmund가 전방부 개교합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초의 Le Fort 1 osteotomy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술은 익돌판(ptyergoid plate)을 분리하지 않는 상악골 골절단술이었고, 수술 후 전방부에 고무줄을 걸어 개교합을 치료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회귀하여 최초의 Le Fort 1 osteotomy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1934년 독일의 Axhausen이 상악골을 Le Fort 1 level에서 골절단을 시키고, 익돌판을 불완전 골절시킨 후에, 술후 elastic traction으로 상악전방이동 시켰다는 기록이 있고, 1949년에는 Schuchardt가 Le Fort 1 osteotomy를 2 stage로 시행했다. 처음에 상악골 수평 절단하고 나서 이후에 2차수술로 pterygomaxillary separation을 하고, 무게추를 달아서 상악 전방이동시켰다.

하악골 전돌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1960년대 초반까지는 하악골 후퇴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동반된 상악골 중안면부 후퇴증의 해결을 위해 현재처럼 상악골을 안면골과 완전히 분리시켜 이동하는 Le Fort 1 osteotomy는 1965년에 스위스의 Obwegeser가 처음 시행하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Obwegeser가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움직여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양악수술을 최초로 시행하고 발표하였다(그림 14). 1975년에 Bell의 혈행 연구는 상악골 절단술 후 골편의 생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정립함으로써 더욱 활발히 상악골 절단술이 시행되는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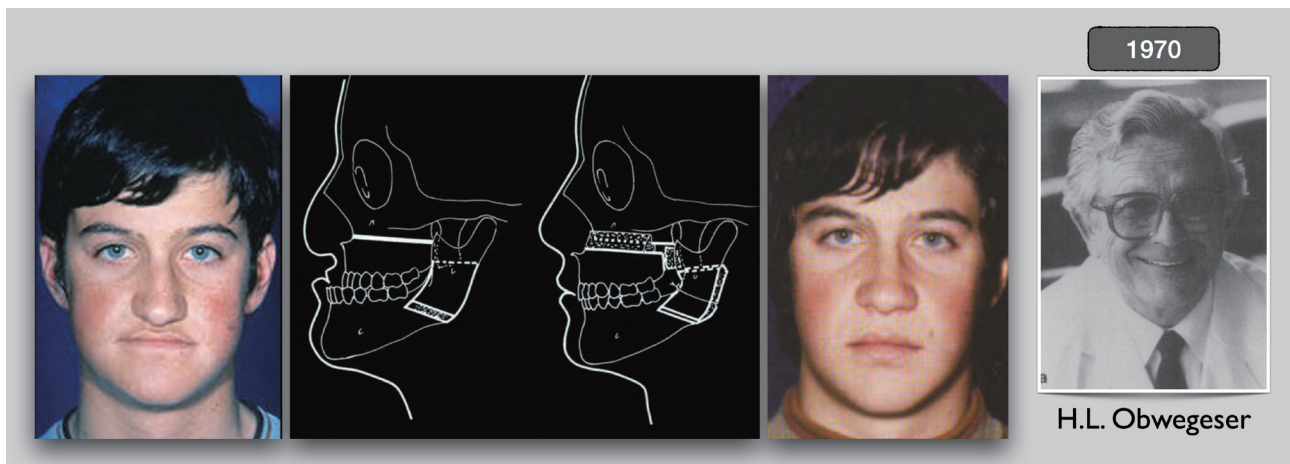


그림 14. Obwegeser가 1970년에 발표한 상악악 동시에 시행한 턱교정수술법의 모식도와 치료 전후 환자의 안모 사진.

VI. 대한민국 턱교정 치료법 발전과 관련 문헌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턱교정수술 문헌보고는 1963년 제1육군병원 치과 강호경 대위가 보고한 하악상행지 사선절골을 통한 주걱턱 환자 치험례였다(그림 15). 이 문헌에는 1961년에 민병일 대위가 제1육군병원에서 이 수술을 최초로 수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민병일 선생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직업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해 제1육군병원에 근무하면서 미국 의사들에게 턱수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1세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다. 그는 월남전 파병 이후 전역하고 1968년 서울치대 구강외과 교수가 되었다(그림 16).

斜骨切斷法에 의한 下顎前突症의 外科的矯正의 一症例

第一陸軍病院 齒科部 大尉 姜 鎬 璟

A case of the surgical correction of the prognathic mandible by the oblique osteotomy

First army hospital, Dental service

Hokyeong Kang, Captain, DC, R. O. K. A.

그림 15. 196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턱교정수술 보고문헌.



그림 16.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근무했던 민병일 대위(좌측 사진 맨우측). 민병일 대위가 악안면전돌 성형수술을 2시간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공시켰다는 내용의 1962년 동아일보 기사.

1977년 구외접근을 통한 vertical ramal osteotomy(VRO)로 주걱턱 환자를 최초로 수술하고 문헌 보고한 사람은 연세치대 윤중호 교수였다(그림 17). 서울치대 민병일 교수는 1978년에 상악전방부골절단술을, 1980년에는 무턱환자에게 최초로 아래턱 SSRO와 이부성형술을 시행하고 문헌 보고하였다. 또 1981년에는 민병일 교수가 Le Fort 1 osteotomy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였다.

수술교정치료에 관해서는 1982년에는 연세치대 유영규 교수가 문헌 발표한 것이 최초였다.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양악수술은 1984년에 이화여대 구강외과 김명래 교수가 시행하여 안면비대칭 환자를 치료한 증례를 학술문헌으로 발표하였다(그림 18). 경희치대 이상철 교수는 1985년에 IVRO를 시행한 것을 최초로 문헌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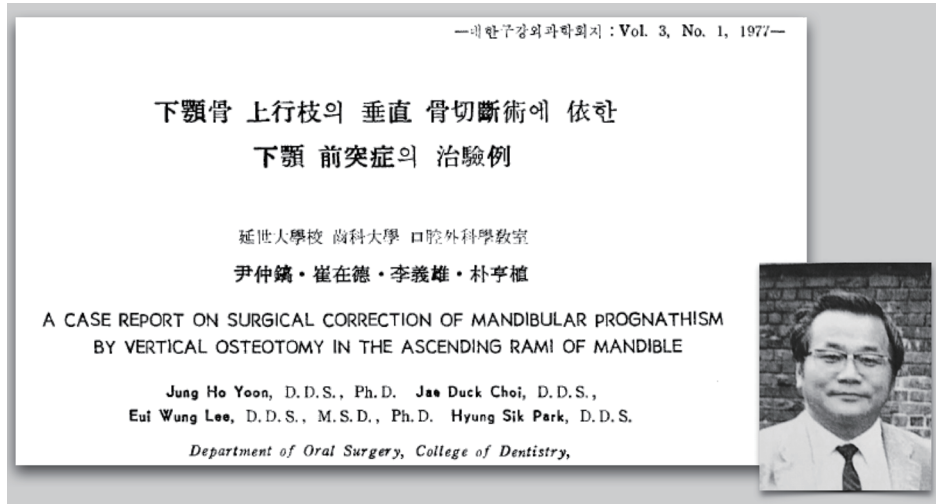


그림 17. 1977년 보고된 우리나라 최초의 vertical ramal osteotomy(VRO) 치험례 문헌과 이를 발표한 연세치대 윤중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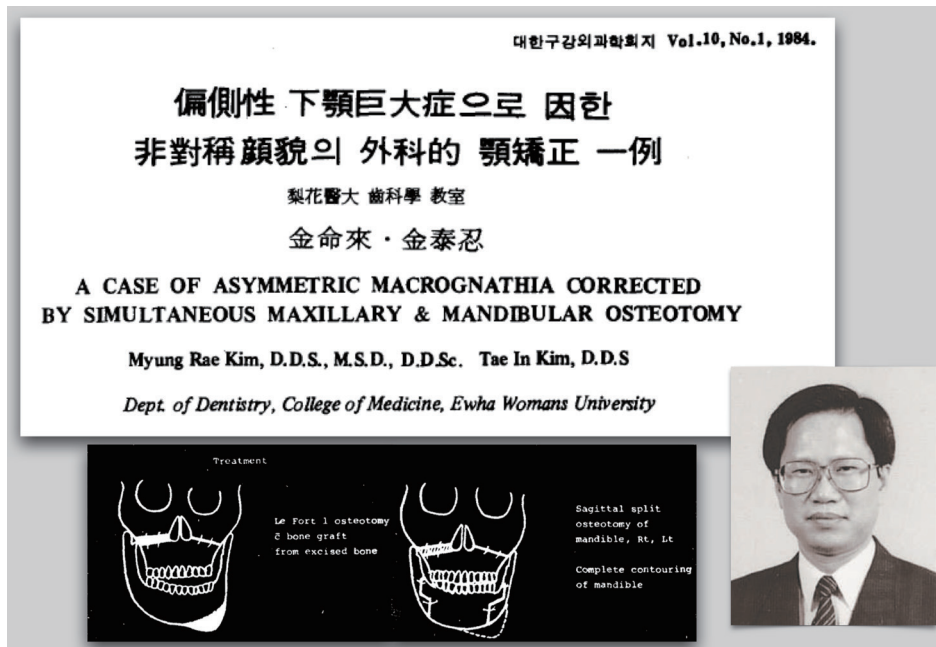


그림 18. 1984년 보고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하악 동시 시행 턱교정수술 치험례 문헌과 이를 발표한 이화여대 김명래 교수.

참고문헌

1. E.W. Steinhäuser, Historical development of orthognathic surgery. J Cranio-Maxillofacial Surg Vol.24(4)195-204, 1996
2. H.L. Obwegeser, Orthognathic Surgery and a Tale of How Three Procedures Came to Be: A Letter to the Next Generations of Surgeons. Cain Plant Surg Vol.34 331-355, 2007
3. F.B. Naini, D.S. Gill, Orthognathic Surgery: Principles, Planning and Practice. Germany: Wiley, 2017
4. 강호경, 사골절단법에 의한 하악전돌증의 외과적교정의 1증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4 No.1, 31-35, 1963
5. 윤중호 등, 하악골 상행지의 수직 골절단술에 의한 하악 전돌증의 치험례. 대한구강외과학회지 Vol.3 No.1, 1977
6. 민병일 등, Subnasal Premolar Osteotomy에 의한 상악골전돌증의 치험례.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지 Vol.1 No.1, 1978
7. 민병일 등, Genioplasty와 Saggital Split Osteotomy를 병용한 하악골 발육이상의 치험례.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지 Vol.1 No.1, 1978
8. 민병일 등, Le Fort 1 골절단술에 의한 상악골기형의 치험례.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지 Vol.3 No.1, 1981
9. 비대칭성 하악골 전돌증을 동반한 Angle씨 3급 부정교합의 치험 예.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12 No.1, 1982
10. 김명래 등, 편측성 하악거대증으로 인한 비대칭안모의 외과적 악교정 1례. 대한구강외과학회지 Vol.10 No.1, 1984
11. 이상철 등, 비대칭 안모의 intraoral vertical subcondylar osteotomy에 의한 치험예.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지 Vol.7 No.1, 1985

〈교신저자〉

- 권민수, DDS, MSD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0 3층 올소치과
- Tel : 02-542-3575, E-mail : preos@hanmail.net

묵재일기(默齋日記)의 치과기록 고찰

이 원 섭

Lee, Won-seop

I. 머리말

II. 이문건과 묵재일기

1) 의학 지식의 습득

2) 성주에서의 유의생활

III. 선행연구 고찰

IV. 묵재일기의 치과기록

V. 생활사적 고찰

VI. 맺음말

묵재일기(默齋日記)의 치과기록 고찰

우리가족치과의원
이 원 섭

Study of Dental Records in the Mukjae's Diary

Lee Won-seop
Our Family Dental Clinic

The Mukjae's Diary written by Lee Mun-Geon(1494-1567) whose byname was Mukjae, a nobleman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16th Century is a meticulously documented, reflecting the author's characteristically meticulous and honest record-keeping habits. It serves a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ying the lifestyle of the time. Notably, the diary contains more medical records than any other contemporary literature. The author's daily detailed records, written with his profound medical expertise, have become a valuable resource for research in the history of medicine. The dental records included in the diary describe dental diseases experienced by Lee Mun-Geon and those around him. They describe not only the symptoms of these diseases but also the treatment process and prognosis, is superior to existing literature in continuity and specific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dental records of the Mukjae's Diary and examines the perception of dental diseases, the presentation of symptoms, and the treatment process that Lee Mun-geon, a Confucian physician, observed and treated. Also examined the life history aspects of dental disease, focusing on the various records of daily life restricted by the pain of the disease.

Lee Mun-Geon's dental records, recorded with his profound medical insight, not only describe the location and nature of the disease, but also its progression and post-treatment status, providing relatively accurate dental information. Furthermore, the precise use of terminology facilitates cross-referencing and verification with existing medical literature. The diary describes various symptoms of dental diseases, which are still prevalent even in modern dentistry, and records various treatment methods that can be found in leading medical book of the time (Hyangyak-jipseongbang, Dongui-bogam). This demonstrates that Lee Mun-Geon treated dental disease with the same medical approach as other diseases. The dental records included in the Mukjae's Diary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the various aspects of pre-modern dental various aspects, which were previously largely confined to literary works or fragmentary official records.

Keywords: Dental disease, Joseon dynasty, Mukjae's Diary, Lee Mun-Geon, Confucian physician

I. 머리말

16세기 사족 이문건이 32년간 쓴 『묵재일기』는 저자 특유의 꼼꼼하고 솔직한 기록습관을 바탕으로 매우 정치하게 기록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특히 일기에는 동시대의 그 어떤 문헌보다 많은 의학 기록이 있는데, 저자의 높은 의학적 식견으로 기술된 거의 매일의 기록들은 의학사 분야의 좋은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기의 의학자료에 포함된 치과기록은 이문건 본인과 주변인이 겪는 치과질환에 관한 것인데, 질환의 증상변화와 치료과정에 대해 기술한 점은 기록의 구체성과 연속성에서 기존 문헌과 차별된다 하겠다. 본고는 『묵재일기』의 치과기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의학지식을 검비한 사대부인 유의(儒醫) 이문건이 관찰하고 치료해 보고자 애썼던 당시 치과질환에 대한 인식과 증상의 표현양상 및 치료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질환의 고통 때문에 제한되는 여러 일상생활의 기록에도 주목하여 치과질환의 생활사적 측면도 고찰해 보았다.

II. 이문건과 묵재일기

이문건(1494-1567)은 조선 중종, 명종대의 문신으로, 호는 묵재(默齋) 혹은 휴수(休叟)이다. 1513년 소과 진사시에 입격했으나 1519년 을묘사화의 피화자로 낙안(落安)에 유배되고 정거(停學)되었다. 정거가 풀린 다음해인 1528년 문과 등제후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 승문원 판교, 빈전도감 낭관등을 거쳐 1545년 정3품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해 을사사화때 장조카 이휘등이 주모자로 참형을 당하고 이에 연루되어 경상도 성주(星州)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끝내 해배(解配)되지 못하고 생을 마쳤다.

이문건은 젊었을때부터 일기를 썼다고 전해지는데 다만 현전하는 『묵재일기』는 그의 나이 42세때인 1535년 11월 1일부터 74세인 1567년 2월 16일까지의 약 32년간으로, 친필로 쓴 한문 일기이다. 이러한 일기는 중간에 결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약 18년 분량이 되며 보통 성주로 유배되기 전의 10년(현전 분량은 2년)과 유배기간 동안의 22년(현전 분량은 16년)으로 구분하며, 특히 유배기간 동안의 일기를 따로 유배일기로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묵재일기』는 방대한 분량, 기록의 세밀함과 연속성에 저자 특유의 솔직함이 더하여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는 현전하는 조선전기의 일기자료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의 다양한 생활상을 연구하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으며, 이는 역사, 민속, 의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16세기 사대부의 일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럼 이러한 의학사 연구의 훌륭한 자료인 『묵재일기』의 바탕이 되는 전문적인 의학 기록을 가능하게 했던 이문건의 의학 지식 습득의 시작과 성장 배경을 알아보고, 이렇게 익힌 의학지식을 더 발전시켜 주위에 의료기술로써 전달하게 되는 과정을 유배 전과 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학 지식의 습득

송시열(1607-1689)이 기술한 이문건의 행장(行狀)¹⁾에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먼저 세상을 뜬 두 형님들을 대신해 15년여를 홀로 간병하면서 의학에 정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특히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기 위함이 의학지식 습득의 계기였으며, 이는 다방면의 서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와 어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국조인물고 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2004;253-257.

려서부터 교육받은 뿌리 깊은 효의 실천 사상이 바탕이 된 결과였다.²⁾ 그러나 일기의 시작이 이문건의 나이 42세가 되던 어머니의 상(喪) 이후부터의 기록이므로, 행장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수준 높은 의학 지식의 습득은 유배전 한양의 관직생활동안 내의원(內醫院) 의관(醫官)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속화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관직에 있었던 이문건은 본인과 가족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직접 집에 초빙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기에는 박세거, 정학년, 문세련등 당대 명망있는 의관들이 등장하는데 유배 이후에도 몇몇은 이문건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다. 예로써 박세거³⁾는 유배지에 있는 이문건에게 그가 평소 복용하던 약(수중금환)을 자주 보내주며 안부를 묻는다.⁴⁾ 이문건은 후에 이런 박세거의 죽음을 전해 듣고 슬프다는 기록을 남긴다.⁵⁾ 이를 보면 의관들과의 교류가 유배 초기까지는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최신 의학적 지식에는 접근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성주에서의 유의 생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성주의 부실한 의료환경은 이문건을 더욱더 의학에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유배지에서 대가족⁶⁾을 이끄는 가정에서는 부인을 포함한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돕는 노비들의 건강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⁷⁾ 이러한 의료부실은 의서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해당 지역 사대부들이 스스로 의학 지식을 높이면서 직접 의료에 참여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문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약재 확보나 의서 수집에 힘을 쏟는 모습은 일상이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더욱 향상된 이문건의 의학 실력은 성주목 관리를 포함한 지역 사족부터 노비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학 자문에 응하고, 의생들이 물어오는 치료나 약의 제조에 대한 질문에 응하며, 다른 지역에서 요청을 받아 왕진을 가는등의 일기 기록을 보면 높은 의료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⁸⁾

III. 선행연구 고찰

이⁹⁾는 고려시대 문집을 통해 당시의 안과,피부과,치과 질환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심한 치통으로 고생하는 당시의 문인 이규보와 이색이 이를 시(詩)를 통해 표현한 바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당시의 의서 『향약구급방』의 치과부분에 있는 치과치료 방법(양치법, 함수법, 약제를 물고 있는 방법, 찜질법)을 중국의 의서와 비교, 대조한 바 있다. 어¹⁰⁾는 고려시대 한시에 나타난 소갈병(당뇨병), 요통, 치통, 눈의 질환인 안질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치통으로 고생하는 당시의 문인 이규보, 안축, 이색이 시를 통해 표현한 치통의 양상과 이의 해소를 위해 이를 뽑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해결하기 힘든 치과질환이 치아상실로 이어져 저작장애뿐만 아니라 외모의 변화에

2) 신동원, 미시사 연구의 방법과 실제: 이문건의 유의일기(儒醫日記), 의사학, 2015;24(2):399-401.

3) 1542년 왕명에 의해 『분문온역이해방』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4) 『목재일기』 1545년 12월 2일.

5) 『목재일기』 1548년 1월 7일.

6) 이문건이 받은 유배형은 “관향안치형”으로, 본인의 관향인 성주로 유배지가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성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7) 이문건은 1545년 9월말 배소 성주에 도착하여 유배생활을 시작했고, 다음해 초 보다 넓은 집이 마련된 후 부인과 아들내외, 노비들이 합류했다. 이때 가내 사환노비는 30여구가 넘었으며, 이후 6명의 손자, 손녀들도 차례로 출생하게 된다. 이문건에게는 유배지에서 이런 대가족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항상 직면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기에는 한양만 바라보며 신세한탄을 하는 적객의 이문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성주의 현실 생활을 이어가고, 후세를 위해 처가가 있는 충북 괴산에도 자리를 마련하는등 몸이 불편한 외아들을 대신해 가장의 역할을 도맡다시피 한다.

8) 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士族의 醫療 활동 - 경상북도 星州의 李文樾 사례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13(2):17-25. 특히 이문건이 확보한 의서중에는 중국 명대(明代)에 간행된 의서도 있어서 그 노력을 짐작하게 한다.

9) 이현숙, 고려 일상생활 속의 질병과 치료-안과, 피부과, 치과 질환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2008;20:177-206.

10) 어강석, 고려시대 한시에 나타난 ‘질병(疾病)’에 대한 의식과 치유 방식, 포은학연구, 2023;30:107-145.

다른 심리적 상실감을 표현한 점에 주목하였다. 정 등¹¹⁾은 고려시대 의서 『향약구급방』의 구설순치(口舌脣齒)에 관련된 부분에서 치과질환의 치료법에 관해 고찰하였는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향약(鄉藥)으로 조제한 외치약, 내복약을 사용하고 침구법도 이용하여 치료했음을 밝혔다. 이중에서 주로 치료하는 방법인 외치법중에서 양치법을 중시하는 의서의 특징을 통해 예방과 양생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특징도 아울러 논하였다. 특히 『향약구급방』의 치과질환별 약재의 치료방법을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의 대표 의서 『향약집성방』, 『동의보감』과 비교한 점은 주목된다.

이처럼 개인의 사적인 일기가 등장하기 전인 고려시대에는 주로 시가를 통한 치과질환의 표현 양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조선시대 간행된 의서를 통해 치과질환의 원인과 치료를 고찰해 보는 연구가 있는데, 장¹²⁾은 조선시대 대표 의서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서 치아를 포함하는 잇몸에 연결되는 경락(經絡)의 차이점과 이로 인한 치과질환의 발병 원인을 보는 인식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이런 차이가 치과치료에 있어서 『향약집성방』의 외치법 중시와 『동의보감』의 내치법(내복약 복용) 중시의 차이점을 만들을 고찰하였다.

김¹³⁾은 『향약집성방』에서 언급한 치과질환의 병증 16가지를 밝히면서, 각각의 병증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외치법들과 이에 사용되는 약재를 사용빈도별로 고찰하였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외치법인 함수법, 약을 가루로 만들어 붙이는 법, 양치법, 약물을 구멍에 넣거나 씹는 방법등을 현대 치료법과 연계하여 설명한 점이 주목된다. 조선시대에도 정약용의 시처럼 치과질환의 고통을 담은 문집¹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 자료는 없는 것 같다. 김 등¹⁵⁾이 조선 27대 국왕 순종의 질병에 관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고찰한 연구에서도, 서양식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근대 후기임에도 치과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관이나 일본인 양의가 진료했다는 기록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진료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국왕의 건강에 대한 공적인 기록의 특성상 가급적 구체적인 질환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이전의 치과질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의서를 통한 고찰이 대부분이었으며, 구체적인 질병의 양태나 진행과정 및 치료사례를 보여주는 문헌은 찾기가 힘들다.

IV. 묵재일기의 치과기록

이문건은 직접 자신이 겪고 있는 치과질환을 거울¹⁶⁾을 보면서 기록한 듯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음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으로 보이는 일기의 기사이다.¹⁷⁾

열이 치솟아 왼쪽 이가 흔들리며 아프고, 위 잇몸에는 염증이 퍼져서 아팠다.	上熱左齒搖痛, 上齶瘡爛作痛。 ¹⁸⁾
치통이 있다. 잇몸이 썩어 구멍이 나고 이 가운데 색깔이 검은 것이 많으니, 장차 반드시 빠질 것이다.	齒痛。齶腐有孔, 齒心色黑者多, 將必墮落也。 ¹⁹⁾

11) 정유용 외, 鄉藥救急方의 口舌脣齒 질환에 관한 고찰, 韓國醫史學會誌, 2008;21(2):79-93.

12) 장영희, 鄉藥集成方과 東醫實鑑의 齒科疾患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38-41.

13) 김용진,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치문(齒門)의 외치법(外治法)에 관한 연구(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28(4):65-77.

1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6권 詩 老人一快事六首. 效香山體.

15) 김훈 외, 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59

16) 『묵재일기』에는 이문건이 거울을 보며 용모를 정리하거나, 노비나 장인(鎭匠)을 시켜 거울을 깨끗이 닦고 관리하는 기사들이 보인다.

17) 본고에서 활용한 『묵재일기』의 국역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묵재일기』 교감 및 역주사업(2014-2018)' 과 『역주 묵재일기』 1-4권 (김인규 옮김, 민속원, 2018)을 참고하였다. 번역문에 있는 괄호안의 한자는 필자의 판단하에 수정하였으며, '齒'와 '牙'는 번역본에 '이', '치아', '어금니' 등으로 혼용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어감을 살리고자 '이', '어금니'로 통일하여 표기했음을 밝힌다.

18) 『묵재일기』 1551년 9월 4일. 이후에는 일자만 표기하기로 한다.

19) 1555년 11월 11일.

위의 두 기사에서만 치과질환을 표현한 용어는 搖(흔들린다), 痛(아프다), 瘡(궤다), 爛(썩다, 문드러지다), 腐孔(썩어서 구멍이 나다), 色黑(썩어서 흑색이 되다), 墮, 落(떨어지다, 탈락하다)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표적인 치과 호발 질환에 대한 표현은 현대 치과진료실에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소(cheif complaint)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문건은 치아의 통증이나 흔들림 뿐만 아니라, 치통이 퍼지는 부위와 연조직 병소등을 관찰하면서 증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기록했는데, 사용된 용어를 해당 질환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치통	痛, 疼 (아프다)	치아 탈락	脫, 落, 墮 (탈락되다, 떨어지다)
우식증	黑(흑색)	연조직 병소	舌粟(혀의 좁쌀모양 병소) 瘡(궤다)
치은부종	腫(종기가 나다) 浮(붓다)	방사통	連, 偏 (이어지다, 치우치다)
치아동요	搖, 動 (흔들린다, 움직인다)	치은충혈, 출혈 발열감	瘀(어혈지다), 血出(피가 난다) 熱(열감이 있다)
누공형성	膿(농이 나오다) 爛, 腐, 宣(문드러지다, 썩다)	구취 구강건조	口臭(입냄새가 난다) 焦(입이 마른다)

위와 같이 다양한 단어를 통해 질환의 증상을 표현함과 더불어 증상이 있는 해당 치아의 위치도 자세히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다음은 통증이 있는 위치를 기록한 기사들이다.

요사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가 통증이 있어 밥을 먹을 때는 더 괴롭다.	近有右邊齒痛, 當食尤苦。 ²⁰⁾
치통이 요사이 더욱 심해졌다. 오른쪽 앞니가 아프고 들떠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거의 빠지려 한다.	齒病近日尤甚。右板齒痛浮, 無根幾落。 ²¹⁾
오른쪽 끝의 윗니 가운데 안에서부터 세 번째가 더욱 흔들리고 그 뿌리 쪽 잇몸이 다 짓물렀다.	右邊上齒自內第三尤搖動, 其根肉盡爛。 ²²⁾
오른쪽 아래 끝쪽의 깊은 이가 흔들린 지 오래되어 음식을 먹는데 방해가 된다.	右邊下奧齒, 動搖已久, 妨于食物。 ²³⁾

허준의 저서 『동의보감』에는 치아의 각기 다른 이름을 기술하면서 ‘板齒’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이를 보면 두 번째 기사에서 이문건이 표현한 앞니는 중절치로 보인다. 다른 기사에서 나온 ‘邊齒’, ‘奧齒’는 의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글자의 뜻으로 보아 대구치 혹은 소구치를 표현하려 한것으로 보인다.

입의 앞쪽에 있는 2개의 큰 치아를 앞니(板齒)라고 하고, 그 양 옆의 긴 치아를 아(牙)라고 한다. 통틀어 치(齒)라고 한다. 치아의 뿌리를 잇몸(齦)이라고 하는데 아상(牙床)이라고도 한다.	口前兩大齒, 謂之板齒, 其兩傍長者, 謂之牙, 通謂之齒. 其牙齒之根, 謂之齦, 亦曰牙床。 ²⁴⁾
---	---

20) 1554년 5월 10일.

21) 1557년 12월 7일.

22) 1558년 6월 17일.

23) 1558년 윤7월 22일.

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www.kiom.re.kr 『동의보감』 외형편 권2 齒牙 牙齒異名(치아의 다른 명칭)

치아의 위치 기록과 함께 치과질환이 진행되면서 심해지는 통증이 치아와 치주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부로 퍼지면서 두통을 발생했던 경우도 기록을 했는데, 다음의 기사들은 이런 방사되는 통증 부위를 표현한 것이다. 치통으로 인해 머리까지 아픈 두통이 생겼는데, 두 번째 기사는 이런 통증이 태양혈이 있는 관자놀이 부근에서, 세 번째 기사는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있는 귀밑털(鬢) 부위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치통으로 괴로운 것이 머리까지 이어져 아팠다.	苦齒痛, 連頭爲患。 ²⁵⁾
요사이 윗니의 치통을 앓느라 고통스럽다. 아픈 것이 태양혈 근처까지 이어진다.	近日苦患上齒痛。痛連太陽穴近處。 ²⁶⁾
왼쪽 윗니에서 열이 나고 아프더니 이것이 귀밑까지 이어져 아주 고통스럽다.	左上齒熱而痛, 痛連于鬢, 苦甚。 ²⁷⁾

심해지는 치과질환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통증과 흔들리는 치아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한다. 또한 성주 지역 사족들과의 모임에도 불참할 정도로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데, 다음은 이를 표현한 기록이다.

요사이 윗니의 치통을 앓느라 고통스럽다. 먹고 마시는 것에도 방해가 되며 찬 것을 먹으면 더 아프다.	近日苦患上齒痛。 ²⁸⁾
그저께 밤과 어제 밤은 치통때문에 편안히 자지 못했다.	昨昨夜及昨夜, 因齒痛寢不安。 ²⁹⁾
윤대승 ³⁰⁾ 이 다시 와서 만났는데, 모임에 오기를 청한다고 했으나, 치통 때문에 사양했다.	尹大升復來見, 請來繞云云, 辭以齒痛。 ³¹⁾

위와 같이 이문건은 본인의 치과질환을 비교적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는 이문건 본인외에 가족이나 주변인의 치과질환에 대한 기록들도 소략 보이는데, 직접 보지 않고 전해 들은 증상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이문건의 부인(안동김씨)과 손자가 겪은 구강내 연조직 증상의 기록이다.

낮에는 오른쪽 뺨에 갑자기 종기가 났는데, 입 안의 종기 난 곳을 손가락으로 찌러 거죽을 터트리자 피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그 색이 검붉었는데, 많이 흘러고 나니 종기는 평평해졌다 한다.	午, 於右腮忽腫, 以指探口內腫處皮破, 血迸出注於口外。其色紫黑, 多出腫平云云。 ³²⁾
---	---

부인 안동김씨는 구강내 혈종(hematoma)으로 보이는 신생물을 임의로 터뜨렸는데, 이를 전해 들은 이문건은 그 과정을 보이듯이 자세히 적고 있다.

일기에 기록된 주변인의 치과기록중 가장 많은 인물은 이문건의 손자³³⁾인데, 유배지에서 태어난 손자는 할아버지

25) 1555년 11월 9일.

26) 1556년 8월 29일.

27) 1561년 5월 6일.

28) 1556년 8월 29일.

29) 1554년 5월 12일.

30) 윤대승(1533-?)은 이문건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교유한 성주의 사족이다. 일기에는 이문건에게 가족이나 주변인의 질병에 쓸 약을 물어보거나, 의서를 빌려가기도 하면서 의학 자문을 구하는 기록이 많다.

31) 1558년 4월 27일.

32) 1552년 9월 24일.

33) 이문건은 배소 성주에서 나이 58세에 손자 숙길을 얻었는데, 몸이 불편한 외아들(이은)이 낳은 하나뿐인 손자는 두 차례의 사화로 쇠락한 집안을 일으키고 대를 이어가야 한다. 이런 손자를 정성으로 양육하면서 그 기록을 따로 『양아록』에 담기도 했다.

가 생을 마칠때까지 16년간을 함께 생활한다. 출생 직후부터 할머니와 유모 손에 자라고, 5세부터는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³⁴⁾ 쉽게 입안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손자의 하악 유전치(幼前齒) 맹출을 보고 적은 기사이다.

숙길에게 아래쪽 앞니 2개가 나기 시작했다.	淑吉齒前下二介始出。 ³⁵⁾	생후 6개월
숙길의 아랫니 두 개가 이미 나왔다.	淑吉下兩齒已露出。 ³⁶⁾	
숙길은 아랫니도 4개라 한다.	吉也下齒亦稱四矣。 ³⁷⁾	생후 1년

손자의 유전치 맹출에 대한 관찰 기록은 이문건의 또 다른 문집 『양아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7월초 이가 돌아나는 흔적이 보이고, 보름께 뽀족하게 드러나고, 그믐께 점점 자라났다.	七月初, 迹萌, 望時, 尖露, 晦時, 稍長。 ³⁸⁾	생후 6개월
9월초 윗니 2개가 처음 났다. 10월초에 윗니 오른쪽 1개가 더 났다. 11월 열흘께 왼쪽 1개가 더 났다.	九月初, 上齒二箇始生。 十月初, 上齒右傍一箇添。 十一月旬後, 左一箇復添。 ³⁹⁾	생후 9-11개월

이러한 손자가 만 7세 되는 겨울에 열흘 정도 심한 입병을 앓았는데, 이 또한 증상의 변화나 치료하기 위한 약을 손자에게 먹이면서 세심하게 기록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숙길은 요사이 혀 왼쪽에 붉은 좁쌀만한 종기가 돌아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한다. 오늘은 더 아프다며 밤에는 울었다.	淑吉近日舌左生赤粟, 痛不能食食。 今日尤痛云, 夜泣。 ⁴⁰⁾
숙길은 저녁에 혀에 난 종기가 터져 아파했다. 한기가 들어 옷을 꺼입었는데, 밤에는 얼굴이 빨개지며 더 아파했다. 죽엽탕을 먹고 안신환 약간을 씹어 먹게 했다.	吉夕痛舌粟之破。灑寒加衣, 夜面赤加痛。 令服竹葉湯, 嚼安神丸少許。 ⁴¹⁾
손자가 혀에 난 종기의 통증으로 괴로워하며 때론 소리 내어 울기까지 한다. 아침 일찍 지보단 1개를 주어 씹어 먹게 하고 죽엽탕을 마시게 했다.	孫苦舌粟之痛, 時至於啼泣。 早與至寶丹一介, 嚼服之, 飲以竹葉湯。 ⁴²⁾
아이의 혀는 어제보다 조금 나았지만 짠 것은 먹지 못한다. 숙길이 혀에 난 종기 때문에 아파서 울려고 하며 편히 자지 못했다.	兒之舌比昨少止, 然不得食鹹。 吉兒舌痛生粟欲啼, 寢不安。 ⁴³⁾
숙길은 혀에 난 종기로 여전히 아파한다.	吉兒舌粟猶痛。 ⁴⁴⁾
손자의 혀 종기는 차도가 없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음식을 먹었는데, 밥은 제 때 먹지 않았다고 한다.	孫舌粟不差。 今日雜喫, 而飯則不以時食云。 ⁴⁵⁾

34) 이문건은 가족과 노비들이 거처하는 하가(下家)에서 거리가 있는 지대상 위쪽인 상가(上家)에서 생활하였고, 손자의 나이 5세부터는 직접 데리고 자기 시작했다. 일기에서 숙길과 관련된 기록은 출생 이후 그리 빈번하지 않았으나,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등장하고 있다.

35) 1551년 7월 7일.

36) 1551년 7월 9일.

37) 1552년 1월 11일.

38) 이문건, 이상주 역주, 『양아록』, 태학사, 1997, 34.

39) 이문건, 이상주 역주, 위의 책, 36.

40) 1558년 12월 26일.

41) 1558년 12월 27일.

42) 1558년 12월 28일.

43) 1558년 12월 29일.

44) 1558년 12월 30일.

45) 1559년 1월 1일.

손자의 혀 종기는 차도가 없다. 이게 아프다며 잘 먹지 않는다. 저문 후에 청심환 반개를 씹어 삼키고 죽엽탕을 마셨다.	孫舌粟不差, 痛此少食。 昏, 用清心半丸嚼下, 飲竹葉湯。 ⁴⁶⁾
손자가 혀의 통증으로 책을 덮고 공부하지 않았다.	孫因舌痛, 廢書不習。 ⁴⁷⁾

이와 같은 8일간의 연속된 기록은 며칠전부터 혀에 좁쌀만한 종기가 생기면서 시작된 통증이 종기가 터지면서 더욱 심해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자고, 공부도 못하는 손자를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먹이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모습이다. 이런 손자의 증상은 바이러스 감염(viral infection) 이후 발생한 급성 구내염으로 보이며, 이는 다발성의 작은 수포 형성후 곧 파괴되어 궤양이 형성되고 이는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혀 위쪽의 여러개의 수포를 이문건은 붉은색의 ‘舌粟’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성 구내염의 통증은 10일 전후로 서서히 나아지는데, 3일 후의 일기에서는 입안의 통증이 없어진 듯 손자가 예전처럼 선달 그믐의 행사(나희)때 뛰어노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숙길이가 나희를 좋아하여 뛰고 구르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밥 때도 알지 못했다.	淑吉好爲儺戲, 踴躍不慚, 乃不知食時。 ⁴⁸⁾
손자가 노느라 글공부를 하지 않았다.	孫兒戲遊, 不學。 ⁴⁹⁾

이렇듯 이문건은 치과질환의 증상 변화를 며칠에 걸쳐 관찰하여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치료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일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과질환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이의 과정을 적은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은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 내복약인 청위산과 삼황원을 조제하여 7일간 복용한 기사이다.

청위산을 짓고 이를 달이게 하여 저문 후에 먹었는데, 치통을 다스리려고 한 것이다.	合清胃散, 令煎之, 昏乃服之, 欲治齒痛。 ⁵⁰⁾
저문 후에 청위산을 먹었다. 어제도 먹었는데, (어제) 다시 2복을 지은 것이다.	昏服清胃散。昨日亦服, 復合二服。 ⁵¹⁾
저물자마자 청위산을 먹었다	昏初服清胃散。 ⁵²⁾
저문 후에 청위산을 먹었다.	昏, 服清胃散。 ⁵³⁾
낮에 삼황원 20여개를 먹었는데, 설사는 하지 않았다.	午, 服三黃元升餘介, 不注。 ⁵⁴⁾
아침에 삼황원 20여환을 먹었다.	朝服三黃元升餘丸。 ⁵⁵⁾

이후 약 복용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8일 후의 일기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삼황원 20여환을 먹은것과 이는 여전히 아프다는 기록을 남긴다.

어제와 오늘 아침에 삼황원 20여환을 먹었다. 이는 여전히 아프다.	昨與今朝, 服三黃元升餘丸。齒病猶甚。 ⁵⁶⁾
---------------------------------------	------------------------------------

46) 1559년 1월 2일.
47) 1559년 1월 3일.
48) 1559년 1월 6일.
49) 1559년 1월 7일.
50) 1558년 4월 26일.
51) 1558년 4월 28일.
52) 1558년 4월 29일.
53) 1558년 4월 30일.
54) 1558년 5월 1일.
55) 1558년 5월 2일.
56) 1558년 5월 10일.

본인의 치통 치료를 위해 복용한 삼황원을 손자 숙길의 잇몸에 생긴 부종이나 혀에 난 설속(舌粟)의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했는데, 환의 갯수를 줄인 점이 눈에 띈다.

손자는 내열이 있고, 치아가 검고 이뿌리에 종기가 나서 피가 흐른다.	孫有內熱, 齒黑根腫血出。 ⁵⁷⁾
손자 아이의 이뿌리에 난 종기가 터져 피가 났다. 황련, 대황을 의생에게 보내 삼황원 약간을 지어왔다.	孫兒齒根腫脫血出。 送黃連, 大黃于醫生處, 劑三黃元少許來。 ⁵⁸⁾
숙길로 하여금 삼황원 10여개를 먹게 했다.	令吉服三黃元十餘介。 ⁵⁹⁾
숙길에게 삼황원 5개를 먹였는데, 숙길의 혀에 붉은 좁쌀같은 종기가 생겨 아파했기 때문이다.	令吉服三黃元五介, 吉有舌生赤粟之疼。 ⁶⁰⁾

위의 첫 번째 기사에서 손자의 내열을 언급한 점은 손자의 잇몸과 혀 질환의 원인을 장부(臟腑)의 적열(積熱)⁶¹⁾로 보고,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삼황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황원의 조제를 위해 의생에게 보낸 황련, 대황등은 이를 위해 사용되는 약재이며, 이문건이 치통 해소를 위해 복용한 청위산에도 가미(加味)되는 약재이기도 하다.⁶²⁾ 이렇게 손자를 치료한 후, 20여일 뒤의 일기에서도 역시 손자의 내열을 언급하며 악화된 증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손자는 내열이 있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어금니 뿌리는 드러나 보인다.	孫有內熱, 口臭牙根宣。 ⁶³⁾
---	-----------------------------

이문건은 치료의 약재로 승마(升麻)를 이용하여 이를 내복약으로 만들지 않고, 물에 끓여서 달인 액상(液狀)으로 만들어 양치하는 외치법의 하나인 함수법(含漱法)을 사용하기도 했다. 외치법은 내복약 대신 약재를 고제(膏劑) 또는 탕제(湯劑) 및 산제(散劑)등으로 만들어 이를 피부나 호흡기등에 적용하여, 다양한 자극의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약을 복용하는 내치법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⁶⁴⁾ 함수법은 이런 외치법의 기전이 적용된 방법이다.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는 것이 날로 심하다.	齒齦腫膿日甚。 ⁶⁵⁾
승마를 달여서 양치질을 하고, 열란을 다스렸는데, 효과가 조금 있었다.	煎升麻漱牙, 治熱爛也, 有小效。 ⁶⁶⁾

57) 1558년 2월 3일.

58) 1558년 2월 4일.

59) 1558년 2월 6일.

60) 1558년 2월 7일.

61) 한국한의학연구원, 앞의 인터넷 자료, 『동의보감』 외형편 권2 牙齒, 牙齒痛有七(7가지의 치통); ‘치통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胃) 속의 습열이 올라와 치아와 잇몸 사이로 나왔을 때 풍한에 맞거나 찬것을 마셔서 길이 막혀 습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이다. 한은 표가 되니 밖으로는 맵고 따뜻한 약으로 치아를 문지르거나 양치하고, 열은 본이 되니 안으로는 맵고 차가운 약을 복용하여 열을 흩어준다.’

62) 박용호 외, 齒痛의 處方에 대한 文獻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6;14(1):69.

63) 1558년 2월 27일.

64) 문우상 외, 外治療法의 理論과 適應症에 대한 史的 考察,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4;10(2):2-3.

65) 1555년 2월 4일.

66) 1555년 2월 6일.

이런 함수법은 증상에 따라 차게 해서 머금거나, 뜨겁게 데워서 머금다가 식으면 뱉는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머금고 있다가 마시기도 한다. 승마는 치아를 닦는 방법인 개치법(揩齒法)의 약재로도 활용되는 등,⁶⁷⁾ 비교적 구하기 쉬운 향약으로 치과질환에 자주 사용된다.⁶⁸⁾

이문건 일기의 솔직함은 다음의 기사들에도 보인다. 부은 잇몸을 침으로 찔러 배농하려다 주저하고, 흔들리는 치아를 탈락 걱정애 실로 묶어보기까지 하였다. 결국 식사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러서는 결국 스스로 실로 묶어 뺐다는 기록도 가감없이 일기에 남기고 있다.

이가 흔들리는 것이 날로 심해 어금니 사이 부어오른 곳에 침을 놓아보려 했으나, 손수 찌르지는 못했다.	齒搖日極, 試針牙間腫處, 自手不能刺矣. ⁶⁹⁾
오른쪽의 안쪽 세 번째 윗니가 더 흔들리고 그 뿌리 쪽 살점이 다 짓물렀는데, 바깥으로 겨우 한 번 껌매 약간 이어 붙였더니 빠지지 않는었다.	右邊上齒自內第三尤搖動, 其根肉盡爛, 只外一縫少許連接, 故不落. ⁷⁰⁾
오른쪽 아래의 안쪽 이가 흔들린 지 오래되어 음식을 먹는데 방해가 되기에, 줄로 묶어서 당겼더니 즉시 빠졌다.	右邊下奧齒, 動搖已久, 妨于食物. 以繩束而引之, 卽落. ⁷¹⁾

V. 생활사적 고찰

이문건이 1545년 을사사화의 피화자로 유배될때의 나이는 52세로 중년을 이미 훌쩍 넘은 나이에다 가족을 모두 이끌고 그동안의 삶의 본거지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부실한 성주로 가야 했기에 본인을 포함한 대가족의 건강은 당면한 과제였을 것이다. 유배일기에서 의학기록이 매우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하기도 한다.⁷²⁾ 결국 이런 상황이 다른 문헌에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치과기록도 남긴 셈이다.

『목재일기』에서 치과기록은 유배 다음해부터 생을 마치기 4년전까지 확인되는데(1546-1563) 유배 이전 10년(1535-1545)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는 유배전 10년간의 일기가 많이 결락되어 현존 2년여뿐인 영향도 있을 것이나,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⁷³⁾ 궁중 내의원 의관들과의 교류가 많고 쉽게 집으로 초빙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안한 의료환경이 의학에 대한 적은 갈구에서 비롯한 의료 기록의 소홀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바쁜 관직생활과 이의 기록에 좀 더 치중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⁷⁴⁾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치과기록의 약 2/3 가량은 이문건 본인에 관한 것인데, 직접 거울을 들여다보면 입안을 자세히 관찰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소인 성주에는 내의원에서 파견되는 실력있는 의관인 교유(敎諭)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른 목(牧)단위 지방정부처럼 10-14명 정도의 의생(醫生)을 두었는데, 의생의 의학수준은 높지가 않았고,⁷⁵⁾ 신분상 이문건의 입안을 검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공교롭게 치과기록이 시작되기 두어달 전부터

67) 김용진, 앞의 논문, 2015, 74-76.

68) 박상남, 東醫實鑑 中升麻가 配伍된 方劑의 活用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53.

69) 1558년 6월 9일.

70) 1558년 6월 17일.

71) 1558년 윤7월 22일.

72) 김성수, 목재일기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연구, 2013;24:38.

73) 1545년 9월 유배형이 내려질 때 최종 관직은 동부승지(정3품)였다. 이에 성주에서는 승지(承旨)로 불렸다.

74) 특히 동부승지에 낙점되는 날부터의 일기는 '정원(政院)일기'에 있다고 일기에 밝혔는데(1545년 4월 23일), 현전하지 않는다.

75) 김성수, 16세기 鄕村醫療 實態와 士族의 대응, 한국사연구, 2001;113:31-34.

심해지는 노안⁷⁶⁾과 눈의 질병으로 1563년 9월에는 우측 눈은 실명되고, 좌측 눈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는데,⁷⁷⁾ 이 후의 치과기록은 찾을수 없다.

또한 주변인의 치과기록중 대부분은 손자의 기록이다. 이른 해배(解配)가 어려워짐을 느끼는 이문건에게 나이 58 세에 몸이 성치 못한 외아들이 낳은 하나뿐인 손자는 이문건에게는 유배생활을 버티는 힘이 되었음을 물론이다. 손 자가 하가에서 할머니, 어머니와 지내며 유모에 의해 양육될때도 자주 손자를 보고 왔으며, 손자의 나이 5세경부터 는 자신의 처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였으므로 직접 손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입안을 들여다보면서 치아 상 태도 확인했을 것이다. 다음은 손자의 나이 6세가 되는 즈음에 하악 중절치가 맹출하면서 설측에서 보이는 것을 보 고, 걱정을 하며 손자보다 17살, 7살 위인 중형제들과 부인, 유모에게 물어보는 심정은 부모의 그것과 다를바 없다.

숙길의 아랫니 2개가 뿌리 안에서 스스로 자랐으나 스스로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 났던 2개가 흔들리며 흰 것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들이 이가 빠지는 것에 대해 무 심하여, 미리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정오에 스스로 줄 한가닥을 잇몸 바깥쪽에서 물게 했더니 두 개의 부었던 이가 빠 지고, 피가 나자 울었다. 돌금⁷⁸⁾이가 보더니 안에 이가 벌써 새로 났다고 했다. 물로 행구고 내게 와서 보여 주었지만, 나는 다쳤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마 볼 수가 없었는 데, 그 안쪽 이빨이 이미 난 것을 들어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안정이 되었다. 또 이빨이 빨리 나면 예쁘지 않을까 걱정되어 노성⁷⁹⁾ 등에게 물었더니, 수기⁸⁰⁾가 말하기를, “저도 6살부터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다. 아내와 함께 이야 기할 뿐이다.	淑吉下二齒自生根內,而不自知之,初生二介搖動有素云云。吾輩無心於壞齒,故不曾看審。當午自將一條繩齧斷外,二齒浮落,血出而啼。至今見之,則內齒已生矣。漱水來示于予,予疑傷墮,心極未安,不忍見之,問聞知其內齒已自生,而後始定。 更疑速生齒爲非嘉,問老成等,則壽祺曰“吾亦六歲始落”云云。與妻氏共言而已。⁸¹⁾
--	---

또한 손자의 기록 대부분은 나이 7-8세경에 집중되는데,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진행된 우식증과 구치부 맹출시기가 겹친 양상으로 짐작된다.

숙길의 어금니가 검은색이 되고 아래쪽 뿌리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니 열병이 있는 듯하다.	吉兒牙生黑色,下片根肉脫,似有熱患。⁸²⁾
숙길의 이가 검게 변하고 잇몸도 빨갱게 핏기가 돌며 입술이 찢어졌다.	吉齒着黑,齦亦瘀紅,唇裂。⁸³⁾

이렇듯 이문건은 치과질환의 여러 양상을 관찰하면서, 치아동요나 치통으로 인한 수면이나 저작장애뿐만 아니라 이로 야기되는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음은 집안의 노비들이 치통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일기이다.

76) 1546년 3월 27일.

77) 윤1563년 9월 19일.

78) 이문건의 비(婢)로 이때 손자를 키우던 유모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유모가 성품이 마음에 안들어 바꾸기도 하고, 유모가 사망하기도 하면서 몇차례 바꾸고, 이때의 돌금은 손자가 젖을 떼 시기여서 말아서 키우는 정도였다.

79) 이문건 백형(이흥건)의 손자이다.

80) 이문건 중형(이충건)의 손자이다.

81) 1556년 12월 23일. 손자는 1551년 1월 5일생이므로 만 6세경이다.

82) 1558년 1월 21일.

83) 1558년 1월 29일.

비 삼월이 어금니가 아파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婢三月牙疼不事事。 ⁸⁴⁾
방실이 치통을 핑계로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는다.	方實托齒痛出他, 不事事。 ⁸⁵⁾

삼월은 이문건의 한양살이 시절인 1536년부터 1563년까지, 27년여에 걸쳐 일기에 매우 오랫동안 등장하는데, 밑에 어린 비(婢)들을 두고 집안의 부엌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이 때문인지 삼월이 일을 못하는데 대한 답답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방실은 이문건 비의 남편인데 이문건 처가가 있는 충북 괴산과 성주를 오가며 노주 이문건의 일을 거들거나 심부름을 하곤 했다.

치통으로 공부에 소홀한 종손자 역시 이문건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인데, 다음 3일의 연속된 일기는 4촌 손자인 수기가 치통으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증상이 좋아져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일기이다.

천택은 『맹자』를 열심히 읽었고, 수기는 치통으로 글공부를 하지 못했다.	天澤『孟子』熟讀, 壽祺齒痛不習文。 ⁸⁶⁾
천택은 『맹자』를 열심히 읽었고, 수기는 조금 나아졌다.	天澤『孟子』熟讀, 壽祺稍差。 ⁸⁷⁾
천택은 『맹자』의 등문공 상편을 외웠고, 수기도 공부를 하였다.	天澤誦 藤文公上篇, 壽祺習業。 ⁸⁸⁾

두 번의 사화(1519, 1545) 및 후속 사건들로 이문건가는 거의 쇠락하였는데, 이문건의 두 형님(이흥건, 이충건)과 형님의 아들들인 두 조카(이휘, 이엽) 중 이엽을 제외하고 모두 피화 사망한 상태이고, 이엽 역시 멀리 함경도 경흥에 유배중인 상태다. 어쩔수 없이 유배중인 이문건에게 두 조카의 아들인 수기와 천택이 의탁되어 손자 숙길과 같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치통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앓을 때마다 손자와 종손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가족이나 노비등 가계 관련 인물들의 치과질환 뿐만 아니라, 이문건 본인이 겪는 치통으로 인해 성주의 목사(牧使)나 사족과의 모임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은, 비록 유배자의 신분이긴 하나 재지사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이문건에게는 해야 할 일을 못한듯한 심정으로 일기에 남긴 것으로 보인다.

당에 머물렀다. 치통이 있다. 송천장이 아침 일찍 들어서 지금 혼가에 가는데, 12일 장손 며느리를 본다고 하며 내게 와서 모이자고 청했으나, 아프다고 사양했다.	留堂。齒痛。宋天章早歷見, 今往婚家, 十二日欲見長孫之婦云云, 要余來會云。辭以疾。 ⁸⁹⁾
--	--

송천장은 송희규(1494-1558)를 말하는데 이문건과는 1513년 사마시 동년(同年)이다. 사마시와 문과를 거친 이문건은 관직시절부터 유배시절까지 동년들과의 교류를 지속했고, 일기에도 이들의 방회(榜會) 기사도 여럿 보인다. 특히 송희규는 이문건과 동갑에 동년이므로 더 각별했을 것이다.⁹⁰⁾

84) 1558년 3월 5일.
 85) 1558년 4월 21일.
 86) 1553년 7월 27일.
 87) 1553년 7월 28일.
 88) 1553년 7월 29일.
 89) 1555년 11월 10일.
 90) 장성덕, 목재 이문건의 유배시기 교유양상,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57-60.

목사가 백화헌에서 모이자고 말했는데, 어금니가 아파 들어가지 않았다.	牧伯諭會百花軒。因牙病不入。 ⁹¹⁾
판관이 어제 저녁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일 목사께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리려고 하니 부디 들어와 참석하시지요” 라고 했다. 이가 아프다고 사양했다. 판관이 와서 내게 남정에 올라 바둑두고 점심을 먹자고 초대했다. 목사는 나오지 않았다. 함께 백화헌에 들어가 술자리를 열었는데, 목사의 생일잔치라 한다.	二道昨夕俾諭“明日牧伯前壽杯,須入參”云云。辭以齒疾。二道來見,邀予上南亭着碁點心。牧伯不出來。共入百花軒開酌,牧伯生日宴云。 ⁹²⁾

치통으로 목사⁹³⁾의 초대에 연이어 두 번 응하지 못했는데, 다시 판관의 초청으로 모임에 갔다는 기록이다. 이상과 같이 치과질환의 고통은 이문건 본인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이문건은 사족들과의 교류를 위한 외부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상황도 기록하곤 했다.

치통과 잇몸질환의 원인을 내부에 쌓인 열(내열)로 보고 이를 치료하는 약재들로 조제한 약을 복용하거나, 액상으로 만들어 양치를 하면서 외부 잇몸에서 접촉시키는 함수법으로도 치료를 했던 이문건은 약제를 직접 치아에 접촉시키는 찜질법과 훈증법으로 충치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다음은 이러한 외치법들의 기록이다.

박잎과 식초를 얻었는데, 숨어있는 충치를 치료하고자 한다.	求瓠葉及醋,欲治蟲匿。 ⁹⁴⁾
박잎과 귀리를 식초에 절이고 불에 구워서 이를 찜질했다. 겨우 충치 하나를 뽑았는데, 그 모양이 애벌레 같았다.	以瓠葉及雀麥漬醋炮於火,熨齒。 只捉一蟲匿,蟲匿形蛆焉。 ⁹⁵⁾

위와 같이 박잎과 귀리 두 가지 약재를 준비한 후, 외치법을 위한 고제로 만들기 위해 식초에 절이고 뜨겁게 달궈서 치아에 열을 가했던 일련의 과정은 찜질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동의보감』의 충치 치료편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⁹⁶⁾

여러 해가 된 충치를 치료할 때는 귀리풀과 고평엽(苦瓠葉) 30개를 씻어서 하룻밤 밖에 둔 것을 쓴다. 아침에 귀리풀을 굽혀서 길이가 2촌, 너비가 1촌, 두께가 5푼이 되게 한다. 고평엽으로 단단하게 한 덩어리로 묶은 뒤 식초에 담가 놓는다. 정오에 2덩어리를 습지에 싸서 아주 뜨겁게 구워 입 속의 치아 곁에 붙여서 찜질한다.

다음은 약제를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모은 후, 이를 치아에 쏘이는 훈증법을 사용하여 충치 치료를 시도한 기사이다.

밤에 밀랍으로 구자환을 만들었는데, 내일 충치에 태워서 쐬 것이다. 겸하여 지개아를 만들었다.	夜作蠟韭子丸,明日將燻牙虫。兼造紙蓋兒。 ⁹⁷⁾
밀랍 구환(韭丸)을 태워서 연기를 내어 충치에 쐬었다.	用蠟韭丸燒烟以燻病牙。 ⁹⁸⁾

91) 1558년 6월 15일.

92) 1558년 6월 23일.

93) 당시 성주목사는 노경린(盧慶麟)으로 이이(李珥)의 장인이기도 하다. 성주목사 부임시절에 이이를 사위로 맞았으며, 이이의 3형제들은 이문건집에 자주 드나들며 교유했다.

94) 1546년 5월 14일.

95) 1546년 5월 15일.

96) 한국한의학연구원, 약의 인터넷 자료, 『동의보감』외형편 권2 牙齒, 出牙蟲殺蟲法(치충을 뽑아내어 죽이는 법)

97) 1555년 윤11월 8일.

98) 1555년 윤11월 9일.

충치에 약을 쓴 후에도 여전히 효과가 없다.	病牙藥後猶無效。 ⁹⁹⁾
다시 충치에 약을 씌었다.	又燻牙藥。 ¹⁰⁰⁾

소봉로를 만들었는데, 충치에 연기를 씌기 위함이다.	作小峯爐, 欲燻牙蟲。 ¹⁰¹⁾
------------------------------	-----------------------------

구자등의 약재들을 외치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밀랍으로 반죽하여 환으로 만들고, 이를 태워서 나온 연기를 모아 치아에 쏘여 충치를 치료한 기록이다. 이를 위해 지개아(종이 덩개) 및 소봉로(작은 병 모양의 용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약재를 태워서 연기를 모으기 위한 기구로 생각된다. 다음의 『동의보감』 충치 치료편에 있는 구자환의 조제방법과 훈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도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²⁾

충치로 아픈 것을 치료한다. 구자 · 전갈 각 1냥, 유황 · 옹황 각 2.5돈. 이 약들을 가루내고 황랍 녹인 것에 반죽하여 탄자대로 환을 만든다. 사기로 만든 병에 1알을 태우고 종이로 입구를 덮는다. 붓 대롱으로 연기를 받아서 치아가 빠진 곳을 훈증하면 벌레가 모두 나온다. 약이 있는 병을 물 속에 넣으면 그 벌레가 물속으로 치받는다.

2015년 김¹⁰³⁾의 연구에 의하면 『향약집성방』에 기술된 치과질환에 대한 외치법중(173건) 약재를 액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함수법이 가장 많았으며(72건), 이외에 약재를 고제로 만들어 바르고, 붙이고, 닦고, 구멍을 메우는 방법들을 합하면 전체의 95%이상(167건)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6건중 약제를 뜨겁게 해서 치아에 적용하는 찜질법, 약제를 태운 연기를 얇은 관으로 모아 치아에 쏘이는 훈증법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문건은 보다 다양한 치료법들로 치과질환에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는 이문건이 32년에 걸쳐 쓴 『목재일기』의 치과관련 기록을 찾아 고찰해 보았다. 일기에서 이문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이 겪는 치과질환의 상태와 진행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이의 치료과정 및 예후도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하고자 노력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치과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은 개인일기 특유의 장점을 살린 흔치 않은 의학 기록이라 생각된다.

의학의 한 분야로만 인식된 근대까지의 치의학은 독립적인 의학사 탐구 대상이 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연구에 충분한 치과기록 또한 소개된 적이 없다. 그러나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인적 글쓰기의 산물인 개인일기 자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즈음에서, 『목재일기』와 같이 치의학사 및 치과질환에 관련된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헌이 소개되길 바라며, 이렇게 발굴된 치과 자료가 의학사 천착에도 활용되어 사료의 역할을 하는 바램이자 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99) 1555년 윤11월 10일.

100) 1555년 윤11월 11일.

101) 1558년 10월 25일.

102) 한국한의학연구원, 앞의 인터넷 자료, 『동의보감』외형편 권2 牙齒, 出牙蟲殺蟲法, 韭子丸 方劑.

103) 김용진, 앞의 논문, 2015, 75-76.

참고문헌

<단행본>

- 기창덕, 『증보 한국치과의학사』 (서울: 아카데미아, 1995).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14).
이문건·이상주 역주, 『양아록』 (서울: 태학사, 1997).
이문건·김인규 옮김, 『역주 목재일기』 (서울: 민속원, 2018).
이문건·정공식 외 옮김, 『국역 목재일기 세트』 (서울: 경인문화사, 2019).
이상주, 『목재 이문건의 문학과 예술세계』 (서울: 다운샘, 2013).
이한수, 『한국치학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국조인물고 19』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2004).

<연구논문>

- 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士族의 醫療 활동-경상북도 星州의 李文樞 사례-,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13(2).
이현숙, 고려 일상생활 속의 질병과 치료-안과, 피부과, 치과 질환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2008;20.
여강석, 고려시대 한시에 나타난 ‘질병(疾病)’에 대한 의식과 치유 방식, 포은학연구, 2023;30.
정유용 외, 鄉藥救急方의 口舌脣齒 질환에 관한 고찰, 韓國醫史學會誌, 2008;21(2).
김용진,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치문(齒門)의 외치법(外治法)에 관한 연구(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4).
김훈 외, 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
문우상 외, 外治療法의 理論과 適應症에 대한 史的 考察,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4;10(2).
김성수, 목재일기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연구, 2013;24.
김성수, 16세기 鄉村醫療 實態와 士族의 대응, 한국사연구, 2001;113.
김남일, 韓國에서의 儒醫들의 活動 - 醫書의 編纂, 治療活動을 中心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7;20(2).
성호준, 儒醫의 개념정립과 張介賓,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20(1).
김현영, 16 세기 한 양반의 일상과 재지사족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001(18).
박병철 외, 치아 질환의 한의학적 임상치료에 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8;8(2).
박용호 외, 齒痛의 處方에 대한 文獻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6;14(1).
손인철 외, 동의보감(東醫寶鑑)과 한의학 일부 문헌에서의 턱관절 치료와 치아(齒牙)의 이해에 대한 고찰, 턱관절균형학회지, 2013;3(1).
신동원, 미시사 연구의 방법과 실제: 이문건의 유의일기(儒醫日記), 의사학, 2015;24(2).
설혜심, 미시사 연구의 이론과 동향: 의사학의 시각, 의사학, 2015;24(2).
강민구, 牧隱 李穡의 疾病에 대한 意識과 文學의 表現, 동방한문학, 2010;42.
신재혁 외, 御藥院方, 咽喉口齒門 중 치아질환 처방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
김의환, 조선 중기의 流配形과 流配 生活, 역사와 실학, 2011;44.

<학위논문>

장영희, 鄉藥集成方과 東醫寶鑑의 齒科疾患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성수, 16世紀 鄉村醫療實態와 士族의 對應 : 默齋日記에 나타난 李文樞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조은숙, 默齋日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조은숙, 養兒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장성덕, 목재 이문건의 유배시기 교유양상,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상남, 東醫寶鑑中 升麻가 配伍된 方劑의 活用に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석재, 內病外治藥物에 관한 文獻的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인터넷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5년 9월 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www.aks.ac.kr (검색일: 2025년 9월 10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www.kiom.re.kr (검색일: 2025년 9월 20일)

<국문초록>

목재일기의 치과기록 고찰

16세기 사족 이문건이 32년간 쓴 『목재일기』는 저자 특유의 꼼꼼하고 솔직한 기록습관을 바탕으로 매우 정직하게 기록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특히 일기에는 동시대의 그 어떤 문헌보다 많은 의학 기록이 있는데, 저자의 높은 의학적 식견으로 기술된 거의 매일의 기록들은 의학사 분야의 좋은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기의 의학자료에 포함된 치과기록은 이문건 본인과 주변인이 겪는 치과질환에 관한 것인데, 질환의 증상 뿐 아니라 치료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어, 기록의 구체성과 연속성에서 기존 문헌과 차별된다 하겠다. 본고는 『목재일기』의 치과기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의학지식을 겸비한 사대부인 유의(儒醫) 이문건이 관찰하고 치료해 보고자 애썼던 당시 치과질환에 대한 인식과 증상의 표현양상 및 치료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질환의 고통 때문에 제한되는 여러 일상생활의 기록에도 주목하여 치과질환의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문건의 높은 의학적 식견으로 서술된 치과기록은 질환이 발생한 부위의 위치와 양상뿐만 아니라 그 진행과정 및 치료후의 상태 표현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치의학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기존 의서와의 대조 및 고증이 용이한 장점도 있었다. 일기에는 현대 치의학에서도 발병률 높은 치과질환의 여러 증상이 묘사되고, 이의 치료를 위해 당시의 대표적인 의서(향약집성방, 동의보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법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문건은 치과질환 또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접근을 통해 대처했으며, 이를 기록한 『목재일기』의 치과기록은 그동안 의서나 문학작품, 혹은 단편적인 공적 기록을 통해서만 유추할 수 있었던 당시 치과질환의 여러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주제어: 치과질환, 조선시대, 목재일기, 이문건, 유의(儒醫)

<교신저자>

- 이 원 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0 3층 우리가족치과의원
- Tel : 031-753-2279, E-mail : lwseop@hanmail.net

미국 대통령들의 치과 치료를 통해 본 치의학 발전사

권 훈

Kweon, Hoon

머리말

제 1 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제 3 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제 7 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제18대 대통령 윌리시스 그랜트(Ulysses Grant, 1882-1885)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Abraham Lincoln, 1809-1865)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Harry Truman, 1856-1924)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1884-1972)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Truman, 1917-1963)

제35대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Truman, 1917-1963)

제36대 대통령 린드 존슨(Truman, 1908-1973)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Truman, 1924-2024)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 1946-)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1961-)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1942-)

미국 대통령들의 치과 치료를 통해 본 치의학 발전사

The History of Dentistry Through the Dental Treatments of American Presidents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머리말

미국에서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Presidents' Day이다. 대통령의 날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공휴일이다. 조지 워싱턴의 생일(2월 22일)이 대통령의 날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1971년 제37대 대통령(1969-1974) Richard Nixon(1913-1994)이 지금의 날로 변경하였고 미국 역대 모든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이다. 참고로 부연하면 한자 대통령(大統領)의 근원은 1860년대 일본이 미국 president를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다.

필자가 대통령의 치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PRESIDENT에서 치아를 뜻하는 접미어 DENT에 시선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¹ 신라 유리왕의 왕호 이사금은 '치리(齒理)' 즉 이의 자국을 뜻한다. 치아의 개수를 가지고 왕의 후계를 정하던 풍습처럼 President에도 혹시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터무니없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인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만난 것이다. 이쯤 되면 President의 어원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President를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말하고 동사 preside에서 파생된 단어다(A president is one who presides). preside는 라틴어 어원인데 pre는 앞에서(before), side는 앉다(to sit)라는 뜻이다. 앞에 앉아 사회를 보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칭한다. 즉 그 단체의 책임자이며 제일 높은 사람이다. president의 방점은 권한보다는 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치아 건강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의학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필자는 인터넷과 문헌 검색을 통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치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20여 명이 넘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치과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대통령의 치과 치료를 통해서 치의학 발전사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치과의사는 이름을 공개하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치과 정보를 계속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을 얻었다. 필자의 기쁨이 독자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각각의 대통령 치과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이라는 명화를 볼 수 있다.² 이 그림에는 얼어붙은 강을 헤치며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조지 워싱턴(1732-1799)의 늠름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 1, 2대 대통령을 역임한 조지 워싱턴은 치아에 관해서는 초라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건강한 치아를 가졌거나 현대 치의학의 혜택을 받았다면 ‘종신 대통령직’이라는 간청에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워싱턴은 40대 초반부터 부분 틀니를 장착하기 시작하였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는 하악 소구치 한 개를 제외하곤 모두 발치된 상태였다. 그래서 워싱턴의 틀니 제작을 위해 인연을 맺은 치과의사가 8명이나 되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업적을 꼽는다면 미국 초창기 시절 보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워싱턴은 치과의사 못지않게 자칭 틀니의 전문가였다고 한다. 한 단어로 말하면 진상이라고나 할까? 워싱턴이 치과의사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8명의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이 John Baker라는 치과의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나에게 석고와 인상재를 보내주시오. 그리고 사용 방법도 알려주시오. 내가 모형틀을 만들어 보낼테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틀니를 제작해서 나에게 보내주시오.”

치과의사 Edward Whitlock에게는 ‘앞니를 보다 크고 두껍게 만들어주시오.’라고 요구하였고 치과의사는 대통령 워싱턴의 요청을 따랐고 틀니는 얼마 가지 않아 박살나고 말았다.

John Greenwood는 원체 까다로운 워싱턴에게 미리 4개의 틀니를 제작하여 주었으나 이번에는 틀니가 변색되었다는 편지를 워싱턴으로부터 받았다(그림 1). 그린우드는 워싱턴에게 다음과 같이 답신하였다.⁴ “각하 틀니는 변색이 아니고 포도주에 의한 착색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와인을 마신 후에는 틀니를 즉시 빼서 솔로 깨끗하게 세척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일 때 John Trumbell이 그린 워싱턴의 초상화와 조지 워싱턴이 미국 제 2대 대통령 재직 시절 Gilbert Stuart가 그린 초상화는 천지차이다(그림 2). 젊었을 때 용맹한 워싱턴의 초상화가 나이 들어 초로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 세월이 장사가 없다는 사실을 세삼 느끼게 된다. 특히 스튜어트가 초상화를 그릴 때 대



그림 1. 상아(ivory)로 조각한 워싱턴 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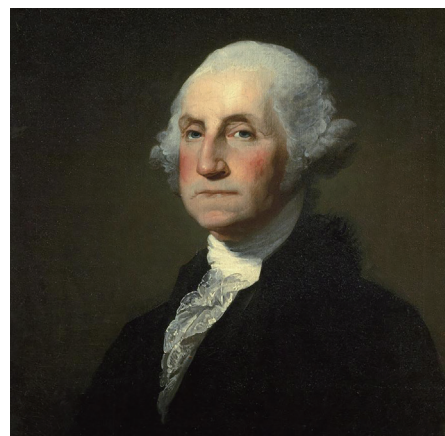


그림 2. Gilbert Stuart(1755-1828) : 조지 워싱턴 초상화(1803)

통령의 얼굴 모습이 너무 찌그러져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맞지 않은 틀니 때문이었다. 하악 전치부가 너무 돌출되어 있어 그 모습을 줄이기 위해 하순에 코튼 롤을 위치시켰고 양쪽 뺨이 너무 들어가 보여서 숨을 물고 있는 채로 초상화를 그렸다고 한다.⁵

제 2대 대통령을 할 때에는 불편한 틀니 때문에 연설하는 빈도도 전보다 줄이게 되었고 대중 앞에 노출되는 것도 꺼렸다고 한다.^{6,7}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 3대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하였다. 워싱턴은 떠났지만 그의 모습은 미국 1달러 지폐에서 지금도 볼 수 있고 워싱턴이 마지막에 사용했던 틀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역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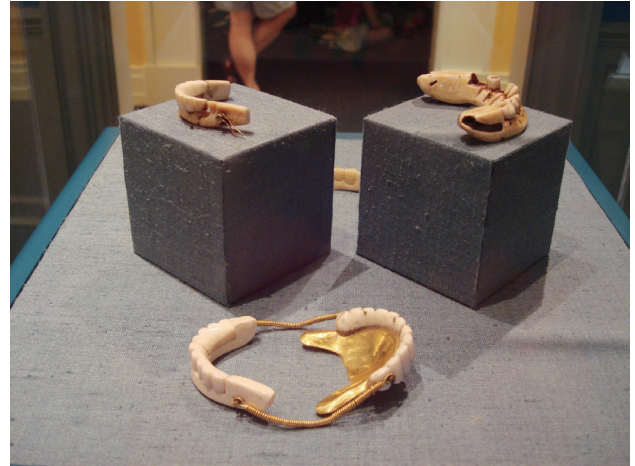


그림 3. 미국 국립 치의학박물관 전시된 조지 워싱턴 틀니

얼마 전 신문 칼럼에 이웃 나라 일본의 은퇴자 천명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나?”는 설문 조사 결과가 소개되었다. 건강 분야에서 첫 번째로 후회스럽다고 꼽은 1위는 ‘치아를 소중히 잘 관리할 걸’이었다. 치의학의 발전으로 상실치를 회복하는 보철치료 즉 임플란트 또는 틀니가 대중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연치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다.’란 말이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어른들이 겪어보고 깨달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제공한다. 어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치아를 다루는 전문 직업인 치과의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We are GREAT Dentists”라는 문장으로 답하고 싶다.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미국 South Dakota주의 러시모아 산(Mount Rushmore)에 가면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4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조각되어 있다. 왼쪽부터 이야기하면 조지 워싱턴(1789-1797)은 독립운동과 신생 독립국의 탄생,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영토의 확장, 링컨(1809-1865)은 연방의 통일과 시민 평등을, 시어도어 루즈벨트(1858-1919)는 세계 정세에서 20세기 미국의 역할을 상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큰 바위 얼굴은 1927년에 조각을 시작하여 1941년에 완성되었으니 무려 15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다. 러시모아 산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100가지’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성지로 통한다(그림 4).



그림 4. 2025년 5월 마운트 러쉬모아에서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기 마련이다. 사실 이곳은 원래 인디언들이 주인이었고 특히 ‘블랙 힐스’라 하여 인디언들의 성지였던 곳이다. 이곳에 미국 대통령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인디언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다. 만약 일제 강점기 시절 서울 도봉산 바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토 히로부미를 조각해 놓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큰 바위 얼굴에 조각된 4명의 대통령중에서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제퍼슨은 2달러에도 그려져 있어 정말 위대한 대통령임이 틀림없다(그림 5).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제퍼슨과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는데 이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막히다. 동서로 링컨 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이, 남북으로는 백악관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마주보고 있다. 그 이유는 링컨이 앉아서 국회의사당을 보며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 하는지와 토마스 제퍼슨이 백악관을 보면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토마스 제퍼슨은 농장주, 법률가, 외교관, 건축가,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음악가, 대학 설립자이면서 미국의 제 3대 대통령이였다. 정말 다재다능하여 미국인들이 존경할만 하다. 제퍼슨은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주를 구입하여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늘렸다. 미국 독립 선언서의 기초를 만든 제퍼슨은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83세 나이인 18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세상을 등졌다.

제퍼슨의 회계 장부에 의하면 제퍼슨은 4명의 치과의사에게 치료비를 지불하였다.⁸ 1772년부터 1776년까지 4년 동안 John Baker에게 치과 치료비를 3번 냈다. 누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제퍼슨 또는 그의 가족이나 가정부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1789년 프랑스 공사로 재직 중 A.L.B. brechillet Jourdain에게 치료비를 지불하였는데 아마도 제퍼슨의 딸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793년 필라델피아에서 국무장관으로 근무할 때 Lewis Gilliams에게 치료비를 냈다. 제퍼슨의 지갑에서 치과 치료비가 지출되었으나 제퍼슨이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네 번째 치과의사인 Dr. Bruff가 제퍼슨에게 치과 치료를 했다는 명백한 기록이 있다. 제퍼슨은 64세인 1807년 12월 그의 딸에게 하악 치아에 치통을 심하게 앓았다고 편지를 썼다. 얼굴에 종창이 있을 정도였고 저녁에는 열도 심했다고 한다. 1년 후 Dr. Bruff가 해당 치아를 발거하였고 치료비는 5달러였다.

1824년 81세의 제퍼슨은 찰스 윌슨 필(Charles Willson Peale)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당신에게 포셀린 치아를 할 필요가 없어 행복합니다. 나는 단지 한 개의 치아를 상실되었는데 나머지 치아들은 상태가 매우 좋아요.” 필은 미국의 화가, 군인, 과학자, 발명가, 정치가, 박물학자였다. 그는 포셀린 치아를 더욱 정교하게 개발해서 그 당시 틀니에 사용하던 상아, 동물 또는 사람 치아를 대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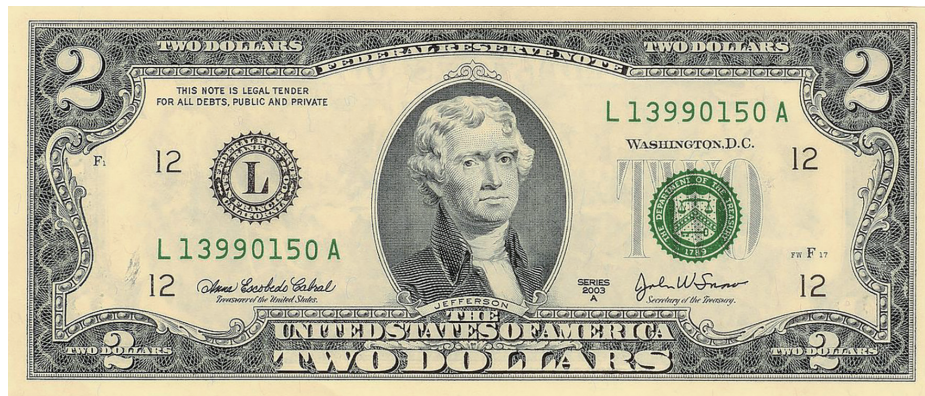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2달러 지폐 인물 토마스 제퍼슨

제퍼슨은 81세의 나이임에도 단지 한 개의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한다.⁹ 이때는 아직 치의학의 발전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였기에 아마도 제퍼슨이 구강 위생에 관심이 많아 완벽하게 치아를 관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퍼슨은 29세인 1772년부터 81세인 1824년까지 8번 치과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주된 방문 이유는 이쑤시게와 칫솔을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1988년 고고학자 Marley Brown은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Thomas Everard의 집에서 토마스 제퍼슨의 것으로 추정되는 칫솔 손잡이를 발견하였다(그림 6). 칫솔 손잡이는 뼈로 만들어졌고 두부는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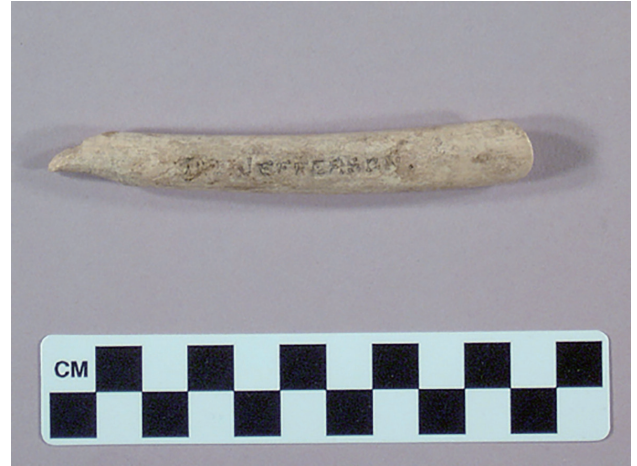


그림 6. 토머스 제퍼슨의 것으로 추정되는 칫솔 손잡이

된 상태였다. 칫솔 손잡이는 제퍼슨이 버지니아주 주지사로 일할 무렵인 1780년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칫솔은 일부 부자들만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고 손잡이에 ‘THOMAS JEFFERSON’이라 새겨져 있었기에 제퍼슨의 칫솔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또한 18세기에 윌리엄스버그에 살았던 사람중에 이름이 토마스 제퍼슨인 사람은 딱 한명이었다고 한다.

제퍼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80세가 넘어서도 20개 이상의 자연치아를 유지한 건치(健齒) 대통령이었다.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

미국 지폐는 총 7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1달러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2달러에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 5달러에 링컨 16대 대통령, 20달러에는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이 그려져 있다(그림 7).

앤드류 잭슨은 최초의 서민 대통령으로써 미국에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던 정치인이기에 미국 지폐 인물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다. 앤드류 잭슨의 인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대통령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



그림 7. 미국 20달러 지폐 인물 앤드류 잭슨

잭슨은 사우스 케롤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주하원, 연방하원, 연방 상원등 대통령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를 거쳤으며 7년동안 연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영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을때에는 군인으로 변신하여 미국에게 큰 승리를 안겨 국민들에게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선거에 두 번째로 출마하여 미국 최초의 무학력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대통령 재임시절 헌법에는 있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차례 행사하였고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미국의 정치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꾼 대통령이었으며 백악관에 흰 색을 칠하여 ‘white house’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은 무치악이 되었을때 틀니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잭슨 대통령은 상, 하악 총의치를 장착하였는데 틀니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틀니를 끼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고 뿐만아니라 대중앞에서 하는 연설도 가급적 최소로 하였다. 잭슨은 초상화를 통해서 자신이 완전 무치악임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한다(그림 8, 9). 19세기 초 틀니는 사람에게 자연치를 대체할만큼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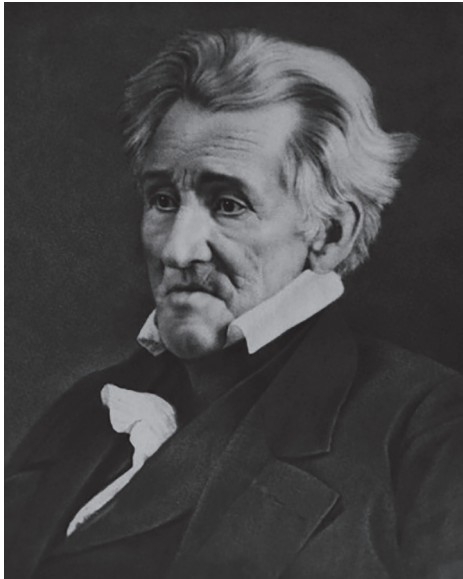


그림 8. 완전 무치악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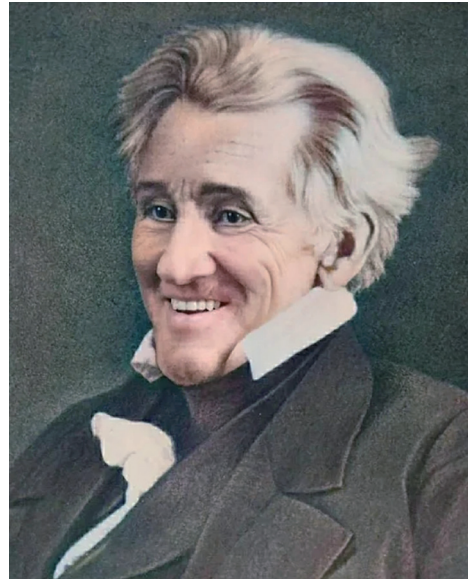


그림 9. 시가 생성한 유치악 앤드류 잭슨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미국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 광장을 출발하여 워싱턴 모뉴먼트를 지나 링컨 기념관까지는 도보로 50여분 정도 소요된다.¹⁰ 워싱턴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경관이 멋진 이 코스를 꼭 걸어 보기를 강추한다. 벚꽃이 피어있다면 포토맥 강을 따라 제주산 왕벚꽃 나무 길을 걸어서 제퍼슨 메모리얼도 가보길 권한다. 워싱턴 D.C. 관광은 참 쉽다. 워싱턴 모뉴먼트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백악관, 동쪽에는 국회의사당, 서쪽에는 링컨 기념관, 남쪽에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다. 이렇게 배치된 것은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이 일한 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링컨과 제퍼슨과도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건축했다는 관

광 가이드의 설명에 반신반의해진다.

워싱턴 D.C.의 National Mall에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Thomas Jefferson Memorial),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과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기념관(Franklin Delano Roosevelt Memorial) 총 3개의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그림 10).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인기를 조사하면 단연코 1위는 링컨이다. 링컨은 신장이 193cm나 되어 신체적으로도 미국 역사 속에서도 거인이었다. 미국 연방이 분열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남북전쟁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고 노예 해방 선언까지 하여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하지만 링컨은 치과의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소인이 되어 Dental Phobia를 가진 대통령이였다.

1841년 링컨의 나이 32살 때, 그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치 진료를 받다가 악골 골절이 발생하였다.¹¹ 마취도 없었을 시절이었기에 발치할 때 링컨이 겪었을 고통은 엄청났을 것인데 거기다 골절까지 발생했으니 상상불가이다. 이 시기에 사용된 발치 기구들은 펠리칸 부리와 비슷한 모양의 Dental Pellican과 자물통 열쇠처럼 생긴 Tooth Key가 있었다(그림 11). 지금 사용되는 발치 기구(forcep, elevator)보다 훨씬 투박한 모습이고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골절과 주변 조직 손상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때는 ‘미안 합니다’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사과의 말과 금전적 보상으로도 불만이 가득하다.

1844년 Horace Wells가 우연히 아산화질소의 마취 효과를 발견한 후 발치 환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1846년 Morton은 에테르 흡입을 이용하여 무통 발치를 시도하였다. 링컨은 젊은 시절 치과 치료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마취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어찌 보면 링컨의 치과 공포증은 당연하게 생각된다.

링컨은 대통령 재임시절인 1862년에 심각한 치통이 발생하여 백악관 근처에 개원중인 Dr. Wolf에게 또 발치를 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때는 chloroform이라는 마취제가 있어 링컨은 발치를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었다. 링컨은 자신이 클로르포름을 깊게 흡입하여 의식을 잃으면 치과의사가 발치를 시작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아무리 근엄한 링컨도 발치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한 것 같아 그저 웃음만 나온다.



그림 10. 2017년 링컨 기념관에서



그림 11. 발치 기구 Tooth Key



그림 12. 링컨을 풍자한 치과의사 V. Blada의 스케치 'Aimless Don Quixote'

한편 링컨 대통령에게 무차별한 공격을 가했던 Adalbert J. Volck(1828-1912)라는 치과의사도 있었다.¹² 독일 바이에른주 출신인 그는 미국 남북 전쟁에 참가하면서 1848년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1852년 볼티모어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볼티모어에서 개원한 치과의사였다. 그는 다양한 재능을 타고 나서 본업인 치과의사이외에도 예술가, 공예가, 기능공, 만화가, 풍자화가로도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남부군 풍자화가로서 현직에 있는 링컨 대통령을 폄하하는 삽화를 다수 남기면서 자신의 남부군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Volck의 삽화에 그려진 링컨 대통령의 모습은 겁쟁이, 돈키호테와 흑색 인종(negroid)으로 묘사되었다(그림 12). 19세기에도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링컨 기념관 앞 계단에 “I have a dream.”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흑인들의 자유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연설 중 한 대목이다. 나는 꿈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반문해본다. 또한 루터 킹 목사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인용하여 다음의 멋진 문구도 남겼다. “If we do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we will be a blind and toothless nation.” 치과에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곱씹어 볼 문장이다. 치과 개원을 해서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을 꼭 참은 치과의사는 성자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믿는다.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Ulysses Grant, 1882-1885)

미국 대통령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첫 번째가 변호사이고 그 다음은 군인(5명)이었다. 그중에 조지 워싱턴(1달러)과 율리시스 그랜트(50달러)는 미국 지폐 인물이다(그림 13). 한국에서 군인 출신 대통령은 3명이었고 모두 결말이... 특히 그랜트는 한국과 인연의 역사가 오래다.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조선 강화도에 군함을 보낸 미국 대통령이 그랜트였다. 또한 그는 남북전쟁때 미국이라는 연방을 지킨 미국의 전쟁 영웅이다.



그림 13. 미국 50달러 지폐 인물 올리시스 그랜트

남북 전쟁 때 6일 동안 전투에 나갈 때 칫솔 하나만 들고 나갈 정도로 치아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는 남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혈전 중에 하나였던 샤일로(Shiloh) 전투에서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치아가 망가지게 되었다. 특히 1862년 Fort Donelson 전투에서 승리할 때 전쟁터에서 시가를 물고 있는 모습이 신문 기사로 나가자 전국에서 국민들이 그랜트에게 만 개의 시가를 보내주었다. 그랜트는 그 당시 가벼운 흡연가였으나,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가를 피우게 되었고 심지어 담배 광고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과도한 흡연의 결과 때문이었는지 1884년 후두암 진단을 받았고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1885년 63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흡연은 구강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그랜트가 증명해준다. 그의 구강암과 관련된 병력은 다음과 같다.¹³

1884년 6월 : 목구멍이 불편함 호소, 고집이 센 그랜트는 치료를 받지 않음

1884년 12월 : 목 치료 전문의인 Douglas에게 진료를 받음. 우측 편도에 상피세포암, neck node T1N1 carcinoma로 진단됨. 편도암 치료는 금연, iodoform 도포, 소금물 가글, 희석된 석탄산 가글, 통증 완화를 위한 4% 코카인 용액 도포가 전부였다.

1884년 12월 : 병소는 더욱 진행되어 편도 후측, 혀 기저부, 구개까지 침범, 특히 연구개가 파괴되어 식사가 곤란해졌다.

1885년 2월 : George Elliott가 생검하여 편평세포암으로 진단함.

1885년 3월 : 하악 앵글로 접근하여 혀 기저부, 연구개 일부를 제거

1885년 7월 : 사망

그랜트는 암을 발견하기 몇 개월 전에 경제적 먹구름까지 다가왔다. 그가 파트너로 참여한 회사가 망해갈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회사를 살리려고 했으나 실패하여 모든 재산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랜트의 절친인 마크 트웨인(1835-1910)이 그랜트에게 회고록 집필을 권유하고 출판함으로써 그에게 큰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그림 14). 그랜트는 죽기 3일 전까지 매일 30 페이지 정도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완성하였다. 미국의 대문호인 마크 트웨인이 그랜트 회고 원고에 첨삭 과정을 해서인지 32만부의 책이 판매되었다. 그랜트 가족은 선지급료로 25,000달러(현재 85만 달러)와 인세로 15,300달러(현재 45만 달러)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랜트는 대통령 재임(8년 임기)까지 마친 후 1877년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큰 고초를 겪었다. 유럽, 러시아, 이집트, 인도, 중국과 일본을 2년 동안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정착지인 일본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항을 하었는데 일본 승무원의 실수로 그랜트의 부분 틀니(전치부 2개 치아 포함)가 배 밖으로 버려졌다. 미국으로 오는 동안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랜트의 치과 병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837년(15세) : 처음으로 발치를 받음(치료비 50센트)

1854년(31세) : 군인시절 군의관에게 발치 받음(지금까지 발치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함), 군대에 있으면서 발치로 인한 통증을 잊을려고 해서인지 술과 담배를 더욱 자주함

1863년(41세) : 발치 후 부분 틀니 장착

1879년(57세) : 틀니 분실로 곤욕을 치름

1880년(60세) : 전치부 발치 후 틀니 장착

1884년(62세) : 3개 치아 발치(#16,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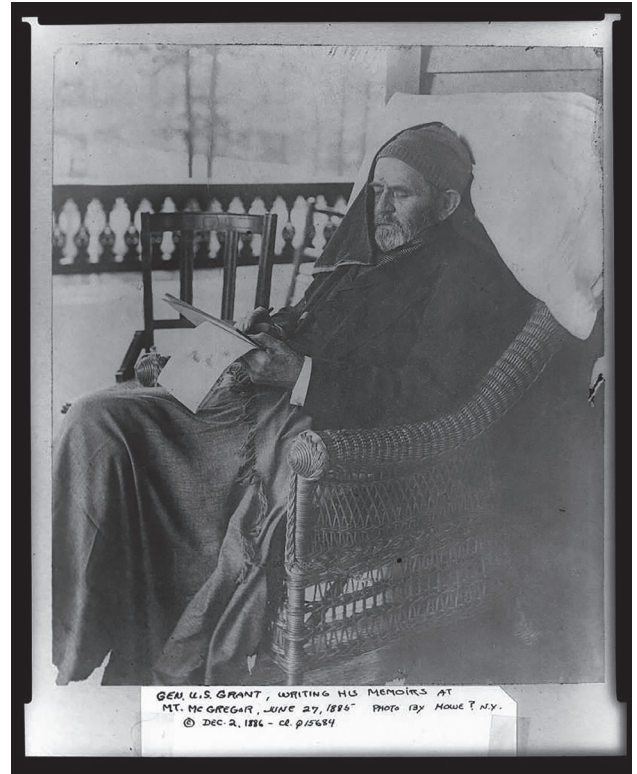


그림 14. 자서전 집필중인 올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그랜트의 구강암 발병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이 있다. 그랜트의 고도 흡연과 음주가 암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목이 불편한 증상이 있음에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었다. 19세기 후반 의술의 빈약함으로 인하여 주변 조직으로 암이 급속도로 전이되면서 참혹한 말년을 보내면서 생을 마감하였다. 만약 그랜트가 현재 의술로 치료를 받았다면 종양 제거 후 임플란트로 재건술등으로 더 긴 수명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제22대 대통령 스테판 클리브랜드(Stephen Cleveland, 1837-1908)

미국 22대 대통령 Stephen Grover Cleveland(1837-1908)의 경력은 매우 독특하며 치의학과 관련된 스토리는 사뭇 흥미진진하다(그림 15).¹⁵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22대(1885-1889년)에는 대통령이었지만 23대에는 낙선하여 고배를 마셨고 다시 24대(1893-1897년)에 재도전하여 당선되었던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두 번의 임기를 나누어서 수행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번째로 뚱뚱한 사람이었고(125kg, 1위는 제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175kg), 27살이나 어린 여성과 백악관에서 결혼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1893년 7월 1일 미국 롱 아일랜드 해협에 떠있는 개인 요트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구강암 수술이 극비리에 이루어졌다(그림 16). 이처럼 대통령의 수술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진 이유는 이 무렵 미국의 경제가 끝없는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위가 위험하다는 소식이 증권가에 알려진다면 미국의 사회가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림 15. 미국 1000달러 지폐 인물 스테판 클리브랜드



그림 16. Secret operation을 받고 있는 스테판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진단명은 Verrucous carcinoma였고 구강 내로 접근하여 상악골과 상악 치아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¹³ 2주후에는 수술 부위 주변에 의심스러운 조직들까지 제거한 후 Kasson C. Gibson이라는 치과 의사가 가황 고무(Vulcanized rubber)로 제작한 보철물로 결손부를 수복하였다(그림 17). 장치는 대통령이 말하고 저작하고 안모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기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요트에서 요양하는 동안 지나가는 다른 요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휴가 중인 것처럼 하여 수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다행히 구강암도 수술만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었는데



그림 17. 스테판 클리브랜드가 착용한 Obturator
좌측: 1893년, 우측: 1897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루어진 치료의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가 없다.

1893년 8월 7일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수술 후 한 달 만에 의회에 출석하여 연설을 하였는데 아무도 그가 구강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8월 29일 필라델피아 지역 신문에 대통령이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백악관은 대통령께서 충치 때문에 발치를 하였다는 공식 논평으로 의혹을 덮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Secret Operation’이라는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술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자신에게 보철물을 제작해준 치과의사 Gibson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다.¹⁴ “치과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치의학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보철물이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 사용해보니 전혀 불편감 없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장치의 부피도 작아 식사 후에는 빼서 세척하기도 수월합니다. 제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저의 목소리와 저작력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체력과 청력이 다시 회복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클리블랜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환자 비밀의 보장과 금연이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숨어있는 본질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듯이 만약 대통령을 치료한 의료인이 수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 이야기 했다면 미국의 대공향은 20세기가 아닌 19세기에 왔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클리블랜드가 금연을 하였다면 구강암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술도 보철 치료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2009년에 제정된 치과의사 윤리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에도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전신 및 구강건강에 많은 해악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1997년 FDI 서울 총회에서는 ‘금연’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 졌었고 2002년에는 금연 썸 우표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되어 전 세계 치과의사들에게 판매되기도 하였다(그림 18). 치과의사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금연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 18. 200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작한 금연 썸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머리는 지혜, 가슴은 정의, 배는 욕구를 필요로 한다. 플라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가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상적인 인간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제26대 대통령(재임:1901-1909)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의 인생극장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 서운함과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도하에 체결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은 대한제국의 운명을 갈랐다. 시어도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해주는 대신 필리핀 통치를 얻는 지혜로운 전략을 짰다. 그 당시 대한제국의 주권을 보전해달라는 수많은 청원과 노력이 있었지만 미국의 ‘국익’ 앞에서는 ‘말짱 도루묵’이었다. 그로부터 12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작금의 외교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드는 생각 ‘역사는 진짜 반복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는 19세기에 흔히 볼 수 없었기에 그의 마스코트가 되었다.¹⁶ 그래서 반짝이는 치아가 활짝 드러나 보이는 호탕한 미소와 그의 솔직함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그림 19). 불혹(不惑)에도 채 못 미치는 나이에 시작한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는 국민 영웅이란 호칭까지 듣게 됐다.

정치적 반대 세력들이 시어도어의 치아를 다람쥐의 치아라며 폄하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¹⁷ 그의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는 말 그대로 “His teeth always won the day”였고 루스벨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그림 20).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입술은 꼭 다물고 있으며 미소가 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 이유는 치아 관리 실패로 인한 비심미적인 치아를 가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많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치과적인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반듯한 치아와 건강한 미소이다. 백악관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만을 놓고 본다면 입술은 꼭 다물고 있으며 미소가 없는 사람은 존재감이 제로인 대통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치아 관리 실패로 인한 흉측한 치아를 가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진리를 절감할 수 있는 본보기다. 치과 대통령인 치과의사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싶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림 19.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상징적 오히려 Toothy Sm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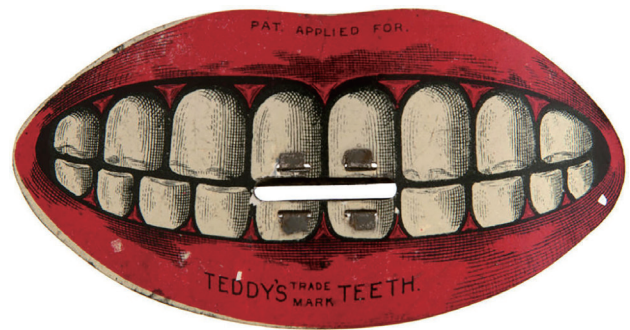


그림 20.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와 하얀 치아를 묘사한 주석 장난감

시어도어에겐 ‘Teddy’라는 별칭이 있다. 곰 사냥을 떠난 시어도어 대통령이 곰을 못 잡자, 보좌관들은 그에게 잡아놓은 흑곰을 향해 마지막 한발을 쏘라고 제안하였다. 정의감 넘치는 시어도어는 발포를 거절하였고 그 사연이 신문에 소개되었다. 뉴욕 장난감 가게 주인이 곰 인형에 ‘테디’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였고 이것이 테디 베어의 유래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생일인 10월 27일은 테디 베어의 날이기도 하다. 미물인 곰에게도 베푼 테디 루스벨트의 인간미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무력함에 아쉬움만 가득하다.

시어도어는 돌출된 상악 치아와 불안정한 대중 연설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쾌활한 미소와 하얀 치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장점이 되었다. 상악 전치부에 spacing이 있고 전체적으로 치열의 마모도가 심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갈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승장구하던 시어도어는 인생 후반부에서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걷다 1919년 60세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망했다.¹⁸ 사인으로 약 20년 전에 치아 농양이 심해서 발치된 치아가 지목되었다. 그때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A great man cut down in his prime because of an infected tooth” 지금은 그때 사인이 황당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정설로 받아들여 졌다. 감염된 치아에 남아있었던 세균과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다른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다른 전신질환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 주로 야기된다고 하였다. 그의 사망 시점인 1919년 1월은 시어도어가 대통령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최고였던 시기였기에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가설에 힘이 실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병소감염(Focal Infection)’은 국소 감염이 병원균이나 독소를 신체의 먼 부위로 전파시켜 다양한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치과영역에서는 근관 치료된 치아가 무증상이었지만 여전히 감염력을 유지하다가 다른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되어 결국에는 사망까지 초래한다는 논리이다. 병소 감염론은 항생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정설로 받아들여 졌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 1980년대에는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상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2000년 Oral Health in America 리포트에서는 치주질환이 관상동맥질환, 심장 발작, 임신 부작용, 당뇨 및 세균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시어도어의 실제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보고들이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 건강 검진 때 심장에 대한 주의를 받은 사실과 그의 비정상적인 식습관이다. 본인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선하지 못했다. 그는 아침 식사로 감자, 토스트와 함께 12개의 계란을 섭취하였다고 하니 엄청난 식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욕구에 대한 절제의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시어도어의 사인으로 지목되었던 치아 농양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구강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병소 감염설이 대세였던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불필요한 발치가 시행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시어도어 사후 뉴욕 렉싱턴 애비뉴의 한 작은 상점 창문에 작은 다이아몬드 두 개와 사람의 치아 한 개가 들어 있는 금반지가 등장했다. 표지판에는 이 치아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소년 시절 발치된 치아라고 적혀 있었다. 상점 주인은 자살한 부인의 유품을 관리인이 경매에 내놓았을 때 시어도어의 치아를 구입했다고 하였다. 자살한 Julia B. Grover가 시어도어에게 선물로 받은 치아라고 한다. 이것이 진짜 시어도어의 유년 시절 발치된 유치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시어도어의 치아는 생전과 생후에 모두 많은 논쟁거리와 이야기를 남겼다.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Harry Truman, 1856-1924)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을 때 미국은 중립을 지켜 개입하지 않았고, 1915년 독일 잠수함이 영국 선박을 침몰시켜 배안에 있는 미국인 100명이 사망했을 때에도 미국은 독일에게 항의만 할뿐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미국은 강국이었지만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굳은 신념으로 1차 대전에 불참하였다(그림 21).



그림 21. 미국 100000달러 지폐 인물 우드로 윌슨

1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후 우드로 윌슨은 국제 평화 기구의 창설을 주장하여 1920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다. 윌슨은 그 공으로 192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평화주의자인 윌슨 대통령은 입안의 류탄스와도 전쟁을 하지 않았나보다.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취임식 날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은 온 미국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활짝 웃고 있는 윌슨의 치아는 충치와 착색으로 얼룩져 있었다(그림 22). 전혀 칫솔질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에 미국인들의 충격을 이해할만 하다.

윌슨 대통령은 신경쇠약, 소화장애, 두통등등 온몸이 아픈 허약한 체질이였기에 아마도 구강 위생에 소홀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니면 치아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불량한 구강위생은 뇌졸중과 동맥경화증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라고 한다. 윌슨 대통령은 1919년 두 번째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쓰러져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6개월 동안 윌슨을 대신하여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에디스가 미국의 통치권자가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시기에는 부통령제가 없었나 보다.



그림 22. 활짝 웃고 있는 우드로 윌슨의 전치부

아무리 절세의 미인이라 하더라도 앞니에 김 조각을 붙여 놓으면 급실망을 할지언대 월슨의 그러한 치아를 가지고서도 대통령을 연임하였다. 아마도 그의 능력이 흉물스런 치아를 뛰어 넘을 정도였을까? 하지만 월슨 대통령의 삶을 보면 치아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

미국 제32대 대통령(재임:1933-1945)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1884-1962)가 새로운 10달러 지폐의 모델로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¹⁹ 그 이유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9조 시행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폐 인물로 여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성 및 인권 향상에 엘리너 루스벨트의 인생이 담겨 있기에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거짓 없이 담겨 있다는 말처럼 치아도 마찬가지다. FDR 대통령의 치아에는 어떤 치의학 역사가 새겨져 있는지 따라가 본다(그림 23).

부유한 집안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마마보이로 자란 14살 FDR은 그라턴 기숙학교에 다니던 시절 엄마에게 치아 때문에(gum-boil) 편지를 자주 썼다고 한다. 또한 교정 치료도 받았었기에 치아 교정에 관한 내용도 편지에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의 치아에 대해 연구 중이던 Jack Ragsdale는 수소문 끝에 FDR의 교정 치료를 담당했던 Adm. Ralph Malone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다. 세월은 백여 년이 흘렀어도 ‘환자 비밀 누설의 금지’라는 의사의 의무는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FDR이 20세인 1902년 하버드 대학 시절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서 포세린 크라운의 서막을 감지할 수 있다. 결국 FDR의 상악 전치 두 개가 발거되었는데 다행히도 국소마취제의 도움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치료를 받았다. 다만 전치부임에도 일주일동안 아무런 임시 보철물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래도 FDR은 새로운 보철물을 장착한 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으며 매우 흡족해하였다. 또한 소년 3명에게 프로포즈까지 받았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치과 핸드피스와 세멘의 개발이 부족하여 고정성 보철물이 아닌 가철성 의치에 만족해야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대통령에 당선된 FDR은 1933년 국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연설을 시작하였다(그림 24). ‘Fireside Chat(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짐작되듯이 국민을 친구



그림 23. 미국 제32대 대통령 (재임:1933-1945)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림 24. 1933년 국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연설 중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녹음실에서 틀니를 잃어버린 FDR은 이렇게 짜증을 냈었다고 한다. “Where in hell is my tooth?” 루스벨트의 아들도 아버지의 틀니를 찾느라 고생한 경험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헛소문만은 아닌 듯하다. 가철성 보철물의 단점중 하나인 ‘분실’이 명백하게 나타난 사례이다.

할아버지가 된 FDR은 전치부 틀니를 끼지 않고 손자들에게 잠자기 전 책을 읽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할아버지의 체면도 포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한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Grandpappy, What happened to your tooth? Did you swallow?”

미국 역사에서 비할 데 없는 큰 혼란기(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에 대통령 직을 수행한 FDR은 혈압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식할 정도였다고 한다.²⁰ 건강을 위해서 업무량을 줄이라는 의료진의 권유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1945년 4월 12일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FDR의 노년을 보면 치과에서 대통령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내원한 환자의 혈압 체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 중 하나이다.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1884-1972)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미국 제33대 대통령은 트루먼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그림 25).²¹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나...결국 트루먼은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라는 결단을 내렸고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은 종료하게 되었다. 트루먼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결정지었다니 약소국의 신세가 참 가슴 아프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트루먼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철치료였다.^{22,23} 트루먼은 새로운 bridge로 교체하는 진료를 받았는데 아마도 기존의 bridge의 지대치에 문제가 생겨 3본 브릿지가 더욱 확장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트루먼이 새로운 보철물을 장착한 후 불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 치료후에도 여전히 불편한 심기였다면 결정을 머뭇거리기만 하였을 것 같고 엉뚱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트루먼을 치료한 치과의사는 세계 평화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트루먼 대통령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자주 연락을 취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게도 치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칠은 틀니를 끼고 영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연설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칠의 틀니를 “The teeth that saved the world”라고 하였다. 만약 처칠이 틀니없이 연설을 하였다면 영국 국민들이 종전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을 했을까 싶다. 트루먼과 같이 처칠에게도 치과의사의 숨은 공헌을 느낄 수 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의 습격이 있었던 다음 달에 수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신병 훈련소에 모집되었다. 그러나 10명중 한 명



그림 25. 미국 제33대 대통령
(재임:1945-1953) 해리 트루먼

꼴로 치과적인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되었다. 이유는 6개 이상의 상실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 검사를 통과하여 전쟁에 참여한 상당수의 군인들의 치과 치료를 위하여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미국 전체 치과 의사의 1/4에 해당하는 2만명의 치과 의사가 미군 소속으로 등록된 채로 해외에 파견되어 군인들을 치료하였다고 하니 그 당시 미국 젊은이들의 구강 위생 상태가 무척 심각했던 것 같다.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본인이 겪었던 치과 경험과 젊은 군인들의 치과적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48년 6월 24일 미국 국민들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하여 ‘National Dental Research Act’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그림 26). 이 조직은 더욱 더 성장 발전되어 지금은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라 불리우며 미국 국립 보건원 단체 중에서 3번째로 크며 가장 성공적인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의학적으로 트루먼 대통령의 또 다른 업적은 구강 보건의 날 제정이다. 트루먼은 미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치과적인 질환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1950년 2월 6일을 구강 보건의 날로 지정하였고 현재는 2월달 전체를 구강 보건의 달로 정하였고 다양한 행사들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도 ‘치의학 연구원’이라는 단체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중이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한국 한의학 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듯이 어쩌면 치과계에도 이러한 단체의 설립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하루 빨리 필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바램이 있다. 조직의 명칭이 Institute of Dental Research에만 국한되지 말고 미국처럼 광범위하게 Korea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조직의 영문을 국문으로 바꾼다면 ‘국립 구강 및 두경부 악안면 연구원’ 정도로 될 성 싶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혼동스러울 수 있겠지만 구강만이 아닌 ‘두경부 악안면’ 영역까지 포함되는게 향후 치과계의 연구 범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명칭이라 생각된다.



President Harry S. Truman signing the bill creat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 June 24, 1948. Behind the President, left to right, are Dr. C. Willard Connelley, Assistant Secretary, American Dental Association; Congressman Walter E. Brehm, D.D.S., from Ohio; H. B. Washburn, President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Bruce Forsyth, Chief Dental Officer, Public Health Service; Carl Flaggstad, Chairman, Legislative Committe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Daniel F. Lynch, President-elect,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nd H. Trendley Dean,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

그림 26. 1948년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해리 트루먼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Truman, 1917-1963)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전직 직업은 군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해 독일군의 항복을 이끌어내 전쟁 영웅이 되었고, 그 공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그림 27).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수차례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전직 장군으로서의 직업적 성향이 발휘되었다. 그는 치과에서도 자신의 치과 주치의의를 부하 다루듯이 하였고 매우 진지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소련의 역사적인 만남이 1959년 7월과 9월 이렇게 두 번 있었다.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소련 서기장 흐루시초프와 미국 부통령 리처드 닉슨, 9월에는 미국에서 흐루시초프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만났다. 신기하게도 두 번의 만남에서 모두 리얼한 치과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자.

1959년 7월 소련을 방문한 닉슨 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를 둘러보다가 흐루시초프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서로 논쟁이 붙게 되었고, ‘Kitchen Debate’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다.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가전제품 중에서 ‘전동칫솔’도 있었다. 리영희(1929-2010)의 책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그때의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어 책의 일부를 옮겨본다.

(중략)소련을 처음 방문한 닉슨 미국 부통령과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의 한 서민 아파트의 부엌에서 말씨름을 했다. 자본주의제도의 총수격인 닉슨과 사회주의제도의 우두머리격인 흐루시초프가, 서로 자기 쪽의 삶의 방식을 자랑하다가 닉슨이 말했다. “미국 가정의 부엌에는 자동 칫솔이 있소. 손을 움직이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가 닦아진단 말이오. 어쩡소! 이래도 할 말이 있소?!”

흐루시초프가 흥! 코방귀를 끼면서 질세라 대꾸했다. “인간은 신체를 움직여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요. 삶의 낙이라는 게 무엇이오? 신체를 움직이기가 그렇게 지겹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차 모든 인간이 송장처럼 누워서 밥을 입에 떠 넣어주는 기계로 살게 되겠군!”(중략)

대화 내용만 보아도 그때의 상황이 짐작된다. 닉슨은 흐루시초프에게 ‘전동칫솔(electric toothbrush)’을 자랑하면서 미국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전동칫솔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시기

에 전동칫솔은 미국에는 있었고, 소련에는 없었다. 그래서인지 흐루시초프의 반박이 좀 궁색하게 들린다.

1959년 9월 소련 서기장 흐루시초프의 최초 미국 방문은 엉뚱한 곳에 불뚱이 튀게 하였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1859년 26명의 치과의사가 모여 창립된 단체를 시초로 하고 있다. 1959년 9월 17일 ADA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월도프 아스토리아(The Waldorf Astoria) 호텔에서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64개국의 치과의사협회 대표를 포함하여 치과의사 5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세계 치의학 역사에 남을 정도로 성대한 치과의사 모임이었다. 불현듯이 100주년 총회에 대한민국도 참가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송제 김귀선(1921-2013)은 그의 자선전 ‘한국 치과교정의 선구에서(한국기록연구소, 2014)’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진도 남겼다(그림 28).²⁷



그림 27. 미국 제34대 대통령
(재임:1953-1961) 아이젠하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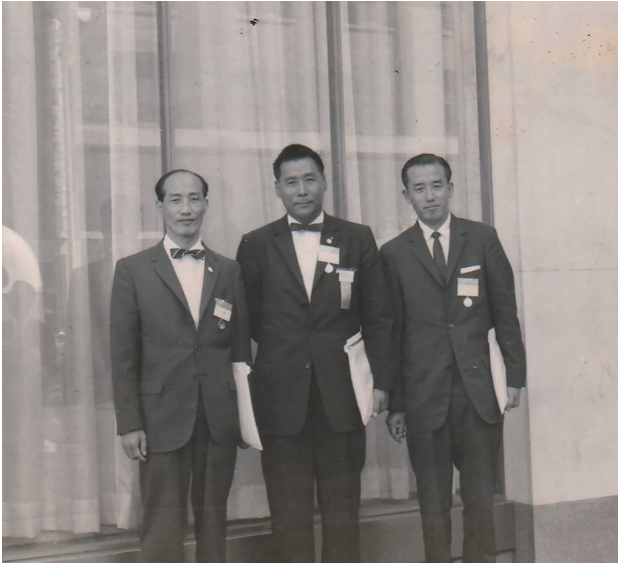


그림 28. 1959년 미국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FDI 총회 참석한 좌측:김귀선, 중앙:정보라, 우측: 김낙희

“1959년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ADA 100주년과 FDI 총회에 참석했다. 당시 김동순 선생이 대한치과의사협회(KDA) 부회장 겸 국제이사였고, 나와 김낙희 선생은 위원이었다. 당시 KDA 회장은 안중서 선생이었는데, 안 선생은 FDI 총회에 한국 대표를 보내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 FDI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결정된 분들이 정보라 선생과 김낙희, 윤신현 선생 등이었고 그분들을 옹호해서 보냈다. 그 총회에서 한국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총회 장소가 뉴욕 월도프 아스트리아 호텔이었는데, 그때 정보라 선생이 일장 연설을 하고 회원국으로 결정되었다. 한국치과의사회가 FDI 회원국이 된 것이었다. 그때는 정말 감격적이었다.”

운명의 장난인가? ADA의 백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하루시초프가 초대되어 1200명의 기업인과 함께하는 오찬 행사가 겹치게 되었다.³ ADA 회장은 백주년 행사 일주일전에 뉴욕시장과 미국 정부로부터 호텔 사용을 양보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ADA 회장은 미국 언론의 파워를 등에 업고 행사 장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부통령 닉슨으로부터 다음과 같

은 멘트를 받았다.¹⁷ “The Russians got to the moon first, but ADA got to this ballroom first.” 예정대로 ADA 백주년 기념행사는 성대하게 치뤄졌다. 만약에 이와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1959년 뉴욕 맨하탄에 있는 Waldorf Astoria 호텔의 그랜드볼룸 쟁탈전에서도 아이젠하워의 군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 치과의사들의 승리의 배경에는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구분할 줄 있는 아이젠하워의 ‘진정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아이젠하워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상악 좌측 중절치가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통령을 공상과학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든 이야기다.²⁴ 사연을 듣기 전에 아이젠하워의 #21 치과 치료 내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아이젠하워는 1952년 7월 #21에 포셀린 크라운을 장착하였으나, 12월에 파절되어 새로운 크라운으로 교체되었다. 1954년 2월 20일 금요일 그는 캘리포니아의 팜 스프링스(Palm Springs)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닭 날개를 먹다가 이번에도 #21 포셀린이 파절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언론에 노출되는 대통령이었기에 치아 파절이었지만 응급 상황으로 간주되어 마치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팜 스프링스 인근 Muroc Airfield(현 Edward Air Force)에 있는 군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예기치 않는 대통령의 군기지 병원 방문은 전혀 엉뚱한 소문을 야기하였고, AP통신에서는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가짜 뉴스까지 보도되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팜스프링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고, 대통령의 공보담당 비서는 금요일 저녁 대통령의 치아를 치료한 치과의사는 Francis Purcell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보고를 믿을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79년 치과의사 Francis Purcell의 부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대통령을 치료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아이젠하워의 치과치료 기

록은 치킨을 먹다 파절된 크라운까지 포함하여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4년 2월 20일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응급 치과 진료 기록만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치료한 Francis Purcell는 대통령 치과치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고 어떠한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1974년 세상을 떠났다. 그 바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외계인과 비밀 회동을 하였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 셋째, 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에 Francis Purcell에게 보낸 감사편지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사편지가 항상 보내지는데 말이다. 게다가 아이젠하워가 자주 UFO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증손녀 Laura Magdalene Eisenhower의 증언은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확신에 차게 하였다. ‘아이젠하워와 외계인과의 첫 번째 만남’이라는 소설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채로 살아있다.

아이젠하워는 1955년 9월 심장마비를 겪고 입원한 병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58년 좌측 상악 제2대구치를 발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아이젠하워에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복용중인 항응고제를 중단하였고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발치하였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지만 무사하게 아이젠하워의 치아는 발거되었다.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일 년에 두 번 정기 검진과 스켈링은 일상이 되었다.

제35대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Truman, 1917-1963)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것은 암살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케네디 대통령의 치아 이야기를 소개한다. 존 에프 케네디, 트럼프, 문재인 3명의 대통령에게 공통점은 무엇일까? 치과 의사의 눈에 비친 3명은 모두 상악에 전치부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서든 누구든 만나면 내 시선은 치아로 간다. 이것은 이빨쟁이의 운명이다.

미국 대통령 치아 연구에 평생을 바친 치과 의사 Ragsdale은 가까스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치과 주치의를 만나게 되었다.¹⁷ 주치위는 케네디 대통령의 상악 중절치에 jacket crown이 있다는 사실만을 Ragsdale에게 알려주었다.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의사의 환자 비밀 보호가 완벽하게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 44명의 초상화 또는 사진을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1대 조지 워싱턴부터 34대 아이젠하워까지는 모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치즈’라고는 1도 없어 치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상악 전치부가 변변치 못해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금기를 처음으로 깬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다(그림 29). 치아가 보일 정도로 스마일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더욱 친근하게 보이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렇기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거나 대중 앞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 나올 법한 케네디 대통령의 이빨 이야기는 하나 더 있다.¹⁷ 케네디는 1936년 하버드



그림 29. 미국 제35대 대통령(재임:1961-1963) 존 에프 케네디

대학 시절 수영 선수였다. 원래는 허약한 체질이었으나 엄청난 노력을 통해 수영 좀 하는 선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수영 실력은 7년 후 그의 인생에 큰 반전을 가져다준다.

1943년 8월 2일 케네디는 해군 대위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가하여 남태평양 솔로몬일대에서 작전 중이었다. 그때 일본 함대 아마기리(Amagiri)는 케네디가 타고 있는 PT-109호에 기습 공격을 가하였고 그 자리에서 2명은 즉사하였고, 9명은 배에서 탈출하여 구명보트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1명은 얼굴, 가슴, 파과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어 수영을 할 수도, 배에 탈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나머지 1명인 케네디 대위는 먼저 부상병에게 구명자켓을 입혔다. 그리고 부상병을 끈으로 단단히 연결한 후 그 끈을 이빨로 문채로 4시간동안 수영을 하여 무인도 섬에 11명이 도착하였다(그림 30). 안타깝게도 그 섬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무인도였다. 4일이 지난 후, 다시 11명의 대원들은 4시간동안 이동하여 또 다른 섬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케네디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상병과 함께 수영으로 이동하였다. 결국 그들은 구조되었고, 케네디는 전쟁영웅이 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케네디의 미담이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을 것이다. 케네디는 연설을 잘하기로 정평이 난 대통령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빨이 썰다’라고 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빨이 썰고, 이빨 힘도 썰다.



그림 30. 부상병을 구조중인 케네디 대위

제36대 대통령 린드 존슨(Truman, 1908-1973)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전직 교사 출신인 36대 대통령 린드 존슨이다(그림 31). 갑작스러운 케네디의 암살로 인하여 케네디 유해를 운반중인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 선서를 한 인물이다. 특이한 또 다른 사실은 임기가 약 6년이다. 그 이유는 부통령으로 자동으로 승계한 케네디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1964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어 만약에 당선되었으면 10년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러나 린든 존슨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던 1964년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되었고, 최초로 전쟁에서 미국에 패배를 안겨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퇴임하였다.



그림 31. 미국 제36대 대통령(재임:1963-1969) 린드 존슨

교사 출신인 대통령 린든 존슨에게는 치과에서 진료 받을 때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⁵ 스켈링을 할 때 입술을 오므리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고 한다(그림 6).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무척 힘들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스켈링을 한 후에는 술자의 코에 ‘후’하고 불면서 자신의 입냄새가 어떤지 항상 물어봤다고 한다. 이거야 정말 치과 의사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일까? 이러한 스토리가 미국에서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항상 전동칫솔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¹⁷ 그래서 항상 전동칫솔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한다. 대통령 기념 선물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향한 우정과 존경심을 배가시킨다. 린든 존슨 대통령의 기념선물은 특이하게 전기 면도기와 전동칫솔이었다(그림 32). 그때 그 물건들은 현재 텍사스에 있는 린든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7). 어느 날 백악관에 근무하는 인턴이 대통령에게 “Why tooth brushes?” 라고 물었다. 린든 존슨의 답변은 이랬다.⁹ “I want people to think of me right away when they wake up and right before they go to bed.” 정말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대답이라 생각된다. 이것보다 더 기가막힌 대통령 기념 선물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손목시계다. 하루에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쳐다볼까? 최소 100번은 넘을 것이다.

1959년 ‘Kitchen Debate’의 중심에 서 있었고 린든 존슨이 그토록 애용했던 전동칫솔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전동칫솔은 1954년 스위스에서 Dr. Phillippe-Guy Woog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고, 상품명은 Broxodent였다. ADA 100주년과 FDI 총회가 열렸던 1959년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제품은 전동칫솔이었다. E.R. Squibb and Sons라는 회사가 미국에 처음으로 전동칫솔을 ‘Broxodent’ 제품명으로 소개하면서 판매도 하였다(그림 33). 1961년 비로서 현재의 전동칫솔과 유사하게 전기 없이 배터리로 교체하는 전동칫솔이 GE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그림 32. 린든 존슨 대통령의 기념선물 전동 칫솔



그림 33. E.R. Squibb and Sons에서 시판한 미국 최초의 전동 칫솔 ‘Broxodent’

제39대 지미 카터(Truman, 1924-2024)

지미 카터(Jimmy Carter 1924~)는 미국 제39대(1977.01-1981.01) 대통령이였다. 오바마가 44대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총 43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만약 이중에서 건치 대통령을 선정한다면 지미 카터는 탑 3안에 들어갈 것이다. 지미 카터의 미소는 대통령 선거 운동 시 큰 장점이었다. 카터는 웃을 때 가지런하게 배열된 하얀 상악 치아들이 드러나 보였고 하악 구치부까지 보일 정도 였다고 한다(그림 34).

지미 카터가 건치인 또 다른 증거는 간호사였던 카터 엄마 Lillian의 증언이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치아 상태를 조사 중이던 치과의사에게 이렇게 자랑했다고 한다.

“My son’s teeth are excellent, in fact, perfect.”

미국 대통령 44명의 평균 수명을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은 지미 카터다. 건치백세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건치 대통령 제퍼슨 83세, 트루먼 88세이 있다. 카터는 건치인으로 정평이 나있고 스마일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그의 고향 미국 조지아주에 가면 땅콩 조형물이 있는데 카터의 건치 스마일이 함께 땅콩에 새겨져 있다(그림 35).

땅콩 농장 주인이었던 지미 카터의 스마일이 케릭터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머그잔이 판매되었다(그림 36). 우리나라에도 땅콩 특산지가 있다. 신안 자은도는 땅콩의 섬으로 알려져 있고 섬 초입에 땅콩 조형물이 우뚝 서있다(그림 37).



그림 34. 미국 제39대 대통령 (재임:1977-1981) 지미 카터



그림 35. 지미 카터의 고향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땅콩 조형물



그림 36. 지미 카터의 스마일이 상품화된 머그 (권훈 소장품)



그림 37. 신안 자은도 입구에 서 있는 땅콩의 섬 홍보용 조형물

제42대 빌 클린턴(Bill Clinton, 1946-)

미국 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하면 섹소폰, 스캔들, 힐러리가 연상된다. 클린턴은 천운을 타고 난 사람이다. 첫 번째로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병역 기피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TV 토크쇼에 출연하여 그의 빠른 섹소폰 연주 실력 덕택에 대통령에 턱걸이로 당선되었다. 두 번째 위기 즉 화이트 워터 게이트(부동산 관련)와 섹스 스캔들로 탄핵의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에는 미국 경제가 최고의 호황이었기에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클린턴에게 이처럼 위기가 닥쳤을때마다 힐러리가 그를 도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클린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으로 남았을 것 같다(그림 38).

빌 클린턴은 두 번의 재임기간동안 백악관 예산에서 치과와 관련해서는 bill이 제로이다.²⁵ 관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구강 건강을 책임질 의료진이 미국 군의관에서 차출되는데 클린턴 시절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클린턴은 그의 고향 아칸소주 Little Rock에 있는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칼하게 클린턴은 재임시절 공공의료보험의 강화와 의료비 개혁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개인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니 말이다. 클린턴을 치료했던 치과 개원의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까?

우표에서 클린터 옆에 있는 사람은 세계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의 대통령 Cheddi Berret Jagan(1918-1997)이다(그림 39). 1992년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가이아나(Guyana)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Jagan은 1942년 미국의 Northwestern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치과의사가 되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가이아나의 수도인 조지타운에서 개원을 했다. 1993년 인구 77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치과의사가 대통령까지 되었다니 그는 치과의사학적으로 위대한 치과의사중 한 명이다.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2013년 10월 31일 뉴올리언즈에서 개최예정인 154회 총회에 빌 클린턴을 연자로 초청하였다. 그런데 강의 내용보다는 연자료가 궁금하다. 클린턴의 강의료는 싸이의 출연료보다 높다. 5월 21일 이스라엘에서 45분간 강연을 했는데 그 비용이 5억 6000만원이나 되어 메스컴에 보도까지 되었다. 10분에 1억이 넘는다. 빌 클린턴은 강의 한 건당 평균 18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니 최소한 그 정도 비용을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 지불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임 대통령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기엔 아직도 요연해 보인다.



그림 38. 미국 제42대 대통령(재임:1993-2001) 빌 클린턴



그림 39. 가이아나(Guyana)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념 우표(1997)

제44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1961-)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사람일 것이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미국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는 전형적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의 대통령 아니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미국인 에게 주장하는 “Yes, we can!”을 직접 “Yes, he can”하여 보여주었다.

오바마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설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의 하얗고 가지런한 치열을 다 드러내고 웃는 자연스러운 미소는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그림 40). 오바마의 치열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교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에겐 큰 자산이다. 게다가 오바마는 목소리도 좋아서 그의 말이 청중의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한다.

2012년 12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일 대학교 연구팀은 도마뱀 화석 분석을 통해 새로 발견한 멸종된 소형 도마뱀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따 ‘오바마돈’(Obamadon)이라 명명하였다(그림 41).²⁶ 고생물학자인 Longrich 교수는 이 도마뱀이 매우 길고 직선 모양의 치아를 갖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역시 비슷한 치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바마돈이라 명명하였고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마뱀은 이미 11월 이전에 발견되었지만 연구팀은 2012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때까지 명명을 기다렸다고 한다. 만약 오바마가 낙선된 상황에서 오바마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그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아 기다렸다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롱리치 교수는 ‘Clintondon’ 어감이 이상하여 배제하였고 ‘Rommeydon’은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오바마는 곰팡이와 기생충의 이름을 만들때에도 사용되었다. 2009년 4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 연구진은 신종 곰팡이를 ‘칼로플라카 오바마이(Caloplaca Obamae)’로 명명하였고, 2012년 4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견된 신종 기생충에 ‘파라도르디우스 오마바이(Paragordius Obamai)’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도마뱀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곰팡이와 기생충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민주주의의 상징 ‘표현의 자유’란 말이 떠올랐다.

1791년 12월 15일 개정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백년도 더 넘는 옛날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지금도 그 법이 미국의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없이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한 번 더 놀라게 만든다.



그림 40. 미국 제44대 대통령(재임:2009-2017) 버락 오바마



그림 41.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마뱀 학명 오바마돈(Obamadon)

동물 분류학에 대통령 오바마의 이름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나무늘보에 사용되어 ‘Megalonyx Jeffersonii’라는 명명이 만들어졌고, 제41대 조지 부시 대통령은 딱정벌레에 사용되어 ‘Agathidium Bushi’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생물이 탄생되었다. 만약 우리나라 전, 현직 대통령들의 이름이 동물 분류학에 사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최근 ‘오바마 케어’의 가입 기한을 묵시적으로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동영상에 인터넷에서 화제다.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홍보하기 위하여 오바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 케어에는 치과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별도의 옵션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치과 보험이 오바마 케어에서 빠진 이유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아마도 치과 혜택이 오바마 케어에 포함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정책입안자들의 판단때문일 것 같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는 치과 비급여 진료료가 하나 둘씩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쯤에서 우리도 치과 치료의 의료보험 확대에 의한 혜택과 손실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점인 것 같다.

제45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

탄핵(impeachment)과 사임(Resignation)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들렸지만 요즘은 아주 대중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 미국 250여년의 역사에서 4명의 대통령에게 탄핵은 3번, 사임은 1번 있었다. 그 주인공들은 제17대 Andrew Johnson(1865-1869), 제37대 Richard Nixon(1969-1974), 제42대 Bill Clinton(1993-2001), 제45대 Donald Trump(2017-2021) 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네 사람 모두 치아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다.

앤드루 존슨(1808-1875)은 매우 불량한 치아 상태 때문에 대중 연설을 가능하면 회피했다고 한다(그림 42). 짧은 입술 때문에 연설도중 침을 자주 흘리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양복 재단사 출신인 앤드루 존슨의 직업을 고려해보면 옷핀 같은 단단한 물건을 자주 입에 물어 특히 전치부의 마모도 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도 해본다.

리처드 닉슨(1913-1994)은 전직 대통령의 치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치과의사 Jack Ragsdale(1924-2005)의 끈질긴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그림 43). 노년의 치과의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닉슨 도서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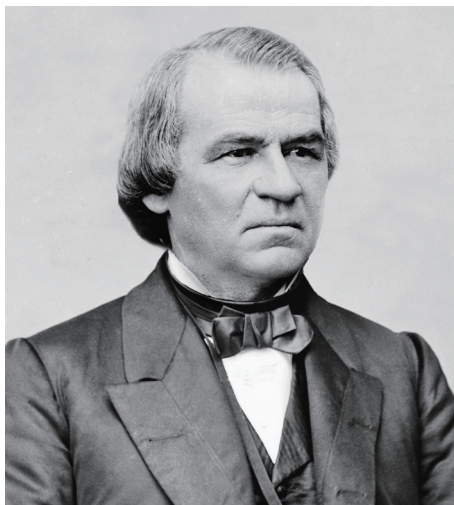


그림 42. 미국 제17대 대통령
(재임:1865-1869) 앤드루 존슨



그림 43. 미국 제37대 대통령
(재임:1969-1974) 리처드 닉슨

닉슨의 치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다음의 답변을 얻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후 닉슨의 치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모든 서류는 압수를 당하여 지금은 버지니아에 있는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하였다. 우문현답이 아닐 수 없다. 닉슨은 탄핵이 확실시 되자 임기 중 사임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1946~)의 치과 이력은 수년간 많은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트럼프는 자신의 치과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지만, 언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치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주 지적해 왔다(그림 44). 밝은 치아와 고른 치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Veneer 또는 미백과 같은 치과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의 치아는 매우 건강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건치로부터 기인한다(그림 45). 그는 치과 치료와 심미 치과 시술에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의 일환으로 치아 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대중적 페르소나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유명인에게 완벽한 미소는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심미 치과 치료는 소셜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하얀 치아에 영감을 받아 심미치과 치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44. 청년 시절 도널드 트럼프



그림 45. 미국 제45대 대통령
(재임:2017-2021) 도널드 트럼프

제46대 조 바이든(Joe Biden, 1942-)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 제3절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서면 신청을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대리로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2021년 11월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장내시경 검진을 위해 마취된 85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은 탄생되지 않고 있다. 해리스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잠시나마 맡았던 인물로 역사에 남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29세의 최연소 나이로 델라웨어 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시작하였고, 2021년 78세 2개월로 역대 미국 대통령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은 2025년 1월 트럼프가 78세 7개월의 나이로 재임에 성공하면서 깨졌다.

2023년 6월 백악관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하였다(그림 46). 6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치과 진료실에서 #45 근관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아침 약간의 불편감은 있었지만 전문의가 근관치료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과 관련된 추측성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기에 이처럼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도 백악관에서 정확한 발표를 한 것 같다. 이 뉴스를 통해서 1930년 무렵 백악관에서 설치된 치과 진료실이 현재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백악관에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과 치료를 위해서 일정을 빼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치과 관련 일화는 그가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에도 있다(그림 47). 1992년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가 대법원에 임명된 것에 관한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당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그 위원회 청문회를 주재했다. 청문회 기간 동안 바이든 의원은 끔찍한 치통을 앓고 있었다. 실제로 청문회 휴식 시간에 다른 의원들이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실 때, 바이든은 치통이 있는 치아에 인접한 뺨에 찬 탄산음료 캔을 대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탄산음료 캔에 의지해 치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바이든은 치과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발수 치료를 받아 가스 압력이 제거되어 통증이 사라졌고, 또 한번의 내원을 해서 근관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바이든 의원은 3주 동안의 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오랜 고통과 고문에 대한 청문회였지만, 내가 받았던 근관치료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청문회 기간동안 고통이 심했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들리는데, 바이든을 치료해준 치과의사 Mo Budak은 그의 발언을 듣고 무척 화가 났고 바이든에게 편지까지 썼다(그림 48).

나는 한밤중에 가족들과 떨어지면서까지 시간을 내어 당신의 치통을 제거해주고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바이든 당신은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용감무쌍한 치과의사임에 틀림없다. 그는 바

Biden to have root canal procedure at White House

13 June 2023

Brandon Drenon BBC News, Wash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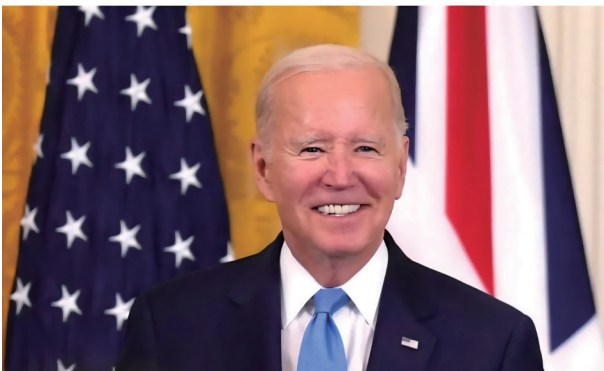


그림 46. 재임시절 근관치료를 받았던 조 바이든



1992 Interview with Senator Joe Biden

그림 47. 상원의원 시절 미국 제46대 대통령 (재임:2021-2025) 조 바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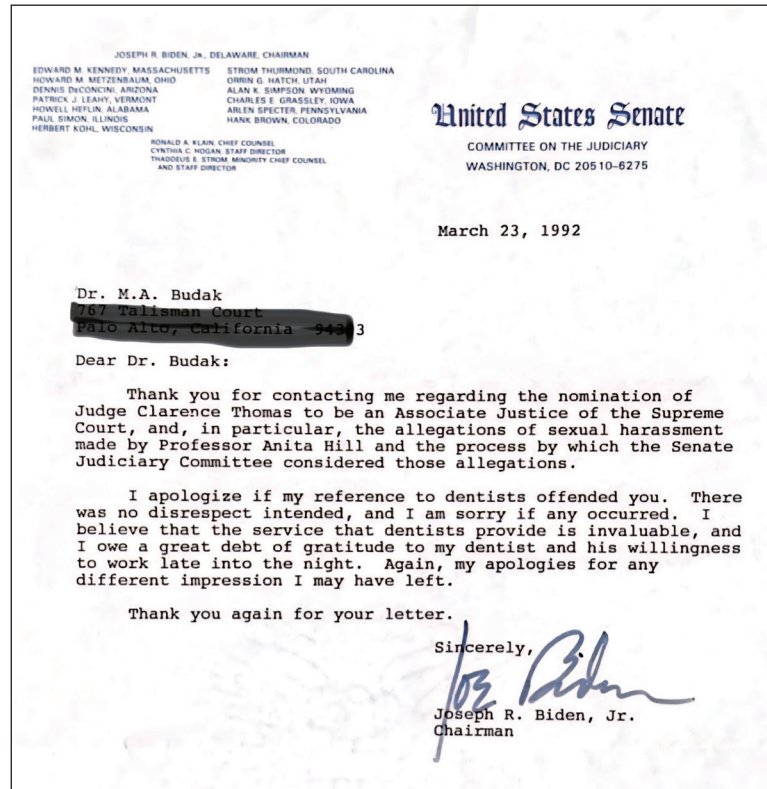


그림 48.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을 치료해준 치과의사 Mo Budak가 바이든에게 보낸 편지

이든에게 치의학 역사까지 강의하였다. 미국 초기 식민지 시대 때, 치과의사들만이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며 치아를 발치하고 치통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었다는 점을 바이든에게 강조하였다. 그 마을에서 떠돌이 치과의사들은 옛날 영어에서 ‘킨데 하츠(Kinde Hearts : A person who is compassionate, considerate, and generous, with a natural inclination to help others)’로 불리게 되었다. 바이든에게 응급 치료를 해줬던 치과의사가 진정으로 ‘킨데 하츠’였고, 바이든이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치과의사는 심한 모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바이든에게 상기시켰다. 몇 주 후에 Joe Biden은 치과의사 Mo Budak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치아 신경치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사람들은 치아에 구멍을 뚫고 치수를 노출시킨 후 뜨거운 바늘 또는 끓은 기름을 이용하여 치수를 소작하였다. 1602년에는 Jan van Heurne가 황산을 이용하여 치수를 괴사시켰다. 1867년 Bowman은 근관 충전을 위해 gutta-percha를 사용하였다. 1884년 국소마취가 개발되어 근관치료시 발생하는 통증이 많이 해소되었다. 치과 명화는 대부분 발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극히 드물게 기구를 이용하여 뭔가를 충전하는 모습이 그려진 명화가 있다. 필자의 눈에는 어쩌면 불에 달군 기구로 신경 치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오랫동안 고통과 고문의 나날이었지만, 내가 받았던 근관치료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멘트 대신에 “나의 치통을 해소해준 치과의사 덕분에 이번 고통스러웠던 청문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맺음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치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 대통령들이 최근 대통령들보다 구강 상태가 열악하였고, 치료는 주로 발치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최근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치아 건강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치의학이 발전하고 덴탈 아이큐가 높아지면서 구강 위생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대통령의 치과 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추측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치과 이야기를 통해 치의학 발전사를 살펴보고, 치아 건강이 그들의 삶과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원고가 치의학 역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7), GC Circle Vol 31, 2017
2.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3), GC Circle Vol 27, 2014
3. Harold L. Faggart : A recently discovered second letter from George Washington to John Baker, JADA. Vol 59:549-551, 1959
4. Raphael Escoe : A new look at John Greenwood's denture for George Washington, J Hist Dent. 29(1):37-39, 1981
5. John Woodforde : The strange story of false teeth, Routledge & Kegan Paul, 1968
6. J. A. Taylor : History of dentistry, Lea & Febuger, 1922
7. Arthur W. Lufkin : A history of dentistry, Lea & Febuger, 1948
8. Jack S. Ragsdale : What did Thomas Jefferson mean by "I have not yet lost a tooth by age", JADA. Vol 108:643-4, 1984
9. Robert W. Hilkene : The dental health of the presidents, Bulletin history of dentistry, 13(4):16-45, 1965
10.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8), GC Circle Vol 32, 2017
11. Maynard K. Hine : The dental problems of Abraham Lincoln, Bulletin history of dentistry, 21(1):1-8, 1974
12. Arden G. Christen : Adalbert J. Volck(1828-1912): Confederate Dentist, Artist and Anti-Lincoln Satirist, J Hist Dent. 49(1):17-23, 2001
13. Andrew Renehan : The oral tumours of two American presidents: what if they were alive today?,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Vol 88 July, P. 377-383, 1995
14. Eric R. Carlson : Oral cancer and United States Presidents, J Oral Maxillofac Surg. 60:190-3, 2002
15.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2), GC Circle Vol 26, 2014
16.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6), GC Circle Vol 30, 2016
17. 권훈 : 명화로 배우는 치과의사학(14), GC Circle Vol 47, 2025

18. Arden G. Christen : Theodore roosevelt's "presidential Smile" and Questionable Dental Health, J Hist Dent. 55(2):85-90, 2007
19.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5), GC Circle Vol 29, 2015
20. William J. Malobey : The hypertension of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The president as casualty of war. The New York State Dent J. 78(6): 37-40, 2012
21.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1), GC Circle Vol 25, 2013
22. Jack S. Ragadale : President Harry S. Truman's Dental Health, Bulletin history of dentistry, 34(1):34-6, 1986
23. James M. Mixson : The two crises that faced president Truman: Korean and Dental, Bulletin history of dentistry, 36(2):93-6, 198
24. James M. Mixson : A history of Dwight D. Eisenhower's oral health, Bulletin history of dentistry, 43(3):93-103, 1995
25. Eric Curtis : Hand to Mouth : Essays on the art of Dentistry, Quintessence Publishing Co, 2002
26.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4), GC Circle Vol 28, 2015
27. 권훈 : 대통령과 치과의사학(9), GC Circle Vol 33, 2018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6. 6. 21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제 3 장 회 원

-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및 선 거

-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제 5 장 총 회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세 칙

1. 연회비 : 6만원
2.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

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3,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²는, 김 등²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권 훈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명 예 회 장	이 해 준
회 장	권 훈
부 회 장	김 준 혁
부 회 장	변 웅 래
총 무 이 사	박 경 오
재 무 이 사	김 성 영
학 술 이 사	박 정 철
학 술 이 사	손 병 진
학 술 이 사	유 재 식
국 제 이 사	조 서 진

국 제 이 사	박 대 규
기 획 이 사	김 호 영
기 획 이 사	김 아 현
공 보 이 사	오 유 향
공 보 이 사	장 향 길
정 책 이 사	송 호택
정 책 이 사	김 동 형
감 사	이 주 연
감 사	강 백 면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4년 제43권 제1호 통권 48호

Vol. 43, No. 1, 2024

발 행 인 : 권 훈

인 쇄 일 : 2024년 12월 23일

발 행 일 :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61665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전화) 062-672-2543, 팩스) 062-673-2543

<http://dentalhistory.or.kr>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의치학사

Publisher : Kweon, Hoon

Printig date : December 23, 2024

Publication date : December 31, 2024

Published by :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Mirae Children's Dental Clinic, Daenam Daero 131,

Namgu, Gwangju, 61665, Korea

Tel : +82-62-672-2543, Fax : +82-62-673-2543

<http://dentalhistory.or.kr>

Edition & Printing : Dental and Medical Publishing

Caries Diagnosis

스마투스 충치진단기

가벼운 터치로 빠르게 충치상태를 진단하세요!



CLEAR 정확한 진단

광센서를 이용한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아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ASY 쉬운 사용법

본체에 연결된 프로브를 치아에 가볍게 접촉하면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수치가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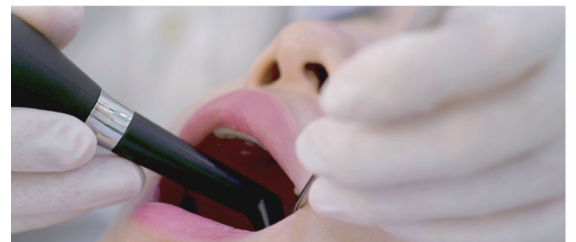
FAST 신속한 결과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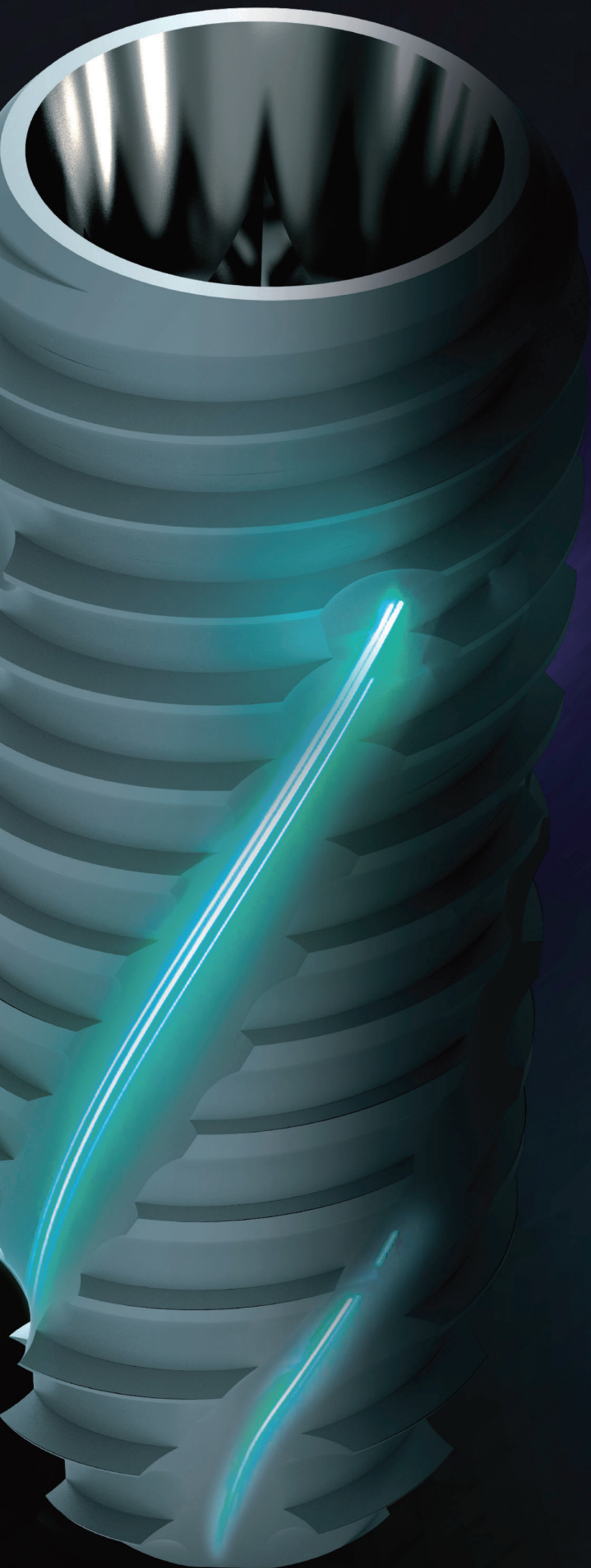
센서들의 빠른 결과값 도출로 0.5초 이내에 바로
측정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APP 앱과 연동 (옵션)

클라우드 기반의 앱을 이용하여 환자의 치아 우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PC와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료기기 임플란트 부문

202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상 수상

임플란트는 역시 코웰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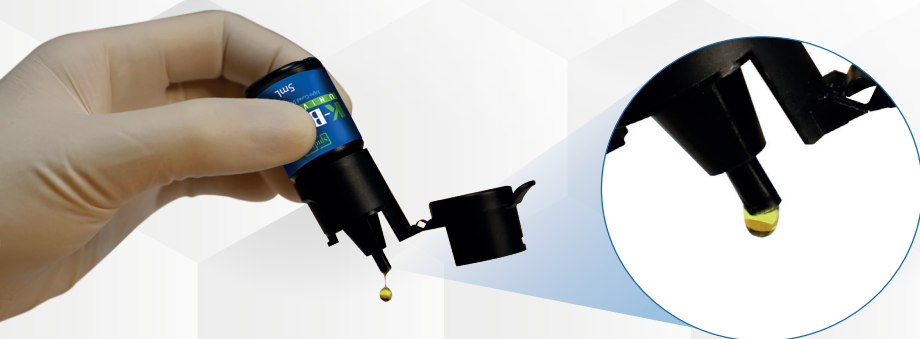
- ✓ 대한민국 1호 임플란트
- ✓ 업계 유일 동탑산업훈장 수훈 기업 (2004)
- ✓ 30년이 넘는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 ✓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한 믿음직한 임플란트
- ✓ 다양한 증례에 최적화된 환자 맞춤 임플란트!

Cowellmedi
The Pioneers in Dental Implant and E.rhBMP-2
코웰메디임플란트

ABSOLUTELY UNIVERSAL

K-BOND

Light-Cured Dental Adhesive



Indication

- ✓ Direct bonding
- ✓ Repair cases
- ✓ Indirect luting
- ✓ Hypersensitivity treatment
- ✓ Compatible with total-etch, selective and self-etch system

Package | 5 mL x 1 Bottle



(주)스피덴트

국내영업 사무소 :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15호)

Tel. 1644-3412 Fax. 02-318-0034 E-mail. spident01@naver.com

물류센터 : 21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84 (고잔동, 한국산단 117호)

www.spident.co.kr

고객지원팀 1644-3412

Save tooth and Save your time



Innovated by
PLAZEN

No NaOCl
No Patency in vital teeth
No Ultrasonic irrigation
No File? *not yet... extremely minimally*

This is PLAZEN RCT

Minimally invasive / Single visit RCT

5년 생존율 **97.7%**

🏆 SIDEX2024 포스터경연대회 발표 : 금상 수상

8년동안 임상에서 검증된 안전성과 유효성



유관 기관 공동연구 실적

- 한국산업진흥원 국산의료기기 사용자평가 지원사업(2024)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의생명공학연구원 공동 개발과제(2019)
- 의료기기 신기술지원과제
- 산학연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과제(2016)

치과학술대회 수상내역



TEL | **02-3789-2877, 010-8752-3359**

명이가 선택한 명품 솔루션
PLAZEN RCT
Computer Guided Dental Care System

EndoRoad P

Rhombohedral NiTi file

석회화 근관에서 페이턴시 확보를 더욱 안전하게

- 부드럽게 근관을 따라가는 "Centering Effect"
- 핸드파일보다 질긴 "Fracture Resistance"
- 삭제편이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Progressive Taper"
- 심한 석회화 근관을 위한 더 가는 파일 (#12 02T)

Proven MT Wire Technology

Zundajants Olgert, DDS,
MS,* Sang Won Kwak, DDS,
MS, PhD,* Jung-Hong Ha, DDS,
MS, PhD,* Ghanika Gambani,
MD, DDS,* Ya Shen, DDS,
PhD,* and Hyeon-Chul Kim,
DDS, MS, PhD*

BASIC RESEARCH - TECHNOLOGY

Effect of MT Technology of Heat Treatment on Reciproc: Comparison of Reciproc, Reciproc Blue, and Reciproc MT

SIGNIFICANCE

New heat treatment of Memory-Triple technology could enhance the fatigue fracture resistance of the reciprocating Reciproc file made of NiTi.

ABSTRACT

Introduction: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from the memory-triple (MT) treatment on the fatigue resistance of the Reciproc by comparison with the file system same geometry. **Method:** Reciproc file subjected to MT heat treatment technology designated as Group RMT and were compared with the original Reciproc (Group RE) Reciproc Blue (Group RB). Each NiTi file from 3 groups ($n = 10$) was compared with a respective up-and-down movement in the curved canal with 4-mm of pecking of inside of the simulated canal at body temperature. When each file fractured, the time fracture was recorded. The length of the fractured fragment was measured. Fracture morphs were observed un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o evaluate the topographic features of the surfac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nett's comparison were applied to compare among the groups at a significance level of 0.05. **Results:** RMT showed significantly higher fracture resistance ($P < .05$), whereas the no difference in fatigue resistance between RE and RB. SEM examination showed that the 3 groups had similar topographic features. RMT showed a peak of austenite (A_p) at a temperature (52°C) higher than body temperature, whereas RE and RB at A_p at 37°C and 32°C , respectively. **Conclusions:** Under the condition of this study, the heat treatment technique of MT technology could enhance the fatigue fracture resistance of the reciprocating file made of NiTi wire. (*J Endod* 2024;50:520-526)

KEY WORDS

Blue-wire; cyclic fatigue resistance; fracture resistance; heat treatment; NiTi; root canal file

From the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Dental Research Institute, Dental Life Science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cience, Keio University, Tokyo, Japan; and Department of Oral Biology and Maxillofacial Science, Division of Endodontics, Faculty of Dentistr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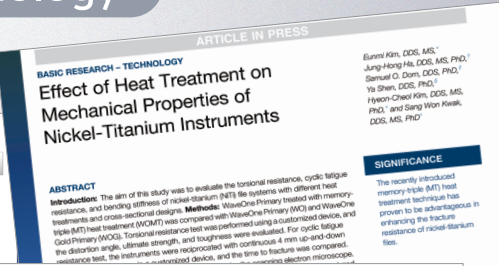
Address requests to reprints to Dr Hyeon-Chul Kim,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mun-ro 2, Busan 49260, Republic of Korea. E-mail address: hckim@pusan.ac.kr (055-259-5959; fax 055-259-5959)

Copyright © 2024 American Association of Endodontists.

100 Olgert et al.

Reprinted for permission from J Endo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Downloaded by Dr Hyeon-Chul Kim on 10/10/2024. For personal use only. No other uses without permission. Copyright © 2024 Elsevier Inc. All rights reserved.

JCE • Volume 50, Number 4, 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fatigue resistance of files made from different heat treatment methods and surface treatment. Four prototype files were coated through heat treatment and titanium coating surface treatment (AT, DT, ER, EN; named arbitrarily by the manufacturer) at different times and temperatures. Artificial canals with curvatures of 45° and 90° degrees were used for the fatigue testing. The files were operated at the speed of 500 rpm at 37°C , and the time until fracture occurred by a 4-mm dynamic pecking motion at a speed of 8 mm/s was measured, and the number of cycles to failure (NCF) was calculated by applying rotation speed and time. The length of the fractured fragment was measured. The fractured specimens were observed under the SEM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fatigue fracture pattern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s. One-way ANOVA with Duncan's post-hoc comparison, the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were applied to compare the fatigue resistance among the prototypes at a significance level of 95%. Regardless of the canal angle, the EN showed the highest fatigue resistance ($P < 0.05$). AT had the lowest NCF at the 45-degree canal ($P < 0.05$). ER had a higher NCF than the DT at 45 degrees ($P < 0.05$), but there was no difference at 90 degrees. DSC analysis revealed that the ER and EN groups exhibited two austenite peaks above 40°C . In conclusion, the file that underwent a specific temperature heat treatment with titanium coating surface treatment showed the highest fatigue resistance.

Keywords: nickel-titanium file; fatigue; fracture resistance; heat treatment; surface treatment

1. Introduction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root canal treatment requires technical expertise and precision. To achieve this, clinicians carefully manipulate hand files within the root canal space while adhering to essential principles for disinfection and treatment. Traditionally, stainless steel files were used to form an appropriate root canal shape using various manipulation techniques [1,2].

However, the introduction of nickel-titanium (NiTi) files in the late 1980s revolutionized root canal treatment technology, as they showed significant advantages over stainless-steel files in terms of instrument stability [1]. NiTi files are more flexible for filing, reaming, turn-and-fill, and balanced force techniques. They also offer a shorter shaping time and are less prone to procedural errors, such as zip, ledge, or transportation, due to their super-elasticity [1,2]. NiTi files maintain the original canal shape during preparation, and furthermore, the super-elasticity of the NiTi rotating file can create a desirable

JUST GRAFT IT.



BONE BOOSTER!

BONTREE+

꿈의 물질 OCP 기반의
생체모사 골이식재



제품 및 구매문의처

본사 및 제조원(광주전남 판매원)

휴덴스바이오

6108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18

TEL. 010-5307-4843 FAX. 062-574-2805

국내 총판

가이스트리히코리아

066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1길 1, 5층

TEL. 02-553-7632 FAX. 02-553-7634

I N L A Y W I S E W I T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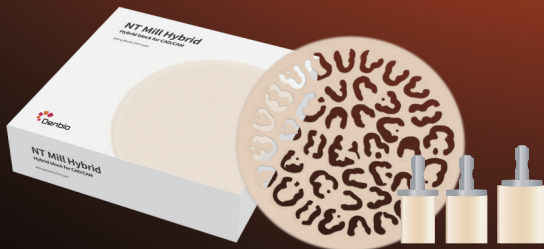
NT Mill Hybrid

Nano Hybrid block for CAD/CAM
Milling Blanks (Disk type)

Flexural strength
193-216 MPa

Easy and quick
1 DAY treatment

Inorganic filler rate
81 wt%



NT Mill Hybrid는 고밀도, 고순도의 고분자 매트릭스에 나노 입자의 세라믹 소재(무기 필러)를 이용하여 만든 하이브리드 블록으로 광중합 제조방식을 이용하여 심미성, 가공성,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고 미래의 CAD/CAM 시장을 선도할 치과 캐드캠용 하이브리드 복합 레진 블록입니다.



인젝터블 타입의 점도와 벌크 충전에 이상적인 물성으로 대형 와동의 교합면까지 충전이 가능한 인젝터블 컴포지트 레진

- 우수한 점도와 틱스트로피(thixotropy)성질로 이상적인 벌크 충전이 가능한 인젝터블 레진입니다.
- 높은 내마모성과 굴곡강도를 통해 내구성이 뛰어난 수복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 셀프사이닝 효과로 뛰어난 광택과 유지력을 제공합니다.
- 최대 4mm까지 대량 충전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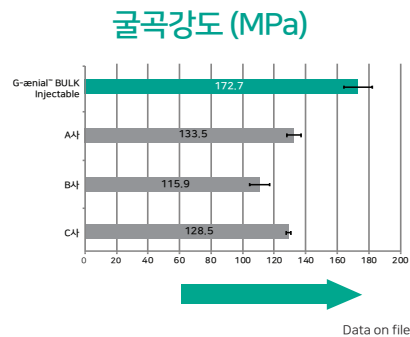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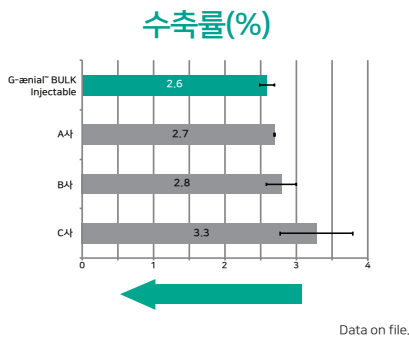
* 틱스트로피(thixotropy)란?

가만히 두었을 때는 쉽게 흐르지 않아서 조작성이 우수하고, 작은 외부 자극에는 뛰어난 유동성을 발휘하는 성질입니다.

경화 깊이	제품명
최대 2mm	G-ænial™ Flo X 
	G-ænial™ Universal Injectable 
최대 4mm	G-ænial™ BULK Injectable 

G-ænial™ BULK Injectable 은 강도와 심미, 최적의 균형을 통해 내구성이 뛰어난 수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 높은 굴곡 강도로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높은 마모저항성을 통해 뛰어난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 뛰어난 색감에 광택 유지력을 더했습니다.
- 낮은 수축률과 응력으로 경계 부위(Marginal integrity)를 보존하고 재발성 우식을 예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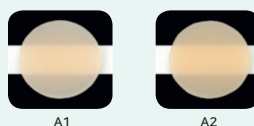
Courtesy of Jeff Lineberry, DDS, Mooresville, NC



G-ænial™ BULK Injectable Syringe

*포장단위 : 3.4g(2.0mL) 시린지 1개, 플라스틱 팁 20개, 차광 팁 1개

*Shade : A1, 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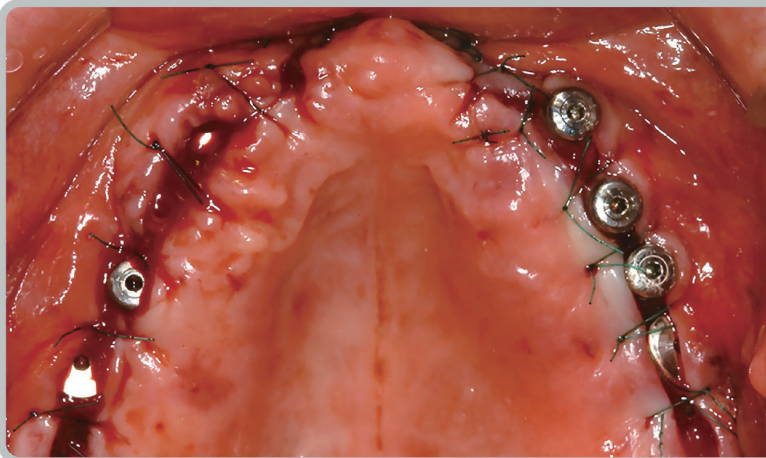


*색조는 인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GC KOREA CO.,LTD.

고객서비스센터 080.313.7979

미래 임플란트 치료의 표준!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필수입니다.



Conventional
Surgery System



AMII
Minimally Invasive
Surgery System



임상가
한줄평



Incision, Flap, Suture 최소화로 시간이 엄청 짧아요, 환자도 엄청 좋아 하네요.

Dr. Seol

1~2개 임플란트 식립은 환자들이 너무 빨리 끝나 당황해 하네요.

Dr. Lee

열었으면 시작도 못 할 수술들이 열지 않으니 간단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Dr. Kim

왜 이제 시작했나 싶네요. 20년 넘게 왜 그리도 힘들게 수술을 했는지... 환자를 위해서도 진작에 바뀌어야 했네요.

Dr. Ryu



IBS
INNOBIOSURG

OneGuide

편의성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Template

01 Diagnosis

CT를 이용한 3차원 진단

02 Planning

Computer system을 통한
수술계획 수립

03 Surgery

원가이드를 장착하여 수술